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
신명기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신명기

Deuteronomy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6:4, 5)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 וְאַהֲבָתָ אֶת יְהוָה
אֱלֹהֶיךָ כָּכָל-לְבָבְךָ וּכָכָל-נַפְשְׁךָ וּכָכָל-מְאֹדְךָ :

신명기

PROPHETIC BOOKS

신명기 차례

신명기 서론	〈13제〉	… 355
제 1 장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회고(回顧)	〈24제〉	… 359
제 2 장 전쟁에 대한 회고	〈21제〉	… 367
제 3 장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회고	〈20제〉	… 373
제 4 장 신정 국가의 초석(礎石)인 율법을 지켜라	〈25제〉	… 380
제 5 장 새 세대에 대한 호렘 산 언약과 십계명의 재적용	〈28제〉	… 390
제 6 장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고	〈13제〉	… 398
제 7 장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21제〉	… 403
제 8 장 축복과 저주의 선고	〈13제〉	… 410
제 9 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과거의 실패를 회상시킴	〈22제〉	… 415
제 10 장 십계명이 기록된 새 돌판과 여호와의 권고	〈18제〉	… 422
제 11 장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	〈20제〉	… 428
제 12 장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규례들	〈19제〉	… 435
제 13 장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라	〈14제〉	… 442
제 14 장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21제〉	… 447
제 15 장 안식년에 대한 규례	〈19제〉	… 453
제 16 장 3대 절기를 지키라	〈20제〉	… 459
제 17 장 재판 및 왕에 관한 규례	〈18제〉	… 466
제 18 장 미래의 선지자에 대한 예언	〈15제〉	… 473

제 19 장	도피성 제도와 재판의 규제	〈14제〉	… 479
제 20 장	전쟁에 대한 규제	〈15제〉	… 484
제 21 장	사회적인 여러 법도와 규제	〈16제〉	… 490
제 22 장	사회 생활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규제	〈18제〉	… 496
제 23 장	여호와와 총회와 일반 사회 규제	〈19제〉	… 502
제 24 장	약자(弱者)를 위한 규제	〈16제〉	… 509
제 25 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규제들	〈14제〉	… 515
제 26 장	첫 열매와 십일조에 관한 규제	〈13제〉	… 520
제 27 장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에서 선포될 규제	〈16제〉	… 525
제 28 장	축복과 저주	〈20제〉	… 531
제 29 장	언약의 회상과 율법 순종에 대한 요구	〈15제〉	… 539
제 30 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권고	〈14제〉	… 545
제 31 장	모세의 마지막 명령과 예언	〈13제〉	… 550
제 32 장	백성을 향한 모세의 애가(哀歌)	〈22제〉	… 555
제 33 장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20제〉	… 563
제 34 장	모세의 죽음	〈12제〉	… 569

신명기 특별 자료 차례

신명기 서론 〈연구 자료〉	오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358
제 1 장 〈지도 자료〉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366
제 3 장 〈연구 자료〉	성문	379

제 4 장	〈화보 자료〉	바알 신상(神像)과 아세라 신상	389
제 6 장	〈화보 자료〉	미간(眉間)에 성구함을 맨 유대인	402
제 8 장	〈본장의 요절〉	414
제 9 장	〈본장의 요절〉	421
제 10 장	〈본장의 요절〉	427
제 11 장	〈화보 자료〉	율법 상자를 팔에 맨 유대인	434
제 12 장	〈화보 자료〉	가나안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산당(山堂)	441
제 14 장	〈본장의 요절〉	452
제 15 장	〈본장의 요절〉	458
제 16 장	〈화보 자료〉	유월절 식사	465
제 17 장	〈화보 자료〉	화강암에 새겨진 함무라비 왕과 설형 문자	472
제 18 장	〈연구 자료〉	절기	478
제 20 장	〈연구 자료〉	약혼의 의의	489
제 21 장	〈본장의 요절〉	495
제 22 장	〈연구 자료〉	결혼 지참금	501
제 23 장	〈화보 자료〉	사막의 진(陣)	508
제 24 장	〈본장의 요절〉	514
제 25 장	〈본장의 요절〉	519
제 26 장	〈화보 자료〉	검은 옷을 입은 과부(寡婦)	524
제 27 장	〈연구 자료〉	저주의 실재성	530
제 29 장	〈화보 자료〉	물길는 여인들	544
제 31 장	〈본장의 요절〉	554
제 32 장	〈화보 자료〉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 두루마리	562
제 33 장	〈본장의 요절〉	568
제 34 장	〈연구 자료〉	신명기적 언약과 역사관	573

신명기 서론

1. ㉠ 본서의 명칭인 '신명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테바림>으로 그 뜻은 '말씀들'이다.
(2) 그러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LXX)과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Vulgate) 역은 본서의 명칭을 <듀테로노미온>으로 붙이고 있다.
(3) <듀테로노미온>이란 말은 17:18에 나오는 '이 율법을 등사하여'라는 귀절을 잘못 이해하여 붙여진 명칭으로 그 뜻은 '이 두번째 율법', '율법의 반복'이다.
(4) 물론 본서에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이 반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5) 그러므로 <듀테로노미온>이란 명칭보다는 오히려 <테바림>이라는 명칭이 본서의 제목으로 더욱 바람직하다.
(6) 개역 성경의 '신명기' (Deuteronomy)라는 명칭은 이 70인역과 벌게이트 역의 명칭을 의역(意譯)한 것이다.

2.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자는 모세이다.
(2) 모세는 본서 31:9, 24에서 이 율법(말씀)을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들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다.
(3) 일부 고등 비평가들은 본서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점을 들어서 본서의 저자가 모세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4) 그러나 이 부분은 후대의 인물이 기록하여 부가한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하여 본서 전체가 모세의 저작(著作)이라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참조, ㉠ 10).
(5)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하여서는 제1권 '성경에 대하여'의 ㉠ 12, 13, 14를 참조하라.

3. ㉢ 신명기 34장의 저자 문제에 대하여 말하라.

- ㉢ (1)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받은 기사(記事)가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모세가 직접 쓸 수는 없다.
(3) 그러나 히브리 문학의 일반적 특징 가운데 어떤 사람의 작품 마지막에 그 사람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후대 사람이 첨가하는 관례가 있었다.
(4)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을 그의 작품인 신명기에 부가(附加)했을 것으로 본다.
(5) 따라서 34장의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 때문에 신명기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

4. ㉣ 본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에는 B. C. 1446년부터 시작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B. C. 1406년에 끝마친 광야 여행 전반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 있다.
(2) 그러므로 본서는 적어도 B. C. 1446년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본서의 저자인 모세가 죽은 B. C. 1406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3) 대부분의 학자들은 B. C. 1406년경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본다.

5.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모세 오경의 부수적인 책으로 취급되기 쉬우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본서에는 본서만이 갖는 독특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2)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으며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발전시켰는가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후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나가기를 부탁하고 있다.
- (3) 이러한 분명한 의도 아래서 지나간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제정된 율법을 상기시키며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길만이 축복받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6.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라.

- ㉠** (1)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진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설교(강론)로 구성되어 있다.
- (2) 즉 출애굽 제 2년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규례들이 출애굽 제 40년 말경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다(5:5).
- (3)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새 세대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 (4) 결국 은혜를 저버리고 반역한 출애굽 당시의 구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모세 자신의 죽음도 가까워졌을 때 그는 새 세대를 위하여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다.
- (5) 이러한 모세의 행위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맹세토록 하는 행위였다.

7. **㉠** 본서의 일반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 ㉠** (1) 신명기는 철저하게 역사만을 다룬 책도 아니며 또한 율법만을 취급한 책도 아니다.
- (2) 본서는 역사적 사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율법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 (3) 본래 이 책은 권고, 즉 설교로 엮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율법의 가르침을 새롭게 깨닫도록 해준다.

8. **㉠** 본서의 내용을 간략히 구분하라.

- ㉠** (1)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행한 3개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 (2) 첫번째 설교는 지나간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었다(1:1-4:43).
- (3) 두번째 설교는 4:44-26:19에 걸쳐 계속되며 이곳에서는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일반 사회적 규례, 도덕적인 율법, 우상 숭배의 금지 등을 차체히 말하고 있다.
- (4) 세번째 설교에는 율법에 관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축복과 생명을 유지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모세의 유언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5) 이러한 모세의 3편의 설교는 다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과 행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소개된다.
- (6) 마지막으로 본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과 그의 죽음 및 장사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9. **㉠** 본서와 신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 (1) 신명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였던 구약 성경 중의 하나이다.
- (2) 특히 신약 성경 27권 중 17권에는 신명기의 내용이 80회 이상 인용되어 있다(마4:4,

10;막10:4).

10. ㉠ 본서에 나타나 있는 주요 사상이 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하나님의 섭리가 공휼과 자비로 나타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는 백성들의 가련한 모습이 잘 대조되어 나타난다.
- (2)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영적 이스라엘인이 된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된다.
- (3)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 (4)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로 성막이 지정된 것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것에 대한 예표이다.
- (5)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다.
- (6) 신명기의 언약 갱신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즉 '복음'의 선포로 이루어진다.

11. ㉠ 본서에 나타난 중요한 낱말은 무엇인가?

- ㉠ (1) 십계명(5:6-21), 쉼(6:4-9, 이스라엘이여 '들으라'의 뜻), 거짓 선지자(13:1-5), 거짓 예언자(18:9-15), 가나안의 언약(29:1-30:20) 등이다.
- (2) 이러한 낱말들은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12.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머리말 / 1:1-5
- (2) 모세의 첫번째 설교 - 광야 생활 40년 역사의 요약 / 1:6-4:43
 - ① 시내 광야에서 / 1:6-18
 - ② 가데스 바네아에서 / 1:19-46
 - ③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 2:1-3:29
 - ④ 모압에서의 이스라엘 / 4:1-43
- (3) 모세의 두번째 설교 -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의 대략(大略) / 4:44-26:19
 - ① 여호와를 섬기는 법 / 4:44-12:32
 - ② 거짓 선지자에 관한 법 / 13:1-18
 - ③ 음식에 관한 법 / 14:1-21
 - ④ 십일조에 관한 법 / 14:22-29
 - ⑤ 안식년에 관한 법 / 15:1-23
 - ⑥ 절기에 관한 법 / 16:1-17
 - ⑦ 지도자들에 관한 법 / 16:18-18:22
 - ⑧ 사회 생활에 관한 법 / 19:1-26:19
- (4) 모세의 세번째 설교 -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 / 27:1-30:20
 - ① 준비 예식 / 27:1-26
 - ② 축복의 약속 / 28:1-14
 - ③ 저주의 경고 / 28:15-68
 - ④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 29:1-30:20
- (5) 끝맺는 말 / 31:1-34:12
 - ① 모세가 받은 지시 / 31:1-29
 - ② 모세의 노래 / 31:30-32:47

③ 모세의 축복 / 32:48-33:29

④ 모세의 죽음 / 34:1-12

13.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1)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6:4, 5).

연구자료

오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예	언	내	용	성	취
창 3:15.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갈 4:4.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 18:18.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아 니나(창 12:3).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		행 3:25. ...아브라함에게 이르 시기를...모든 족속이 너를 인 하여 복을 받으리라(마 1:1; 눅 3:34).	
창 17:19.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그의 후손에게 영원 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 약속된 자녀		마 1: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민 24:17.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흄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창 28:14)		야곱에게 약속된 자손		눅 3:34.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창 49:10. 흄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유다 지파의 후손		눅 3:33.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신 18:15.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선 지 자		요 6:14.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요 1:45; 행 3:19-26).	

제1장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회고(回顧)

단락구분 1-5 출애굽 제 40년말에 행한 모세의 설교 / 6-8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 9-18 행정 기구의 조직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회고 / 19-33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 34-36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구세대의 가나안 입국 금지

1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 호렘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3 제 사십 년 십일 월 그 달 초일 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4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죽인 후라

5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암 땅에서 이 율법 설 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렘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7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하였나니

8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라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9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10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1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 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12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름을 담당할 수 있으랴

13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에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14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15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패장을 삼고

16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권을 일반적으로 들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18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렘 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르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보케 하자 하기에

23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지파에 한 사람씩 열 둘을 택하매

24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25 그 땅의 과실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

였느니라

26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을 거역하여

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34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8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41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43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명을 거역하고 천차히 산지로 올라가매

44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45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으나 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1. ㉠ 본장의 내용과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출애굽 제 40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3편의 설교 중 첫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이다.
- (2)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언급하고 있다(26-32절).
- (3) 이는 지난날의 잘못을 되새겨 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과거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각종 은혜와 사랑으로써 그들을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8:4, 16).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함으로써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와 같은 모든 잘못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다.
- (6)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할 때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다.
- (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즉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救援)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을 바라고 계신다(합 3:17; 살전 5:18).

2. ㉠ 본문 초두에 나타나고 있는 장소들은 어떤 곳인가? (1, 2절)

- ㉠ (1) 이곳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5절), 즉 '모압 평지' (민 36:13)에 이르기까지 중도에서 거쳐갔던 장소이다.
- (2) 습 맞은편: '습'은 홍해를 가리키는 말인 (얌 습)의 줄임 말이다. 그러므로 '습 맞은 편'은 홍해 건너편의 평지를 가리킨다(KJV).
- (3) 아라바 광야: 본래는 요단 강 상류(헤르몬 산)로부터 아카바 만까지 이르는 일대 전부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남단 지대를 뜻한다.
- (4) 바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시발점(민 12:16; 13:26)으로 시내 반도 중앙 동쪽에 있는 광야이다(왕상 11:18).
- (5) 도벨: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종착점으로 모압 평지 근방에 위치한다.
- (6) 라반, 하세룻, 디사합: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다만 시내 산 주변 지역들로 추정될 뿐이다.
- (7) 호렘 산: '시내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시내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제벨 무사>, 즉 모세의 산을 가리킨다(출 16:1).
- (8) 세일 산: 예루살렘 서쪽 14km 지점에 위치한다. 그러나 여기서 '세일 산을 지나'라는 말은 '세일 산으로 가는 길을 지나'라는 의미이다.
- (9) 가데스 바네아: 브엘세바 남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신 광야'의 오아시스이다(민 32:8). 여기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얻었으며(출 17:1-17), 고라의 반역(민 16장)과 가나안 정탐군 사건(민 32:8) 등이 일어났었다.

3. ㉠ 본서의 저자가 호렘 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 ㉠ 유는 무엇인가? (2절)

- (1) 호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약 270km이다.
- (2) 따라서 11일 동안 270km를 걸었다는 것은 하루에 약 24km를 걸었다는 말이 된다.
- (3)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브엘세바 남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하였으니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앞 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속도로 행군하였다면 그들은 4일도 채 못되어 가나안 땅에 당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적인 사건(민 13:1-14:35)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 다시금 오던 길을 회정(回程)하여 광야에서 40여년의 세월을 허비하였었다.
- (4) 여기서 본서의 저자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강하게 인식시켜 주려고 거리상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롬 12:2).

4. ㉠ 모세가 모압 땅(모압 평지, 민 36:13)에서 고별 설교를 한 때는 언제인가? (3-5절)

- ㉠ (1) 출애굽 제 40년, 즉 B. C. 1406년 11월 1일이다.
- (2)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으며,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시기였다(민 31:1, 2).
- (3)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는 모세가 이달 마지막 날에 죽었다고 주장한다(참조, 34:5-7).
- (4) 또한 이때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순 후로서(민 21:21-35) 가나안 입성을 두어 달 앞두고 있는 때이다(수 4:19).
- (5) 이러한 때에 모세는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이라는 민족적 대과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종이고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참된 사랑과 진리를 수호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된다.

5. **㉠** 이처럼 본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시기 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3-5절)

- ㉠** (1) 이는 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익명 미상의 저자가 지어낸 허탄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인물이 기록한 역사적이며 사실적인 내용임을 반증하기 위함이다.
 (2) 실제로 본서의 모든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를 책에 기록한 것이다(31:9, 24).
 (3) 이와 같은 사실은 비단 본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실제적이고도 역사적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답후 3:16).

6. **㉠** 모세가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였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4절)

- ㉠** (1) 바산(Bashan)의 수도는 '에드레이'와 '아스다롯' 2곳이었다(참조, 13:12).
 (2) 그러므로 혹자는 이 귀절을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 사이에 거하고 있던 바산 왕 옥을 쳐죽였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그러나 민 21:33에 의거해 볼 때 이 말은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장소가 바로 '에드레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4)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에서는 그 어떠한 적대 세력도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사 50:8).

7. **㉠**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이 말은 새로운 율법을 반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풀이하고 이해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촉구했다는 뜻이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 규범을 말한 것이다.
 (3)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 구속을 얻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풀이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4) 이러한 일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되고, 더 나아가 신앙의 성숙함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요 10:10).

8. **㉠**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 산에 거하였던 기간은 얼마인가? (6절)

- ㉠** (1)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호렙 산에 도착한 때는 출애굽 첫해 제 3월이다(출 19:1, 2).
 (2) 그리고 그들이 호렙 산을 떠나서 다시금 유랑의 길로 들어선 때는 출애굽 제 2년 2월 20일이다(민 10:11).
 (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 산에 거하였던 기간은 약 1년이다.
 (4)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율법과 규례를 받았으며(참조, 출 20-23장) 성막 및 제사장 제도, 제사 의식에 관한 지시를 받았었다(참조, 출 25-30장).
 (5) 이를 계기로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호렙 산을 떠날 때에는 성막도 그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민 10:11).

9. **㉠**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나안 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6-8절)

- ㉠** (1)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하여 이곳 요단 동편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로 된 것이며,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

- (2) 즉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들이다.
- (3) 새 세대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의미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 (4) 그러므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침으로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의지를 심어 주고 있다.

10.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 (1)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며(창 15:18-21)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되었고 이제 그 약속의 실현이 눈앞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 (2)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 진행된다.
- (3)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 (4)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었고(사 7:14)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마 1:16)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행 1:11)의 성취가 남아 있다.
- (5)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맞을 견전한 삶을 힘써야 한다(마 25:1-13).
- (6)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 자체가 신앙이며 또한 이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한다(참조, 히11:6).

11. ㉠ 모세의 집(임무)을 덜어 주기 위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9-18절)

- ㉠ (1) 인구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질서 유지와 능률적인 이동을 위하여 행정적인 조직이 이루어졌다.
- (2) 즉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으로 인하여 모세 혼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효율적으로 치리(治理)할 수 없었다.
- (3) 그래서 모세는 장인(丈人)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행정 조직을 정비하게 되었다(출 18:13-27).
- (4)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질서는 단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12. ㉠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치리(治理)할 자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13절)

- ㉠ (1)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유명한 자라야 했다.
- (2)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과 또 도덕적으로 선한 자질을 의미한다.
- (3) '지식'은 인간적인 분별력과 지성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모세를 도와 백성을 치리할 자격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한다.
- (5)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자세는 오늘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지향해야 할 행동 지표이다(참조, 마 22:37-39).

13. ㉠ 행정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5절)

- ㉠ (1)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및 패장(牌長) 등으로 조직되었다.
- (2) 이러한 행정 조직은 가나안 정복과 외적의 침입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군사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3)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적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영적인 군대로 비유될 수 있다(딤후 6:12).

14. ㉠ 패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15절)

- ㉠ (1) 패장(牌長)들은 종족간의 질서를 지키고 호적부를 정리하며 서기관을 대신하여 사무를 맡은 자들이었다.

- (2) 재판은 유사(有司) 또는 감독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며(수1:10)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관리(officer)로 번역되어 있다.
15. ㉠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러므로 재판관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자제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한편 본절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받을 교훈은 서로 판단하여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마 7:1-5). 다만 잘못된 일에 대한 구분은 할 수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여 정죄할 수는 없다.
 (4) 왜냐하면 모든 일의 최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3:8).
16. ㉠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교훈은 무엇인가? (19-46절)
- ㉠ (1) 신명기가 시작되는 본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길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에서 벗어난 불순종의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백성) 광야에서 죽고 마는 비참한 역사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2) 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 주는 역사적 사건이다(고전 10:11).
 (3)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민 14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7. ㉠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 ㉠ (1)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나타낸다. 믿음 없는 정탐군들의 보고에 낙심하고 두려워한 백성들은 급기야 지도자 모세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에 이르렀다(민 14:1-8).
 (2)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을 놓고 보는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 상황은 여러 각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의 눈은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3)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인간의 세력을 더 무서워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었다.
 (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두려움 없이 기쁘게 드리는 자를 말한다(참조, 뱀전 5:2).
18. ㉠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32절)
- ㉠ (1)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여호와와 명령(21절)을 어기고 주변 족속의 세력을 두려워한, 즉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불신앙 때문이다.
 (2)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동일한 죄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롬 13:2; 딤후전 5:12).
 (3)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은 믿지 않는 죄, 즉 '불신앙'의 죄이다.
 (4)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다(마 10:40).
 (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요 3:18).
19. ㉠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35절)
- ㉠ (1) 애굽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영광(출 14:21-31)을 보고도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
 (2) 구체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가리킨다(민 14:29).
 (3) 오늘날 복음을 배척하는 이 세대(this age)는 악한 세대(evil age)이다. 이 악한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다(마 24:14).

(4)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악한 사람들은 복음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마 11:16-23).

20. ㉠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37절)

- ㉠ (1) 한 사건은 출애굽 제 2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22-24절)을 말하며, 이 사건의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 (2) 또 다른 사건은 출애굽 제 40년 정월에 역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트리바의 물 사건(민 20:1-13)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3) 당시 모세는 여호와께 대한 백성들의 불신앙과 거역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혈기를 내어 자신도 여호와 앞에서 경거 망동(輕舉妄動)하였다(민 20:11).
- (4) 결국 이 두 사건은 모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으며 이 사건들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5)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을 보상은 영적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는 진노로 나타날 것이다(참조, 요3:5).

21. ㉠ '너의 종자(從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종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38절)

- ㉠ (1)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오메드 레파네카>인데 '네 앞에서 있는 자' (who stands before you) 라는 뜻이다.
- (2)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servant)이 아니라 모세의 곁에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minister)였다.
- (3)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와 같은 종(servan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사역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의 종(minister)이다(참조, 행 4:27).

22. ㉠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였는가? (39절)

- ㉠ (1)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데는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3절).
- (2)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약 60만 이상이었다(민 2:32).
- (3)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 20세가 되지 못했던 자들 및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만이 출애굽 제 41년 정월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38, 39절).
- (4)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약 60만 가량이었다(민 26:51).

23. ㉠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자허 산지로 올라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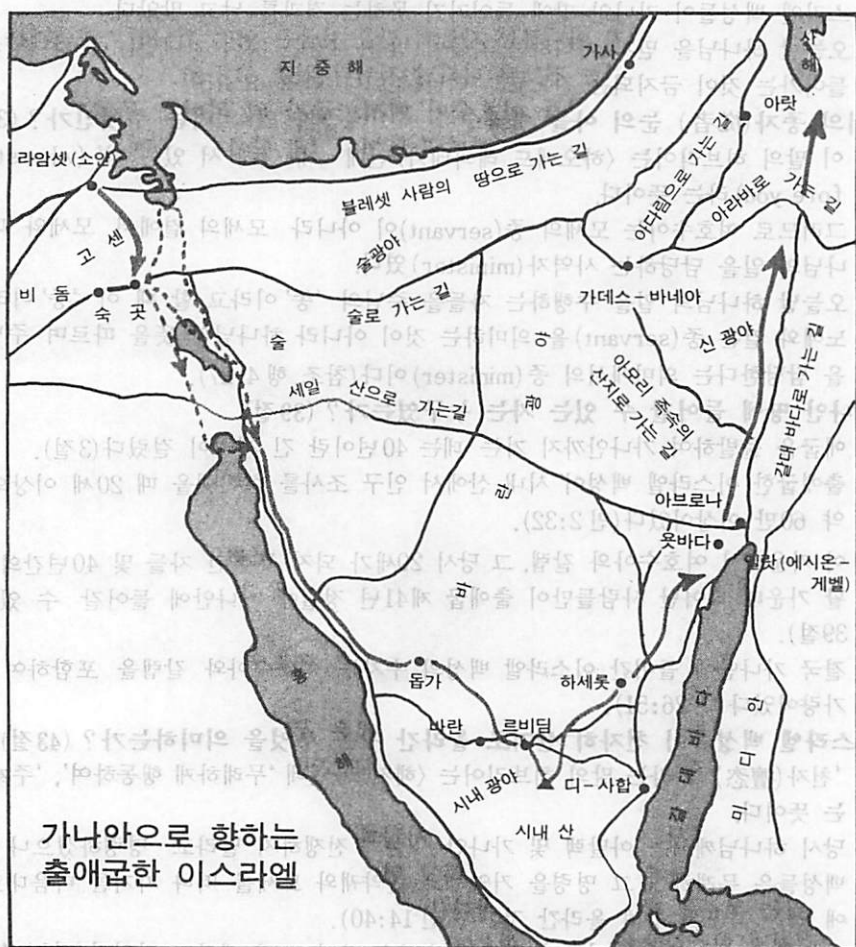
- ㉠ (1) '천자(擅恣)허'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지드>인데 '무례하게 행동하여', '주제 넘게'라는 뜻이다.
- (2)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및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례하게 그 명령을 거역하고 언약궤와 모세를 떠나 자기를 마음대로 산 위에 있는 적군을 향해 올라간 것이다(민 14:40).
- (3)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말았다(민 14:45).
- (4)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궤와 지도자 모세를 떠난 그들의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례한 행동일 뿐이었다(민 14:44).

(5)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잠 16:1; 19:21).

2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사실에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5절)

- ㉠ (1)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고집대로 그들의 길을 걸어간 자들의 때 늦은 후회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의미한 일이다(롬 2:5).
- (2)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여인들의 부르짖음은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거역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마 25장).
- (3)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핑계하거나 또다시 기회를 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눅 16:29-31).

지도자료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 2 장 전쟁에 대한 회고

단락구분 : 1-4 계속되는 모세의 회상 / 5-8 에돔과의 화평 / 9-18 모압과의 화평 / 19-23 암몬과의 화평 / 24-37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하다

1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행하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3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5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6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8 우리가 세일 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에

9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0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11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밋이라 칭하였으며

12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13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14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 팔 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느니라

15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16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17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18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19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20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었음으로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뎨이라 일컬었었으며

21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22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23 또 감돌에서 나온 감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24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는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25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26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7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29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

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30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였고 그 마음을 강박케 하였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31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혼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32 시혼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34 그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35 오직 그 옥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36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37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1. **㉠ 전장과 본장 간에는 문맥의 단락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 전장과 본장 사이에 38년이라는 긴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2) 즉 모세는 출애굽 후 지금까지(출애굽 제 40년 11월 1일)의 여행을 회고할 때에 출애굽 제 2년까지의 일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나(1장) 그 후부터 출애굽 제 40년이 될 때까지의 약 38년간의 여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특히 본장에는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몇몇 전쟁에 관한 기사와 출애굽 제 40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4)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지난날의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쓰라린 고통과 실망, 좌절은 사라지고 '가나안 정복과 입성'이라는 민족적 대과업의 성취가 눈앞에 이르게 되었다.

2. **㉠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행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여기서 '여러 날'이란 말은 단순한 몇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군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38년간을 말한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의 대가로 38년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다(1:40, 46).
 (4) 이 기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세대들이 모두 죽었다(14-16절).
 (5) 본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가 고통과 파멸과 죽음뿐임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요3:36).

3. **㉠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싸우거나 정복해서는 안 될 민족에 대해서 말하라(4-23절).**

- ㉠** (1) 에돔 족속(4-7절), 모압 족속(8-12절) 그리고 암몬 족속(18-23절) 들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 공존해야 할 이웃 민족들이었다.
 (2)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아담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며(창36장),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창19:36-38).
 (3) 이들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땅을 기업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시 취할 수 없다(5, 9, 19절).
 (4) 성도들이 받은 기업인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요10:28, 29).

4. **㉠ 에서의 자손, 즉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에돔 족속이 두려워했으며, 온 가나안 거민(居民)들이 놀랐다(출15:15).
 (2) 그러므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하였다.
 (3)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의 영토와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에돔 족속

은 결사적(決死的)인 태도로 이스라엘과 맞서 대항하려고 하였다.

(4)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마9:8; 막6:20).

(5)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다(삼하22:3; 사49:26).

5. **㉠** 이스라엘이 양식을 얻기 위한 교환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6절)

㉠ (1) '돈' 이었다.

(2) 여기서의 '돈'은 히브리어로 <케세프>인데 '은' (silver)을 가리킨다.

(3) 이처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이미 '은'을 화폐로 사용하였었다.

6. **㉠** '물을 사서 마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1) 이 말은 돈을 주고 식수(食水)나 필요한 물을 사라는 뜻은 아니다.

(2) 이스라엘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 우물을 팔 수 있는 허락을 받고 그 대가로 에돔 족속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의미이다(참조, 창26:12-22).

(3) 이것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날 때 정복자나 침략자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겸손하게 행동할 것을 가리킨다.

7. **㉠**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38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7절)

㉠ (1) 하나님께서는 거둬들이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총을 계속 베풀었고 사랑으로 보호하셨다.

(2) 그 결과로써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가축 떼를 이루었다(민32:1).

(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였던 것이다(1:33; 8:2, 3, 15, 16; 시23:1-6).

(4)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갈 때 사랑의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요13:1).

(5)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는 자세로 성도는 성실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8. **㉠** '4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말하라(7절).

㉠ (1)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는 1월 15일이며 출애굽한 그 해를 출애굽 제 1년으로 계산하였다(출12:2; 13:4; 민33:3).

(2)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때는 출애굽 제 41년 1월 10일이다(수4:19).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만 40년에서 5일이 부족한 기간이었다.

(4) 이 기간을 가나안 땅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기간으로 볼 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기간도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준비와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될 수 있다(참조, 딤펢전4:7, 8).

9. **㉠** 이스라엘이 모압 광야 길로 다시 들어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1)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통하는 길에 에돔 족속에 의하여 봉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홍해 길로 남하하여 에돔 땅을 완전히 우회하여 요단 동쪽의 모압 땅을 향해 북상했다(참조, 민21:4-13).

(2) 이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대상(隊商)들의 주요 도로였다.

(3) 즉 이 길은 소위 '에돔 광야의 길' (way of the wilderness of Edom)과 '모압 광야의 길' (way of the wilderness of Moab)이 상하로 연결된 통로이다.

10. **㉠**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보호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8-12절)

㉠ (1)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의 멸망을 피해서 나온 후 자신의 큰 딸을 통

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며(창19:36, 37)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접촉이 있었다(민25:1; 신23:3-6).

- (2)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모압 땅과 그 족속은 그리스도의 조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 (3) 즉 가나안 정착 약 300년 후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모압 여자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다(룻 1:1-4).
- (4) 이 모압 여자 '룻'이 다윗의 증조모(曾祖母)이며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마1:5, 6).
- (5) 그리스도의 탄생이 순수한 유대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과도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사45:20, 21; 눅3:6; 행2:21; 롬1:16; 고전1:24).

11. ㉠ 엠(에뎀) 사람은 어떠한 자들인가? (10, 11절)

- ㉠ (1) '에뎀'이란 말은 '놀라운', '두려운'이란 뜻이다.
- (2) 이들은 본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 중 하나인데 모압 족속에게 전멸되었다.
- (3) 이들은 거인족(르바임)으로 '아낙 자손' (민23:22)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었으므로 '에뎀' 족속으로 불리었다.
- (4) 이들에 대한 기사(記事)는 창14:5에 기록된 것 외에는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12. ㉠ 10-12절의 내용을 설명하라.

- ㉠ (1) 이 부분의 내용은 성경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다.
- (2) 본장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면 9절 다음에 곧 13절이 연결되어야 자연스럽다. 또한 10-12절의 내용도 시간적으로 본장의 내용과 맞지 않았다.
- (3) 즉 이 부분(10-12절)의 내용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자기 자신들보다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대신 그곳에 거주한 역사적 사실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업을 땅에서 행한 일을 비교하고 있다.
- (4)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일'(12b절)은 예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5)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장차 들어갈 곳이므로 이미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뜻이다.
- (6) 이처럼 성경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완료형으로 표현하여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사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언적 완료형' (prophetic perfects)이라고 한다.
- (7) 결국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원주민인 에뎀 족속과 호리 족속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거민(居民)들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하는 의미이다(수 11:23).

13. ㉠ 모든 군인이 사망한 후에 가나안의 기업이 다시 언급되는 의미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13-19절)

- ㉠ (1) 모세를 비롯하여 애굽에서 나온 구세대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미 애굽에서의 고역(苦役)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출17:8-16) 등을 겪으면서 많은 경험과 전술을 터득했다.
- (2)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에 적합한 군사적 조건을 갖춘 자들이라 할 수 있다.
- (3) 그러나 이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한 군인으로서의 자격 부족으로 드러났다.

- (4)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전투 경험이 없는 새 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셨다
- (5)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 사람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사 55:8, 9).
- (6) 사람의 보기에 올바른 길 같으나 마침내 굽고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 있으며(잠 14:12; 16:25), 어리석게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마 7:13).
- (7)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에서도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전 1:18).

14. ㉠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의 기간이 걸린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30km로서 대략 1주일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 (2) 이러한 거리를 38년 동안이나 헤매며 고난을 겪은 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었다(1:36, 37, 40).
- (3) 불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무서운 범죄 행위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다.

15. ㉠ 암몬 족속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6-23절)

- ㉠ (1) 암몬 족속은 롯이 그의 둘째 딸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며(창 19:38) 모압 족속의 북동쪽, 즉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 (2)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19절).
- (3)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조상 곧 롯에게 베푼, 궁핍에서 비롯된 것이다(창 19:29).
- (4)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삼상 15:29).
- (5)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편에 홀로 앉아만 계시거나 성경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같이 해주신다(히 4:16).

16. ㉠ 르바임은 어떤 자들인가? (20절)

- ㉠ (1) '르바임'이란 뜻은 '거인', '도깨비'이다.
- (2) 이들은 가나안, 에돔, 모압, 암몬 등지에 흩어져 살던 거인족으로 창 14:5; 15:20에 나오는 '르바 족속'과 동일한 족속이다.
- (3) 또한 이들은 '장대한 자의 아들' (삼하 21:16-22; 대상 20:4, 6, 8), '삼숨뱀' 등으로도 불리웠다.
- (4) '삼숨뱀'은 '떠들썩한 종족'이란 뜻이다.
- (5) 이들은 창 14:5에 언급된 전쟁 중에서도 살아 남았으나 후일 암몬 족속에 의해 거의 전멸당하였다.

17. ㉠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혼을 정복한 사건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24-37절)

- ㉠ (1) 헤스본 왕 시혼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였다.
- (2) 결국 헤스본 왕 시혼을 정복한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선 전초전(前哨戰)이 되었으며 이 전쟁의 소문으로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

18. ㉠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30절)

- ㉠ (1)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혼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도록 시혼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 (2)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나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당신의 거룩하신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역사(役事)이다(출7:3).
- (3)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으로 서술된 적은 없다.
- (4)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방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자의 마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다(출4:21).

19. ㉠ 시혼의 백성들이 멸망당한 사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33-35절)

- ㉠ (1) 시혼의 모든 백성들은 진멸(殄滅) 당하였다.
- (2) '진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람>은 몰살(沒殺)을 뜻한다. 즉 모든 남녀와 유아(幼兒)까지 죽임을 당하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된 피조물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사울 왕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둔 잘못으로 인하여 큰 불행을 당하였다(삼상 15:3-23).
- (5)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로써 축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30:2, 3).

20. ㉠ 본장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 ㉠ (1)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민족들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시 105:20).
- (2)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없으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해진 목적을 향해 진행되어진다(시 33:9, 10; 롬 11:36; 엡 1:10, 11; 계 4:11).
- (3)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참조, 삼상 2:6).

21. ㉠ 본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지명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세일 산(1절): '세일'은 '털 투성이'라는 뜻이다. 본래는 예루살렘 서쪽 14km 지점에 위치한 산봉우리이나(44절) 여기서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사해 남쪽, 아라바 동쪽의 산악 지대를 가리킨다(창 32:3).
- (2) 엘랏과 에시은 계벨(8절): 홍해의 아카바 만 최북단에 위치한 2개의 항구 도시로 에시은 계벨이 엘랏보다 더 서쪽에 위치해 있다.
- (3) 아르(9절): 모압의 변경 성읍으로 사해 동쪽 아르는 강 근처에 위치한다(민 21:15).
- (4) 세렛 시내(13절): 모압 광야에서 사해로 뻗어 있는 세렛 골짜기에 비가 내린 후 형성되는 '와디'(wadi, 간헐천)이다. 이 시내는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다.
- (5) 가사(23절): 예루살렘 남서쪽 80km, 지중해로부터 약 4.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 (6) 그데못 광야(26절): 아모리 족속의 옛 마을 '그데못'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아르는 강의 북쪽 상류에 위치한다.
- (7) 아로엘(36절): 아르는 강 북쪽 강변에 위치했던 아모리 족속의 성읍이다. 사해에서 동쪽으로 약 22km 떨어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아라이르'(Araayr)로 불리우고 있다.
- (8) 길르앗(36절): 본래는 요단 동쪽 지경 전체를 가리키나(수 22:9) 여기서는 압북 강 북쪽에 있는 길르앗 산을 뜻한다(창 31:21). 후일 신약 시대에는 '베레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 (9) 압북 강(37절): 오늘날의 '나알 에스 쉘카'(푸른 강)로서 요단 강의 동쪽 지류인데 그 길이가 약 96km에 달한다.

제 3 장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한 회고

단락구분 1-11 바산 왕 옥을 정복하다 / 12-20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다 / 21-22 여호수아를 격려하다 / 23-29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1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곱 은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5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6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7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8 그 때에 우리가 요단 강 이편 땅을 아르는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9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킬이라 칭하였느니라)

10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은 땅과 바산의 은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11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아홉 규빗이요 광이 네 규빗이니라)

12 그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는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은 지방 곧 은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칭하더니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은 지방을 취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15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는 골짜기까지 주었노라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압복 강까지며

17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18 그 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19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20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21 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23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시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 그 때에 우리가 벳브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도 전장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후 요단 강 도하(渡河)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회상하는 모세의 첫번째 설교(1:1-4:43)가 계속되고 있다.
 (2) 특히 본장에는 출애굽 제 40년에 일어난 사건이 중심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3) 그리고 본장에서 회상하고 있는 요단 동편 정복에 관한 내용은 민 21:21-35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4) 요단 동편을 점령한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5)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34-37절).

2. ㉠ 바산 왕 옥은 어떤 족속이며 그 당시의 형편은 어떠한가? (1-3절)

- ㉠ (1)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르바임(거인 족속)의 잔존자였다(11절).
 (2) 그의 체구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리라는 것은 그의 침상의 규모를 보아서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11절).
 (3) 그리고 그가 이끄는 나라 '바산'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이었다(4, 5절). 그 당시 명성을 떨치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였던 것이다(5절).
 (4) 즉 바산 왕 옥은 시혼의 패망을 알고서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지 않고 대항할 만큼 무모하면서도 용맹스런 자였다.
 (5) 그러나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곧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참조, 시 127:1).
 (6) 아무리 불신자가 크고 강한 여러 가지 힘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며 그때에 그들은 오직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뿐이다.

3. ㉠ 바산과 에드레이에 대해서 말하라(1-5절).

- ㉠ (1) '바산'은 요단 강 상류의 동쪽 지역을 말하는데 야르묵 강을 경계로 남쪽 길르앗 땅과 구분되고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 펼쳐 있다.
 (2) 이 땅은 넓고 비옥하며 목축지로 알맞은 고원 지대이다. 오늘날의 골란 고원이 이 지역에 포함된다(4:43).
 (3) '에드레이'는 야르묵 강 상류에 위치했던 바산 왕 옥의 왕성(王城)을 가리킨다.
 (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를 형성해 왔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4. ㉠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3절)

- ㉠ (1)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의미한다(삼상 17:47).
 (2)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산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의

지하고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 (3)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에 의해 이미 승리의 축복을 얻은 것임을 확신하는 자세이다(고전 15:57, 58).
- (4) 오늘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사실을 모르고 무기와 군대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시 34:16, 20).
- (5)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시 127:1).

5.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때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어린아이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죽인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위일 것이다.
- (2)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은 일반적인 침략 전쟁이나 약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聖戰)'이었다.
- (3) 이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등의 각종 죄악으로 부패한 족속들이었다(7:2-5, 25).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의 성지화를 위하여 모든 죄악의 근본 뿌리까지도 진멸시키라고 명하셨다(7:24).
- (5) 심지어 이러한 명령은 어린아이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적용되고 있음을 삼상 15:3은 보여 주고 있다.
- (6) 여기서 우리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계 20장).
- (7) 그날에는 인간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각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응분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계 20:12-15).

6. **㉠** 헤르몬 산은 어떤 곳인가? (9절)

- ㉠** (1) '헤르몬'이란 뜻은 '거룩한 산', '높은 봉우리'이다.
- (2) '헤르몬 산'은 팔레스틴 북방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 남단의 최고봉으로서 그 높이는 약 2,850m이다.
- (3) 이곳은 1년 내내 눈으로 덮혀 있는데 이 눈이 녹아서 생긴 물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주요 수원(水源)을 이루고 있다.
- (4) 히브리인들은 이 산을 '시온 산' (4:48)으로 그리고 아모리인과 시돈인들은 '스닐' (겔 27:5), '시론' (시 29:6)으로 불렀다.
- (5) 오늘날에 이 산은 '야벨 에스-셰이크' (Jabel esh-Sheikh, 주봉) 또는 '야벨 옛 들료' (Jabel eth Thelij, 눈 산)로 불리우고 있다.

7. **㉠** 바산 왕 옥의 침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의 철(鐵) 침상은 길이가 약 4.1m, 넓이가 약 1.8m이었다.
- (2) 이로 미루어 보아 옥은 거대한 체구를 지닌 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 (3) 그러나 이 침상이 꼭 그의 체구에 맞추어서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 (4) 왜냐하면 고대의 제왕들은 종종 철이나 동, 각종 보석들로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의자나 침상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과시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 (5) 이러한 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인도 원정(遠征)시에 길이와 넓이가 각각 2.3m나 되는 소파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그곳 원주민들에게 자신과 그의 군대의 위엄을 과시하였다.
- (6) 그러나 이와 같이 장대한 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패

망하고 말았다(3절).

- (7)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 주는 한 예이다.
- (8)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건장한 신체를 포함한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러한 재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참조, 사 43:7; 고전 6:20).
- (9)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내 스스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전 15:10).

8. **㉠** 요단 동편의 땅은 어느 지파에게 분배되었는가? (12-20절)

- ㉠** (1) 르우벤, 갓, 므낫세 반(半) 지파가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였다.
- (2) 본래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의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 지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민 32:6, 15).
- (3)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는 그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이 될 것을 약속받고 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하겠다고 약속하였다(민 32:16-42).
- (4) 만약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비옥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면 그들은 수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가나안 정복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 (5)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두 지파 반의 분리로 인하여 힘이 약화되며 그 결과로 가나안 정복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 (6) 그러므로 이러한 분리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모세는 그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 살 것을 허락하였다(12절).
- (7)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를 통한 화목과 연합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일된 하나의 영적 공동체이다(롬 14:17).
- (8)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심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엡 2:21, 22).

9. **㉠** 요단 동편의 땅은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12-17절)

- ㉠** (1)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압복 강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땅이 할당되었다(민 32:33-38).
- (2) 므낫세 반(半) 지파에게는 압복 강 이북의 길르앗 북부 지방과 바산 땅이 할당되었다(민 32:39-42).

10. **㉠**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누구인가? (14절)

- ㉠** (1) 야일은 므낫세의 아들이 아니라 므낫세의 후손이다.
- (2) 본래 야일은 혈통적으로는 므낫세 지파라기 보다는 유다 지파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의 5대 자손이기 때문이다(대상 2:22).
- (3) 그러나 그의 할머니가 므낫세의 손녀로서 유다의 손자 헤스론의 첩이 되어 야일의 아버지인 스굽을 낳았는데 그 이후 스굽은 므낫세 지파 중에 생활하였다(대상 2:3-24).
- (4) 여기서 야일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므낫세 지파로 간주되었다.

11. **㉠** 그술 족속에 대해서 설명하라(14절).

- ㉠** (1) '그술'은 '다리' (나루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족속인데 헤르몬 산 남쪽에 있던 작은 나라로 요단 강 상류의 어떤 다리(나루터)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수 12:5).
- (2) 이 족속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으나 후에 다시 독립하여 나라를 이루었다.
- (3) 다윗은 이 그술 족속의 왕 달매의 딸과 결혼하여 암살롬을 낳았다. 또 암살롬은 그 이복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外家)인 이곳에 피신하기도 했었다(삼하 3:3; 13:37, 38; 14:23, 32; 15:8).

(4) 야일은 이 그슬 족속을 점령하였으나 그 거민들을 축출하지 않고 그 땅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다.

12. ㉠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半)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의 선봉(先鋒)이 되도록 한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18-22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다(민 32:33).
 (2) 이처럼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솔선 수범하여 다른 지파들이 차지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이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에 일체감을 불러일으키는 큰 힘이 되었다.
 (3)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 얻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영적 구원과 성장을 위해 앞장서서 도와 주어야 한다(벧전 5:2).
 (4) 또한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를 각각 돌아보고 도와 주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빌 2:4).

13. ㉠ 모세가 가나안 정복에 관련하여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여할 수 없으며,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서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다(23-28절).
 (2) 이때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담대할 것을 부탁하였다.
 (3)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오직 여호와께서 싸워 주실 것이므로 지도자로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4)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참조, 마 28:20).

14. ㉠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하였는가? (23-29절)

- ㉠ (1) 모세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였다(25절).
 (2)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이곳 가나안 근처까지 인도한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였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다(27절).
 (4) 이처럼 인간에게는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참조, 눅 22:42; 행 18:21; 약 4:15).
 (5)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잠 19:21).
 (6) 그리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에 이르는 것도 있다(잠 16:25).

15. ㉠ 모세의 간구(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천지간의 다른 신들과 비교하고 있는 귀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4절)

- ㉠ (1) 이는 모세가 '다신론 사상', 즉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2) '천지간에 무슨 신이...'와 같은 귀절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학적 표현 양식일 뿐이다.
 (3)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잠신들로서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4) 이들은 본래 천사로서 지음을 받았으나 후일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다(사 14:12-14).
 (5) 그러나 이들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예속되어 있으며, 최후의 심판 때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요 1:6-12; 계 20장).

(6)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고 섬기며 의지할 분은 오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삼상 7:3).

16. ㉠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하셨는가? (26절)

- ㉠ (1)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또한 '네 눈으로 그 땅(가나안)을 보지만 하라'고 말씀하셨다(27절).
- (2) 여호와와의 이 두 가지 대답은 모세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 즉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3)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질병), 즉 사단의 사자가 떠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3번이나) '내 은혜가 네게 족(足)하도다'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후 12:7-10).
- (4)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만족한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5) 단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나 욕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벧후 1:4).
- (6)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또한 그를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성도들은 단지 감사할 의무와 조건만이 있을 뿐이다(요 3:16).

17. ㉠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비스가 산은 어떤 곳인가? (27절)

- ㉠ (1) '비스가 산' (Mount Pisgah)은 '아바림 산맥' (Abarim Mountains)의 북쪽에 위치한 봉우리이다(민 27:12).
- (2) 이는 여리고 맞은편의 사해 북동쪽 언덕에 솟아 있다(신 34:1).
- (3) 혹자는 '비스가 산'이 '느보 산' (Mount Nebo)이라고 주장하나 '느보 산'은 '비스가 산'에서 서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신 34:1).
- (4)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았으니 그는 참으로 무한한 감회와 감동을 맛보았을 것이다. 이곳은 요단 강과 서부 가나안 지역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헤르몬 산' (Mount Hermon)까지도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다(신 34:1-4).
- (5) 이처럼 우리도 믿음의 정상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더 나은 본향,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자(히 11:16; 계 21:1-7; 22:1-5).

18. ㉠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때는 언제인가? (28절)

- ㉠ (1) 모압 평지에서 새 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이다(민 26:1-65).
- (2)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前哨戰)으로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멸한 후이다(2, 3장).
- (3) 모세가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본 후이다(27절).
- (4) 모세의 죽음이 임박한 때, 즉 B. C. 1406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도록 지시하셨다(민 27:19, 20).
- (5) 이에 모세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를 자기의 뒤를 잇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웠다(34:9; 민 27:22, 23).

19. ㉠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8절)

- ㉠ (1) 우선 모세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가시밭 길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도록 한 자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 자로 비유될 수 있다(참조, 고전 4:6).
- (2) 그리고 가나안 입국(入國)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눈앞에 두고 아직 그 일을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는 정력과, 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넘겨 주는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상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안겨 준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사명을 맡겨 주시지 않는다(참조, 고전 12:12-31).
- (4) 모세가 자신의 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후계자에게 인계하고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준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장면이다(21, 22절).
- (5)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다같이 부름 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스스로 겸손의 띠를 매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한다(빌 2:3).

20. ㉠ 뱀브을 맞은편 끝짜기는 어떤 곳인가? (29절)

- ㉠ (1)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장소이며 또한 그가 죽은 후 장사된 곳이다(34:6).
- (2) '뱀브을'은 '브을의 집'이란 말로서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인 '바알 브을'의 산당이 있던 모압 평지의 성읍이다(4:3; 민 22:1; 25:1-9).
- (3) 그러나 뱀브을 성읍은 후일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수 13:20).
- (4) 이곳은 오늘날의 '키르벳 에쉬-셰이크-야일'(Khirbet esh-Sheikh-Jayil)인데 '리비아스' 동쪽 약 9km 지점에 위치한다.

연구자료

성문.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틴에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에 성곽을 쌓았었다. 훗날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 당시 성읍에 거하는 자들 대부분은 성 밖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날마다 성문을 출입하였다. 사람들은 성문 곁에 있는 광장에서 친구를 만나 서로 소식을 주고 받았다(창 19:1; 느 8:1). 또한 성문은 그 성읍의 관청 지구(地區)로서의 역할도 했으니 성읍의 장로들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집행하였으며(21:19) 왕들도 그러하였다(삼하 19:8). 성문은 이러한 기능 외에도 상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할 때 성문에서 흥정하였던 것(창 23:10, 18)을 들 수 있다. 아브라함 이후에는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줄곧 성문이 그 성읍의 시장터가 되곤 하였다(왕상 7:1). 욥 29장에서의 욥이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7절)는 말은 이러한 상거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한편 성문은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가장 취약한 곳이었으므로 주위에 망대나 탑을 쌓았다(대하 14:7; 26:9). 성벽에는 보통 안팎으로 각각 성문이 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문지기가 거처하는 방도 하나씩 달려 있었고 때로는 성문 위에 방이 달려 있기도 했다(참조, 삼하 18:24, 33).

제 4 장 신정 국가의 초석(礎石)인 율법을 지키라

단락구분 1-8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시다 / 9-20 율법을 받은 호렘 산의 사건을 회상하는 모세 / 21-31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하다 / 32-40 제1차 설교의 결론과 마지막 권고 / 41-43 요단 동편에 세 도피성을 지정하다 / 44-49 제2차 설교의 서언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 여호와께서 바알브음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 하였거니와 바알브음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서 진멸하셨으니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 내가 호렘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의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11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라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여호와께서 호렘 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17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18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9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20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식물 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22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 하니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

지 조각하지 말라

24 네 하나님 여호와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25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6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흠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9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30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중하리니

31 네 하나님 여호와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32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6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

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37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시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39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이지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41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42 이는 과거에 원형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 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전케 하기 위함이라

43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45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46 요단 동편 벳브을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48 그 얻은 땅은 아르는 골짜기 거의 아로엘

에서부터 시온 산 골 헤르몬 산까지요

49 요단 이편 골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1. ㉠ 본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1-8절)

㉡ (1) 본장은 모세가 행한 3편의 설교 중 첫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다.

(2)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음을 섬기다가 한꺼번에 24,000명이 죽은 사건으로부터 최근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3절)까지 예로 들어가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를 준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모세는 그의 두번째 설교를 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 (5) 이는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25-40절).

2. **㉠**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 (1) '규례'는 히브리어로 <후카>로서 세부적으로 규정된 율법을 가리키는데 주로 도덕법, 의식법(儀式法), 사회법, 시민법 등을 의미한다.
- (2) 그리고 '법도'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 규례로부터 파생된 공적,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 (3) 또한 법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율법이다.
- (4) 그러므로 '법도'는 법정적(法廷的)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 (5) 하지만 '규례'와 '법도'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왕상8:58; 시119편).
- (6) 즉 '규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후카>는 법도, 율례, 법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법도'를 가리키는 말인 <미쉬파트>도 역시 규례, 율법, 율례 등으로 번역되었다(참조, 레3:17; 5:10; 18:4; 신6:2; 수24:25; 삼상30:25; 왕상6:12 등).
- (7) 한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규례와 법도'는 어머니와 갓난아이 사이의 젖줄과 같은 것이다.
- (8) 이처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죽음을 결정 짓는 요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지만 이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2:17).
- (9)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지만 거역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나타난다(요3:17, 18).

3. **㉠**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1절)

- ㉠** (1) '준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하여 '듣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 (2) 하나님의 율법은 백성들에게 지식으로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율법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롬2:17, 18).
- (3)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축복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롬2:13).
- (4)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요구(율법)에 대한 응답 곧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삼상15:22).
- (5)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에 무지(無知)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마23:3, 23, 25).
- (6) 또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약4:17)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적, 도덕적 '선'(good)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롬12:2).
- (7) 그런데 성도들이나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처회는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마23:3, 4). 이런 자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자들로서 이 세상 종말에는 결국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마7:22-24).

(8) 그러므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마 7:21).

4. **㉠ 여호와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 백성이 삶을 누리는 축복 곧 생명을 얻는 축복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
- (2) 이것은 말씀(복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의미한다(요5:24).
- (3) 이처럼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롬4:17-22).
- (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 봉사나 구제 행위 등과 같은 그 어떠한 선행도 무익한 것이 되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엡6:6).

5. **㉠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킬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2절)**

- ㉠** (1) 여호와와의 말씀을 가감(加減)해서는 안 된다(계 22:18, 19).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며 또한 그분의 전지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삼하22:31; 시18:30; 19:7).
- (3)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또는 그 말씀의 내용을 축소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며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잠30:6).
- (4)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시며 인간의 삶의 완전한 주관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판단되거나 인간의 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분이시다(참조, 뵤전 1:17).
- (5)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 (6)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로서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다(잠30:6; 전3:14; 계22:18, 19).
- (7) 하지만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점 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마5:18).

6. **㉠ 바알브올의 일이란 어떠한 사건이었는가? (3절)**

- ㉠** (1) '바알브올'은 본래 모압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본서 3장 **㉠** 20을 참조하라.
- (2)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며 바알브올에게 절을 하였다(민25:1-3).
- (3) '바알브올의 일'이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다.
- (4)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준행치 않음으로 멸망당한 최근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 (5)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백성에게 회상시키면서 여호와와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를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이니 결국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마 7:26, 27).

7. **㉠ 바알브올의 사건 가운데서 생존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4절)**

- ㉠** (1)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아니한 자들이다.
- (2) 여기서 '붙어 있다'란 히브리어로 <다마크>인데 그 뜻은 '매달리다', '집착하다'이다.

(3) 어린이가 부모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나타내듯이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의미는 그분과의 가장 긴밀한 교제와 친교를 나타낸다(시71:5; 사51:5; 암3:3).

(4)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켜 헌신적으로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은 모두 생존하여 후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1:36).

(5) 결국 환난과 핍박,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롬8:24, 25).

8. **㉠**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참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6절)

㉠ (1) 여호와와의 말씀을 지키며 이를 행하는 것이다.

(2)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다(잠1:7; 9:10).

(3) 또한 시편에서도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19:7)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19:8)고 가르치고 있다.

(4)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말을 듣고서 이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동일한 교훈을 하셨다(마7:24, 25).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지혜와 지식은 능히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니 이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전 1:21, 27).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다더 미련한 자로서 결국에 가서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마 7:26, 27; 눅 12:47).

9. **㉠** 모세가 호렘 산에서 율법을 받던 상황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9-14절)

㉠ (1) 모세가 율법을 받던 당시의 상황과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를 마음에 새겨 준수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2) 또한 모세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에 대해 신적(神的)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3) 이처럼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이며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신 6:2-9).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준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의(義)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 6:4).

10. **㉠**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9절)

㉠ (1) 마음은 의지적, 도덕적 삶의 중심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체이다(롬 10:10).

(2) 또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주체(主體)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

(3)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잠 4:23).

(4)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쉽게 악에 이끌려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이에 복종시켜야만 한다(고전 9:27).

(5) 이것이 곧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유이다.

(6)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선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며 이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이다(행 1:24).

11.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10절)

㉠ (1)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6:2; 17:19).

- (2) 이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피조물인 인간의 제일 첫째되는 의무와 제명이기도 하다(마 4:10; 막 12:30).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은혜를 내려 주신다(욘 10:12).
- (4)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구속물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제명인 것이다(롬 7:10-13).

12. ㉠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화염과 유암(幽闇)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가?(11절)

- ㉠** (1) 화염은 불꽃을 가리키는데 이는 여호와와 임재를 상징한다(출 14:24).
- (2) 하나님께서는 종종 불 가운데 나타나 인간에게 말씀하셨다(출 3:2-4; 신 4:12, 33).
- (3) 그러나 이러한 불은 자연적인 불이라기 보다는 호렘 산 가시 떨기에 붙었던 불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추정되어진다(출 3:1-3).
- (4) 그리고 유암은 히브리어로 〈호세크〉인데 ‘어두움’을 말한다. 이 〈호세크〉는 때때로 ‘혹암’으로도 번역되었다(창 1:2; 출 14:20).
- (5) 이 같은 ‘혹암’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두려울 정도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엄을 뜻하기도 하면서(출 20:18)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상징한다(요 3:19).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서 구원을 선포함과 동시에 죄악을 소멸하는 심판을 행사한다(요 1:9; 계 20:9).
- (6) 비록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사모할 수 있음은 곧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다(요 1:9).
- (7)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에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함으로써 저들도 또한 영생을 얻는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롬 10:14; 딤후 4:2).

13. ㉠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가?(12절)

- ㉠** (1)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출 33:20, 23; 요 1:18)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알 수 없다.
- (2)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말씀만을 들었을 뿐 그 형상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출 33:18-23; 민 12:8).
- (3)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요 4:24).
- (4)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하여 그의 존재와 특성과 영광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요 1:18).
- (5) 그러나 오늘날에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며 무지와 불신앙의 소산이다(요 14:8-11).

14. ㉠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12, 15절)

- ㉠** (1) 15-40절에 언급된 우상 숭배의 금지를 위한 서언(序言)이다.
- (2)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숭배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 행위이다(출 20:4).
- (3)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형상화였다(출 32:4).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감각적 존재로 취급하고 또한 감각적인 방법으로 섬기던 그들은 진멸을 당하였다(출 32:28).
- (4)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방법은 신령과 진정(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요 4:24).

15. ㉠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인들의 풍습인 동물 숭배를 금하시고 계시는가?(17, 18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애굽은 짐승, 곤충, 물고기 형상 등의 우상이 만연해 있었던 나라로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참조, 출 7-12장).

- (2)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혹은 무의식 중이라도 우상 숭배의 사상에 젖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入城)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도록 촉구하신 것이다(출 20:1-6).
- (4) 인간은 환경을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한편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존재이다(참조, 창 1:28).
- (5) 그러나 성도들은 불경건한 환경에서 벗어나 언제나 경건한 삶의 위치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딤후 6:11).

16. ㉠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에 대해 염려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19절)

- ㉠ (1)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은 해와 달, 별을 가리킨다. 특히 하늘 위의 군중이란 말 가운데서 '군중'은 히브리어로 <차바>인데 '군대', '무리', '큰 집단'을 뜻한다. 이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별들의 무리'를 의인화한 표현이다.
- (2) 이러한 것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물체이다(창 1:14-19).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다(고전 15:41).
- (3) 그런데 애굽인들은 태양과 달, 별들을 여러 신들의 상징으로 여겨 이를 숭배하였으며 가나안 족속과 셈 족속 사이에서도 점성술뿐만 아니라 별에 대한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다.
- (4) 이 같은 행위는 그 당시 범세계적이었던 풍습으로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흔히 접하였던 것이며 또한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부딪히게 될 풍습이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물들게 될 것을 염려하시며 미리 이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17. ㉠ 16-19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우상들은 대체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 ㉠ (1) 남자나 여자의 형상을 본 딴 우상으로서 이에 가나안 족속들의 '바알' (왕상 16:31)이나 '아스다롯' (삼상 12:10), 그리고 블레셋 족속의 '다곤' (사 16:23)이 있다.
- (2) 각종 짐승의 형상을 본 딴 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조한 금송아지(출 32:4)나 애굽의 '햇솔' (Hathor), '아피스' (Apis) 등이 있다.
- (3) 자연 숭배에서 비롯된 우상으로서 이에 애굽의 '레' (태양신)나 '이시스' (달신), 그리고 배화교(拜火教)의 불(火) 숭배와 같은 정령 신앙(Animism)이 포함된다.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것을 '쇠풀무'에서 건져 내신 것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쇠풀무'는 히브리어로 <쿠르 바르>인데 이는 '쇠를 녹이는 풀무'란 뜻이다.
- (2)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당한 지독한 학대와 고통을 비유한 말이다(참조, 출 1:11-14).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 (4) 이처럼 모세는 '쇠풀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극심한 만큼 비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실로 큼을 강조하고 있다.
- (5) 이와 같은 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히 13:8).

19. ㉠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한 불로 나타

나 소멸시키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다(참조, 사4:4; 시 59:13; 히 12:29).

- (2)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을 소멸시키셨다(레 10:1, 2).
- (3)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민 11:1)와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민 16:1-35)에도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그들을 소멸시켰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제거하시고 죄에 대해 벌하심으로써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사 45:21; 시 140:12).
- (5)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죄한 인간은 모두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다(롬 6:23).
-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으며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으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요 1:12).

20. ㉠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돌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현한 말이다(출 20:5).
- (2) 또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사 47:10).
- (3)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를 애정 관계로 묘사한 것이며 이를 신학 용어로 '신인동감동정론' (神人同感同情論, anthropopathism)이라고 한다.
- (4) 이처럼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남녀간의 애정 관계로 묘사한 부분이 많다(아4:8; 계 21:9).

2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어떤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가? (27절)

- ㉠ (1)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으셔서 유리 방황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이 예언의 말대로 B. C. 722년 앗시리아에 의하여 북왕국이 멸망하였고 B. C. 586년에 남왕국(유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다.
- (3)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비롯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대하 36:20).
- (4)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기까지는 약 2,500여 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니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

22. ㉠ '구하면 만나라라'는 여호와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9, 30절)

- ㉠ (1)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데 있다(요 3:17).
- (2)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져 유리 방황하게 될 때 전심 전력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대하 30:9; 느 1:9).
- (3)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합 3:2).
- (4) 이처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요 13:2).

2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여러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34절).

- ㉠ (1) 시험 :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바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이적과 기사'라는 말과 관련된다(참조, 출5:1 이하).

- (2) 이적과 기사: '이적'은 히브리어로 <모페트>인데 이는 기적적인 사건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면을 표현한 말이다. 이에 비하여 '기사'는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이는 기적에 나타난 의미와 목적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성경상에 있어서 두 단어는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이 혼용되고 있다.
- (3) 전쟁: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 가운데로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전멸시키신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출 14:14; 15:3-10).
- (4) 강한 손과 편 팔: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동적(dynamic)인 구원 행동을 표현한 말이다(참조, 출 6:6; 14:8).
- (5) 크게 두려운 일: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가리킨다(출 7-12장).

24. ㉠ 해 돋는 편이 세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1절)

- ㉠ (1) 요단 동편(트랜스 요르단)의 3도피성, 즉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을 가리킨다(43절).
- (2) 가나안 정착 후 행하여질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不知中)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게 될 때 생명을 보존받기 위한 것이었다(민 35장; 수 20장).
- (3) 이런 도피성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에 3성, 요단 동편에 3성이 있었다(민 35:14).
- (4)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구원의 제도이다(사 42:3).
- (5) 또한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구원받는 사실에 있어서 도피성은 성도들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마 11:30).

25. ㉠ 본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을 원어적 의미에서 고찰하라.

- ㉠ (1) 개역 성경에는 '우상' (偶像)으로만 번역되어 있는 말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 (2) 먼저 <아웬>은 우상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인데 '없음, 쓸데없음, 헛됨'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사 66:3).
- (3) <에마>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것은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의미한다(렘 50:38).
- (4) <엘로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이나 이 말이 우상을 가리킬 때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의 우상을 말한다(대하 25:14).
- (5) <엘리림>은 '아무것도 아닌'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는데 '아무 쓸모도 없음, 무가치한 것' 등의 뜻이 있다(레 26:1; 사 2:8; 19:1; 31:7).
- (6) <길루림>은 본래 '통나무'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상이 나무나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레 26:30; 신 29:17).
- (7) <헤벨>은 '헛되다'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텅빔' (emptiness)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8) <자나>는 '간음하다', '매춘 행위를 하다' 등의 말에서 유래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간음하는 것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9) <카마르>는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 (10) <마세카>는 '붓다', '늑이다'에서 유래한 말인데 '우상'이 금속으로 제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왕상 14:9; 사 30:22).
- (11) <미플레체트>는 '떨다', '찢다'는 이 말에서 유래했는데 두려워 떨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의 우상을 가리킨다(왕상 15:13; 대하 15:16).
- (12) 이외에도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서는 <맛차바>, <마스키트>, <네시크>, <세펠>, <아참>, <페실>, <치르>, <첼렘>, <테라핌>, <석쿠츠> 등이 있다.

- (13)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떠난 다른 대상은 우상이며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출20:3).
- (14)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거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 (15)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든 것, 즉 명예, 권력, 재물 등은 모두 우상이 된다.

화보자료

바알 신상(神像)과 아세라 신상. 바알(Baal)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변식의 신'이며 그 아내인 아세라(Asherah)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제사 형식이 매우 음탕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25절) 그들은 도리어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었으니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왕하23:26, 27).

제 5 장 새 세대에 대한 호렘 산 언약과 십계명의 재적용

단락구분 1-6 호렘 산 언약의 의미 / 7-21 모세의 십계명의 재강론(再講論) / 22-27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두려움 / 28-33 십계명 준수에 대한 모세의 강조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렘 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7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1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12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7 살인하지 말지니라
 18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19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3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아와
 24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25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6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27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0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룬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 ㉠ 본장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4:44에서 시작된 모세의 두번째 설교(4:44-26:19)의 첫 단락으로 39년 전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출 20:1-17).
- (2) 여기서 모세는 당시 받은 십계명이 가나안 입국(入國)을 앞둔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3절).
- (3) 이러한 율법의 계속적인 효력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마 5:17; 롬 3:31).
- (4) 결국 율법의 완성(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롬 3:21-24).

2. ㉠ '호렙 산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 3절)

- ㉠ (1) 약 39년 전 호렙 산(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리킨다(출 19:3).
- (2)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① 그들은 여호와의 소유가 되며 ②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③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등이었다(출 19:5, 6).
- (3) 이 언약은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출 20:1-17).
- (4) 특히 이 언약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위시한 여러 족장들과 맺은 언약(창 17:1-14)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전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일개인과 맺었던 언약으로서 이는 오직 야곱의 후손만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으나 이제 '호렙 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다.
- (5) 또한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구적인 말씀이다(사 19:16-19).

3. ㉠ 하나님의 율법(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4절)

- ㉠ (1)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롬 10:17).
- (2) 둘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깊이 연구해야 한다(엡 3:19). 성도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 진리를 지켜 나갈 수 있다(딤후 3:13-15).
- (3)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롬 2:13).
- (4)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요 또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서는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마 7:26; 약 1:23, 24).

4. ㉠ 호렙 산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였는가? (5절)

- ㉠ (1) 모세였다. 율법의 형성과 언약의 성립에 있어서 모세의 중재(仲裁) 역할은 불가피하였다(출 19:21-25).

- (2)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연기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고서는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기 때문이다(출 19:18; 20:18-21).
- (3) 한편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中保)의 손을 빌어 베풀어졌다'고 말하고 있다(갈 3:19).
- (4)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히 4:16).

5. **㉠** 율법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 10절)

- ㉠** (1)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 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6절).
- (2)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구원자(saviour) 이심을 백성들에게 밝혀 주셨다(6절).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의 삶을 율법으로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엡 2:1).
- (4)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율법)을 지키는 때 큰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율법에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 (5) 하나님께서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시 103:17).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인간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셨다(출 20:6).

6. **㉠** '나는...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이러한 호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거나 율법을 주실 때 나타난다(창 조, 창 17:1, 2; 출 3:6; 20:1, 2).
- (2) 또한 이것은 언약의 주체자와 입법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호칭이다(왕상 8:21; 히 8:10).
- (3)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비록 그것이 두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일방적)인 피로 맺은 약정(約定)이다(O. Palmer, Robertson).
- (4)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율법으로 나타나며 인간에게는 그것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참조, 고후 2:9).

7. **㉠** 십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7-21절)

- ㉠** (1) 십계명의 근본 의미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2)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신앙)을 표현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후반부는 인간 상호간의 사랑에 대해 표현했다.
- (3) 그러나 후반부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므로 결국 십계명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 (4) 또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 된다(요일 4:8).

8. **㉠** 십계명을 구분하는 여러 학설에 대하여 말해 보라.

- ㉠** (1) 5:5 구분법 : 요세푸스(Josephus)가 제시한 학설로 1-5계명(종교적 계명), 6-10계명(도덕적 계명)으로 구분한 방법이다. 이는 4세기까지 많은 교부들에 의해 지지받았는데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따라 제 5계명을 종교적 계명으로 본 것이 그 특징이다.
- (2) 3:7 구분법 : 어거스틴(Augustine) 이후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에서 지지받은 학설이다. 이는 1-3계명(하나님에 관한 계명), 4-10계명(사회 생활에 관한 계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 4계명을 사회 생활에 관한 계명으로 본 것이 그 특징이다.
- (3) 4:6 구분법 : 오리겐(Origen)과 칼빈(Calvin)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구분법이다. 이는 1-4계명(하나님에 관한 계명), 5-10계명(인간에 관한 계명)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하신 방법과 일치한다(참조, 마22:35-40).

(4) 그 외에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1-3, 6-10계명)과 ‘...하라’는 적극적 계명(4, 5계명)으로 구분하는 학설이 있다.

9. ㉠ 십계명을 알기 쉽게 도표로 요약하라(7-21절).

㉠

들판	대 상	계명	구 분	계명 내용	특징	의미	목적
첫째 들판	하나님께 대한 경배	1	경배 대상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믿음	하나님 사랑	은전한 사랑
		2	경배 방법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경배 정신	여호와외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4	경배 시간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 들판	사람 사이의 사랑	5	경배와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	행함	이웃 사랑	
		6	이웃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7	이웃 정조 강조	간음하지 말라			
		8	이웃 재산 인정	도적질 하지 말라			
		9	이웃 명예 존중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 가정 존중	이웃을 탐내지 말라			

10. ㉠ 십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 요약할 때 어떻게 구분되는가? (7-21절)

㉠

목적	경배 구분	계명	구 분	경배 방법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께 대한 직접 경배	1	내 적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
		2		옳은 방법으로 경배할 것
		3	외 적	사적(私的)으로의 경배
		4		공적(公的)으로의 경배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 (간접 경배)	보 존 (保存)	5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통한 경배
			6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경배
			7	정조(貞操)를 통한 순결한 경배
			8	재산을 통한 주권적 경배
			9	진실을 통한 경배
			10	욕망을 조절함으로써의 경배

11. ㉠ 본장의 십계명은 출20장에 나타난 십계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7-21절)

- ㉠ (1) 처음 십계명을 받을 당시의 계명(출20장)은 율법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으나 본장의 십계명은 각 조항에 있어서 그 율법의 근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 (2)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제 4계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3) 즉 안식의 이유에 대해서 출 20장에서는 세계 창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출20:11) 본장에서는 출애굽 사건, 즉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15절).
- (4) 결국 두 부분에 나타난 제 4계명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진정한 안식의 의미, 즉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쉬는 구별된 행위’의 2가지 의미를 알려 준다.
- (5) 이것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모두 나타나 있으나 그 강조점이 약간 다른 것과 같다.

12. ㉠ 십계명 중 제 1계명의 기본적 성격과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1) 제 1계명은 참된 종교의 기초와 출발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2) 즉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의무이다(마22:37-40).

(3) 이 첫째 계명의 준수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첫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계명의 준수가 공허하게 되고 만다.

13. ⓐ 제 2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8-10절)

Ⓐ (1) 이는 고대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경고이다.

(2)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위함이다(요4:24).

(3) 한편 제 2계명은 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①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 것(8절)

②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대상도 섬기지 말 것(9절)이다.

(4)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는 곧 우상 숭배가 된다(골3:5).

14. ⓐ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손이 삼사 대까지 벌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9절)

Ⓐ (1) 그렇지 않다. 부모가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면 그 자식들은 자연히 죄악된 환경 아래 놓이게 된다.

(2) 특히 이스라엘 가정은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로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으므로 부모의 죄악된 선택은 곧 자식에게까지 직결되었다.

(3) 따라서 부모의 죄에 오염된 자손들에게 죄의 영향이 이어진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4)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은 이 땅에서 조상의 영향을 받은 후손들의 영혼이 건전하지 못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말이지 직접적으로 그 조상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녕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다(겔18:14-17).

15. ⓐ 제 3계명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11절)

Ⓐ (1)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2) '망령되이'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웨>인데 이는 '헛되이', '무익하게', '거짓되게'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3)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 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신성(神性)이 포함되어 있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호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마6:9) 한다.

(5)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전혀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시111:9;사33:5).

(6)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거짓 맹세나 저주 등에 이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당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레18:21;19:12;시29:2;잠30:9).

16. ⓐ 제 4계명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2-15절)

Ⓐ (1) 안식일의 규례는 '천지 창조'와 '구속'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참조, ⓐ9).

(2)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속(구원) 받은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히4:8-11)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다.

(3) 즉 구약에서 '안식일' 제도(창2:1-3)는 '월식'(민29:6;시81:3;사1:13), '안식년'(레

25:2, 6, 8)과 '회년' (레 25:10; 겔 46:17)을 통하여 안식의 근본 의미가 계속 반복 유지되었다.

- (4) 이 '안식'의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막 2:27, 28) 되심으로 서 성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히 4:10).
- (5)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안식(구원)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영원한 안식에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좋은 '저 안식' (히 4:11)에 들어가기로 힘써야 한다.

17. ㉠ 안식일(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먼저 6일 동안은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이 안식의 소중함과 함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딤후 4:15).
- (2) 안식일을 지키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꼭 같이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3)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사장된 사람이 자신은 주일을 지키면서 사원들은 주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그릇된 자세이다.
- (4) 마지막으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 드림으로써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요 4:23, 24).

18. ㉠ 제 5계명의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 (1)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 뿐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공경하라는 뜻이다(롬 13:7).
- (2) 이 계명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축복이 뒤따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엡 6:1, 2)이다.
- (3) 또한 이는 자녀가 부모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엡 6:1-4).
- (4) 그리고 이 계명을 확대 해석하면 부모가 자녀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하겠다.

19. ㉠ 제 6계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행위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마 16:26).
- (2) 예수님께서서는 직접적 살인 뿐만 아니라 간접적 살인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교훈하셨다(마 5:21, 22).
- (3) 즉 미워하거나 원망 등을 만한 나쁜짓을 했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일 등은 모두 살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합당치 않은 삶의 태도이다.
- (4)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을 도와 주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마 19:19).

20. ㉠ 국가 형법상의 사형이나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들은 제 6계명에 위배되지 않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재판을 통한 사형(수 20:6)이나 '성전'(聖戰) 중에 적군을 죽이는 일을 허용하셨다(수 6:16, 21).
- (2)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국가적 제도에 순복할 것을 명하셨으며 자신이 직접 이에 순복하셨다(마 22:15-21; 롬 13:1, 2).
- (3) 그러므로 합법적인 재판에 의한 사형이나 정당한 전쟁에 있어서의 적군을 죽이는 일은 제 6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4) 하지만 국토 확장이나 보복전과 같은 불순한 동기에 의한 전쟁이나 인간의 간계(奸計)가 개입된 사형은 그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 (5)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롬 15:3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

기에 앞서 먼저 적에게 화친을 종용하라고 말씀하셨다(20:10). 또한 사형 제도도 인권을 제도(啓導)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결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제도가 아니다.

21. ㉠ 제 7계명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간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아프>, <자나> 등이 있는데 이는 남녀간의 불법 성교를 뜻한다(레 20:10).
- (2)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다산(多産) 종교에 의해 성적 방종을 널리 허용하였으며 심지어 제사 의식을 통하여 이를 장려하기까지 하였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하셨으니 이 성스러운 연합체를 깨뜨리는 것은 곧 죄악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 (4)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2:22-24).
- (5)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이 계명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淫慾)까지도 정죄하셨다(마 5:27, 28).
- (6) 이와 같은 제 개념은 다시금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데, 곧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임을 성경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다(렘 3:8; 행 5:29; 고전 5:1).
- (7) 결국 이 계명은 결혼의 신성함과 성적 순결 및 영적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22. ㉠ 제 8계명의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히브리어의 <가라브>는 '훔치다'라는 의미 외에 '속이다'라는 뜻도 있다.
- (2)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가져 가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교훈적 의미도 있다(신 25:13; 잠 20:10).
- (3) 또한 자신이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림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면 이것도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고전 10:29).
- (4) 왜냐하면 이는 다른 사람이 누릴 정신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3. ㉠ 제 9계명의 의미를 말하라 (20절)

- ㉠ (1)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제 8계명과 연관을 갖는다.
- (2) 특히 재판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판결을 굽게 하거나 무고(誣告)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다(신 16:19, 20; 삼상 8:3).
- (3)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 (4) 이웃에 대한 거짓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불신앙을 나타낸다(잠 11:1).

24. ㉠ 제 10계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1절)

- ㉠ (1)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할 것을 의미한다.
- (2)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다(참조, 민 11:4, 34).
- (3) 또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다(엡 5:3-5; 골 3:5).
- (4)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보다 고귀한 사랑의 원리이다.

25. ㉠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23-27절)

- ㉠ (1) 여기서 '두령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23절).

- (2) 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27절).
- (3)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범죄한 인간들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26절).
- (4)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요 8:32; 14:6; 엡 3:12; 히 10:19-22).

26. ㉠ 그 당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공식적인 중보자는 누구인가? (28-33절)

- ㉠ (1) 모세이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려는 백성들의 요청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28절).
- (2)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중보자가 되었다(31절).
- (3)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적(神的)인 권위가 부여되었고 동시에 그가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된 것을 가리킨다.
- (4)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 (5) 또한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모든 택한 백성들은 '저(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막 9:7).

27. ㉠ 언약의 중보자(中保者)로서의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라.

- ㉠ (1)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선포하시고 교훈하신 선포자이시다(요 8:26).
- (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한 자였지만(참조, 출 32:11-14; 민 12:13; 14:13-19)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롬 8:34; 히 7:25; 요일 2:1).
- (3) 모세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려고 하였을 뿐이지만(출 32:30-32)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참조, 롬 5:6-19; 갈 3:13; 엡 2:13-18; 빌 2:6-8).
- (4) 그러므로 모세는 결국 참 중보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다(히 3:1-6).
- (5) 이처럼 모세의 중보적 사역은 불안전하고 일시적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히 9:26).

28. ㉠ 십계명은 오늘날에 지킬 필요가 없는가?

- ㉠ (1) 아니다. 십계명의 완전성과 항구성으로 볼 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 계명을 엄숙히 지켜야 한다(마 5:17; 롬 3:31).
- (2) 그러나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도달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롬 3:20; 갈 2:16).
- (3) 다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행 5:29).
- (4)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마 22:35-40).
- (5) 이처럼 사랑을 통해서 십계명은 완성되었으며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 충족되었다(마 5:17).

제 6 장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고

단락구분 1-3 복의 근원의 참 목적 / 4-9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 / 10-19 가나안 입국(入國) 이후의 배신 행위에 대한 경고 / 20-25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1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말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

의 신들을 좇지 말라

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시라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16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19 여호와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으리라

20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요 하거든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23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25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1. ㉠ 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 (1) 전장(5장)에 기록된 십계명에 뒤따르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본장에서부터 시작되어 26장까지 계속된다.

(2) 모세는 본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

- (3)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한 그 율법을 자손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칠 것 등이다(4-9절).
- (4)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본장의 주제이다(마 22:37).

2. **㉠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있어서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절)**

- ㉠** (1)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와>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계명'으로도 번역되어 있다(5:10; 출 15:26; 레 22:31).
- (2)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율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규례와 법도'는 이 '명령'에 병치(併置)되어 그것을 설명하는 세부 조항이다.
- (3) '규례'는 히브리어로 <후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적, 법적 모 든 조항을 가리킨다.
- (4) 그리고 '법도'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툼>으로서 이는 '규례'로부터 파생된 공적, 사적 인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 (5)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의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세 단어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혼용되고 있다(시 119:4, 6, 10).
- (6) '규례와 법도'에 관하여선 4장의 **㉠** 2를 참조하라.

3. **㉠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2절)**

- ㉠** (1)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은 율법을 받을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다.
- (2) 여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갈 3:29).
- (3)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지켜야 할 항구적인 규범이다.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된 성경관이다(참조, 롬 3:31).
- (5) 물론 성도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율법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에서 율법을 지킨다(마 5:16).
- (6)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 표현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롬 12:2).

4. **㉠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을 뜻하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율법을 준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17:8).
- (2)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가리키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대상 29:11).
- (3) 즉 성도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히 11:16).

5. **㉠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오직, 하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하드>인데 이는 '통일시키다'라는 동사 <아하드>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 (2) 그러므로 이 말은 '통일된 하나'를 나타내는데 곧 하나님의 유일성(唯一性)과 함께 그분의 단일성(simplicity) 및 통일성(unity)을 강조하고 있다.
- (3) 이 같은 사상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본질로서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귀절을 읽거나 암송하곤 한다(참조, 7절).

- (4) 그리고 이 말을 통하여서 모세는 그 당시 전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던 다신론(多神論)과 범신론(汎神論) 그리고 지역 신관(地域神觀)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 (5)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각종 헛된 신을 섬기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교백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진실되이 우리나라와야 할 것이다(렘 10:6; 마 4:10).

6. **㉠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여기서 '마음' (히, 레밥)은 지정의(知情意)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성품' (히, 네페쉬)은 '영혼'과 같은 말로서 생명 또는 육체적, 정신적 전인격을 의미한다.
- (3) 또한 '힘' (히, 메오드)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 및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 (4) 그러므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한다(마 22:37; 눅 10:27; 롬 12:1).
- (5)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기도 하다(참조, 4장 ㉠ 11).
- (6)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전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요 3:16).

7. **㉠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6, 7절)**

- ㉠** (1)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요일 5:3).
- (2)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한다(딤후 4:2).
- (3) 한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의 근본 의미를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약 2:26).
- (4)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표현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한다(마 5:11; 롬 8:35-39).
- (5) 또한 성도들은 영혼을 거스려 일어나는 마음속의 정욕과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훼방하는 자들과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용사들이어야 한다(롬 7:23; 딤펢전 6:12; 벧전 2:11).

8. **㉠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6-9절)**

- ㉠** (1)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6절). 이는 자신의 모든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 있는 것을 뜻한다.
- (2) 또한 자녀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7절). 이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필요성과 당연성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율법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8절). 여기서 '손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행동 지침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항상 그 말씀에 순종시키는 것을 뜻한다.
- (4) 이외에도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야 한다(9절). 이는 대문 출입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써 그 교훈이 자신의 일상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 (5)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여자적(如字的)인 뜻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귀절을 여자적으로 받아들여 율법의 중요 귀절(출 6: 4-9; 11:13-22; 13:2-10; 13:11-17)을 '경문' (phylactery)에 담아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니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다.

9. **㉠**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 부지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10-13절).
 (2)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처럼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범하며 타락할 소지가 있다(잠28:22; 렘49:4; 마6:24; 19:22).
 (4)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잠11:16; 전9:11; 미6:10).
 (5) 또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될 수 있다.

10.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조심해야 될 일을 간략하게 요약하라(10-19절).

- ㉠** (1)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성실히 섬겨야 한다(12절).
 (2) 우상 숭배에 젖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14절).
 (3)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한다(17절).
 (4)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조심해야 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24절).
 (5)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지만(마 12:28) 그들도 이 세상에서의 유희와 환난을 당한다(롬 7:24).
 (6)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도록 힘써야 한다(빌 2:12).

11. **㉠** 맛사는 어느 곳이며 '맛사에서 시험한 것'이란 무슨 일을 가리키는가? (16절)

- ㉠** (1) '맛사'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일명 '므리바' (다툼)라고도 한다(출17:7).
 (2)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거쳐간 곳으로서 그 위치는 시내산(호렙 산) 근처의 르비딤이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곳은 오늘날의 '아인 가디스' (거룩한 샘)가 있는 '가데스'로 추정되어진다(민20장).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여 그와 다투었으며 이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하였다.
 (4) '맛사에서 시험한 것'이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때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기갈을 해소시켜 주었다(출17:6).
 (5) 그러나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참조, 1:35-39).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행위에 대하여 불신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그의 신앙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일이다(참조, 마14:31).

12. **㉠**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곧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21-25절).
 (2)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엮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요8:32; 약1:25).
 (3) 이러한 율법의 근본 의미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 그들은 기쁜 마음과 신실한 태도

로 하나님의 계명을 청중하게 될 것이다(엡6:4).

- (4) 바로 여기에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 및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13. Q 오늘날 성도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를 이룰 수 있는가? (25절)

- A (1) 없다. 인간의 성품 가운데는 항상 악을 좇아 선을 거스리려는 소욕(所慾)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롬3:10;7:15-25).
- (2)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마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의 의(義)를 이루셨다(롬10:4).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신다(고후5:21; 빌3:9).
- (4) 그러나 이로 인하여 율법이 완전히 무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롬7:7)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니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롬5:2;8:28).

화보자료

미간(眉間)에 성구함을 맨 유대인. 아래의 사진은 한 유대인이 성경 구절을 적은 종이를 넣은 성구함을 이마에 맨 모습이다.



이는 8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형식주의로 흐르는 단점과 함께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장점도 있다.

제 7 장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단락구분 1-4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 5 가나안의 우상 숭배 금지 / 6-11 성별(聖別) 된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 / 12-16 계명을 지킬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 17-24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의 승리하다 / 25-26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하라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헛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붙잡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5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

느니라

11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2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리니

14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집승의 압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시라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1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율무가 되리라

17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미는

18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법을 그들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2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

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2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24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25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울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A) (1) 본장의 내용은 가나안의 입국(入國)을 눈앞에 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행한 모세의 두번째 설교(4:44-26:19)의 계속이다.
- (2) 6장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사랑하라는 제 1계명에 관한 교훈이 중점적이었다.
- (3) 그러나 본장에는 대부분 제 2계명과 관련된 교훈이 언급되고 있다.
- (4) 이것은 머지 않아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될 가나안 종교와의 혼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5) 왜냐하면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빠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 신앙(唯一信仰)에 대한 거역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 **㉠ 본장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것이 주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 ㉠ (A) (1)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전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 (2)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이를 수 호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의 모형이다(엡 6:12; 담전 6:12).
- (3)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보게 될 여러 특성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 (4) 첫째, 분리 정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곳 거민들과 혼인해서는 안 되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구별된 경건한 삶을 가리킨다(살전 4: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후 6:14)고 말씀하셨다.
- (5) 둘째, 종교적 불관용 정책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도록 명하셨다(5절). 이는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며 인간의 구원자되심을 가리킨다(행 4:12).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편향성(偏向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헛된 신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6:5).
- (6) 셋째, 멸절 정책이다. '가나안 거민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철저히 진멸시키라' (2, 16, 24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죄의 요소'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며 이를 완전히 배격하라는 명령이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릇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 5:22)고 권면하고 있다.

3. **㉠ 가나안의 7 족속은 이스라엘이 쫓아낼 만큼 힘이 약한 족속들이었는가? (1절)**

- ㉠ (A) (1) 본장에 나타나 있는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7족속은 소위 가나안의 후기 족속들이다(수 3:10).

- (2) 이들 7족속은 개인의 영웅적 힘에 의존했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 족속들인 르바, 엠, 호리, 수스, 아낙, 겐, 그리스, 갓몬 족속(창 15:19-21)과는 전혀 다른 조직적이고도 막강한 힘을 가진 족속들이었다.
- (3) 즉 이들 가나안의 후기 7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착하여 행정적인 체계 속에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다.
- (4) 특히 이들 중 헷 족속(Hittites)은 철기 문화를 형성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 (5) 또한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수자도 '많고 힘이 있는' 족속이라고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1절).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다.
- (7) 이는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이나 전술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을 지휘하시고, 또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다(수 6:2-7; 삼상 17:47).
- (8) 이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빌4:13).

4.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절)

- ㉠** (1)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신정 국가(神政國家)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다(창 17:7, 8).
- (2)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는 없다. 이는 다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검(엡 6:17)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5. **㉠** 가나안 7족속이 진멸당한 원인은 무엇인가? (2절)

- ㉠** (1) 외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곳 거민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보인다(1절).
- (2) 그러나 실상은 가나안 족속의 타락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쫓겨나는 것이다(5, 6절).
- (3)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의 계속적인 범죄는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다(10절).
- (4) 이것은 후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바벨론)에게 패하여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징벌을 받은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왕하 25:1-7).
- (5) 또한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창 3:24), 범죄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추방되어 유리 방황한 사실(호 9:17)은 주님이 오실 때 바깥 어둠에 처하여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영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마 25:30).
- (6)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롬 6:23).

6. **㉠**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자비심과 긍휼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다(참조.

시 25:6; 애 3:22).

- (2) 이는 단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10절).
- (3)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벌을 내리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인의 구원이 가능했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고후 5:21).
- (4) 한편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보편적 은혜의 강조는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 (5)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희생적 구속 사건을 생각할 때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롬 5:12; 6:23).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서로 혼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 4 절)
- ㉠** (1)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과 통혼(通婚)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호와 유일 신앙과 우상 숭배의 혼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으며 그 결과 그 여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마침내 왕실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공공연히 행하였다(왕상 11:3-8).
- (3) 결국 이러한 혼합 결혼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분열되었으며(왕상 11:26) 급기야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다(렘 52:3-16).
- (4)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전 7:12-14).
- (5)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보다는 악에 미혹되어 타락하기가 더 쉽다(창 8:21; 롬 3:10).
- (6) 그러므로 이러한 미혹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단언하면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평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고전 6:14-16).
8. **㉠** 아세라는 어떠한 우상인가? (5 절)
- ㉠** (1) '아세라' (Ashera)는 본래 두로(Tyre)의 신이었으나 후일에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되었다.
- (2) 우가릿(Ugarit) 문헌에 따르면 아세라는 가나안의 주신(主神) '엘' (E)의 아내인 것 같으나 혹자는 '엘'의 누이라고도 주장한다.
- (3) 보통 아세라는 나무에 그 상(像)을 새겼으므로 신당에 목주(木柱)를 세우면 그것은 곧 아세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왕상 14:15; 16:33; 대하 15:16; 24:18).
- (4) 이 여신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바알'(Baal)과 함께 등장하는데(삿 3:7; 왕상 16:32, 33) '바알'은 '엘'에게서 난 아들이다.
- (5) 특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세라를 섬기는 400인의 선지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왕상 18:19).
- (6) 이와 같은 아세라는 '처녀의 신'이면서도 '성교와 전쟁의 신'으로서 '아낏'(Anath)과 '아스다롯'(Ashtaroth)으로 더불어 가나안의 3대 여신으로 꼽히운다.
9. **㉠** 하나님의 성민(聖民)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 절)
- ㉠** (1) 여기서 '성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쉬>인데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이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자(성민)로 불리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가운데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이다(사 43:1).
- (3) 또한 이 말(카도쉬 : 거룩한 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적용되어 그들은 '성도'(헬, 하기오스)로 불리워졌다(마 27:52; 롬 1:7; 고전 1:2).
- (4)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이다(롬8:2).

10.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근거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A (1)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고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 (2) 오히려 그들은 연약하고 비천하며 수효가 적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는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선택된 것뿐이다(참조, 창12:1-3).
- (3)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긍휼을 입어 선택된 것을 가리키며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엡 1:5).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여야 한다(6:5; 고전 15:3).

11. C 여호와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8-11절)

- A (1)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 (2) 여호와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 (3) 여호와와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8절).
- (4) 여호와와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대에 이르도록 인애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9절; 출 20:6).
- (5)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참조, 렘 31:1). 그러므로 본래 죄인되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었다(롬 3:24).

12. C '에굽 왕 바로'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A (1) '바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오>인데 본래 '큰 집'(great house)이라는 뜻이다.
- (2) 즉 왕들은 일반적으로 큰 집(궁궐)에서 살았고, 또 이 '큰 집'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였다(예 4:13; 눅 7:25).
- (3) 이와 같이 '큰 집'을 가리키는 말인 '파라오'(바로)는 후에 '에굽 왕'을 호칭하는 말이 되었다(출 3:10).
- (4) 그러므로 '에굽 왕 바로'라는 말은 '왕'이라는 단어가 중복된 말이다.

13.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A (1) 본래 '속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인데 '끊다',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속전을 치르다' 등의 뜻이 있다.
- (2)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조건으로 몸값을 지불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그 대가로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출 12:7).
- (4) 결국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시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한다(요 1:29; 계 7:14; 13:8).

14. C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9절)

- A (1) 이 말은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는 '만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낸

다(삼상15:29).

- (2) 본래 신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처음과 나중에 항상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잠11:13; 사49:7).
- (3)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요13:1).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성도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 때 변함없는 약속(말씀)에 따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참조, 3:9; 벰전 1:22).

15. **㉠**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인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 ㉠** (1)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에 따라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가리킨다(렘9:24; 호6:6; 미7:18).
- (2) 그러므로 '인애'는 곧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후9:8; 엡1:7; 2:7).
- (3) 이러한 '인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매우 큰 사랑으로 나타난다.
- (4)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일이다(고후5:21).

16. **㉠**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악질'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의 짐승들에게 내렸던 악질(5번째 제앙)과 동일한 것인가? (15절)

- ㉠** (1) 아니다. 혹자는 이것을 출애굽 직전에 모세가 애굽에 일으킨 악질(출9:3-6)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이는 고대 애굽에서 유행하던 피부병, 음, 안질, 천연두, 흑사병 등을 가리킨다.
- (3) 특히 고대 애굽은 풍토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성행하였으므로 플리니(Pliny)와 같은 사람은 이곳을 가리켜 '모든 질병의 본산지'라고 말하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청종하면 그들을 이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5)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 곧 각종 죄에 오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다(말4:2).

1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의 기름진 축복을 약속하신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13-15절)

- ㉠** (1)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되이 지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물질적 보상을 가리킨다(신28:1-14).
- (2)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금세(今世)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 전토'를 배로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신다(막10:30).
- (3) 이는 외적인 물질적 축복을 통하여 내적인 영적 축복의 진정한 의미, 즉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요6:68).

18. **㉠**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야만 하는가?(17-24절)

- ㉠** (1) 저들을 두려워함이 없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행해야 한다(17, 18절).
- (2)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세력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서 행해

야 한다(삿 5:31;삼상 2:10).

- (3) 결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인간적인 전략이나 수효의 많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성취되었다(수 24:8, 18;삼상 17:47).
-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함 2:4;롬 1:17).

19. ㉠ 하나님께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왕벌은 어떠한 곤충인가? (20절)

- ㉠ (1)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인데 여기서는 주로 사해 주변의 사막을 포함하여 팔레스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벌'을 가리킨다.
- (2) 이들 벌집은 주로 숲이나 덤불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에 의해 그것이 파괴되면 집단적인 벌세례를 받게 된다.
- (3) 이와 같은 곤충들의 위력은 대단하여 실제적으로 전쟁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그 한 예로서 시이저(Julius Caesar)의 경우 파르티아(Parthia)에서 철수할 때 왕파리 떼와 왕모기 떼 때문에 군대의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 (4) 한편 본절 이외에도 '왕벌'이란 단어는 거의 동일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곳에서 2번이나 나오고 있다(출 23:28;수 24:12).
- (5) 여기서 우리는 천하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며 이를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권능을 다시금 보게 된다(고전 15:28;히 2:8).

20. ㉠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24절)

- ㉠ (1) 개인의 이름은 곧 자신의 인격을 지칭하는 표상이면서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다(창 29:32-30:24).
- (2) 특히 고대 국가에 있어서는 '왕'이 곧 국가였으며 왕의 이름은 그 시대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 (3) 그러므로 전쟁에 있어서 왕의 전사(戰死)는 바로 그 나라 전체의 패배를 의미하였다(참조, 삼상 31장).
- (4) 따라서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제하라는 말은 곧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라는 뜻이다.
- (5)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으로서 죄악이 가득찬 가나안 거민에 대한 징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승리를 예시하고 있다(계 20:7-15).

21. ㉠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무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이 그것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게 하므로 '우상' 그 자체를 파괴시켜 없애 버리라는 뜻이다.
- (2) 이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범죄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 (3)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는 마땅히 자신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한다(살전 5:22).
- (4) 이로써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시 1:1).

제 8 장 축복과 저주의 선고

단락구분 1-6 광야 생활의 회고와 미래에 대한 모세의 권면 / 7-10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 / 11-18 평안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 / 19-20 우상 숭배가 멸망의 지름길임을 경고

1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름지 아니하였느니라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켜 그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췌 것이라

10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도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11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13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6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20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1. ㉠ 본장의 주제와 그 주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1, 6절)는 것이다.
 (2) 이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3) 모세는 본장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예언을 대조시키며 절망과 희망, 축복과 저주를 언급하고 있다 (3, 4, 7-9절).
 (4) 결국 본장에서 모세는 과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고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

다(15-18절).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수양의 기름보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다(삼상 15:22).

2. **㉠**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모든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필요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28:1, 9, 14).

(2) 더욱 중요한 사실은 명령의 순종 여부(與否)에 따라 그들의 삶과 죽음이 좌우된다는 점이다(비교, 19절).

(3)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에 어긋난다(호 6:6).

(4)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신다(삼상 15:22).

(5)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어떤 보상이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롬 11:36; 고전 10:31).

3. **㉠**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생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2절)

㉠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단순한 저주와 징벌의 기간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2) 오히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연단과 교훈의 기간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민 14:28-35).

(3)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의 고통을 통하여 저들의 교만을 제하시고 저들의 연합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시 42:11; 롬 5:4; 벰전 1:7).

(4) 또한 이는 그와 같이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적으로 그만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잠 29:25).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항상 은혜와 축복만을 주시지 않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을 주시므로써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주신 사랑에 감사하도록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시 119:71).

4. **㉠**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1) 우선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동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2)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40년간 생활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써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3) 혹자는 이 귀절을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를 위한 양식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한다. 물론 그 해석도 옳은 견해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 본 귀절의 의도하는 바는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양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설혹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명하시어 내시는 특별한 것, 즉 '만나'와 같은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여 주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5)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도 굶주려 죽지 아니한 사실에

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결코 일상적인 양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어주신 만나에 의해 삶을 영위하였다(출 16:35).

- (6) 예수님께서 이 귀절을 인용하시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도 같은 의미에서였다(마 4:4; 눅 4:4).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극도로 시궁창하시다는 것을 안 마귀는 ‘들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떡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특별하신 방법으로 지속시켜 주시리라고 대답하셨다.
- (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 6:31, 32)고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5. **㉠**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3절)

- ㉠** (1)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원문을 직역하면 이 귀절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된다.
- (2) 그런데 70인역(LXX)에서는 본 귀절을 <판더 레마티>, 즉 ‘모든 말씀들’이라고 번역하였다.
- (3)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 70인역을 따라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듯하다.
- (4) 한편 영어 성경 가운데서는 KJV와 NIV는 본 귀절을 ‘모든 말씀’(every word)으로 번역한데 반하여 RSV는 ‘모든 것’(everything)으로 번역하였다.
- (5) 그러나 이 귀절이 뜻하고 있는 의미(참조, ㉠ 4)에 의거하여 볼 때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6. **㉠**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40년 동안 의복이 해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처음에 한 번 입은 옷이 저들의 신체 발육에 따라 몸에 맞게 늘어났으며 이것이 결코 닳아서 해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 (2)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결코 닳아서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 (3) 물론 그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을 나올 때 저들이 상당한 양의 의복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죽과 털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소와 양이 많았음에도 기인된다(출 12:35, 36, 38).
- (4)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로 저들을 먹여 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다.
- (5)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풀지 않았다는 말은 ‘발이 부풀어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저들의 의복이 해어지지 않은 것처럼 신발도 제때에 공급받은 일을 지적하는 말이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마 6:32).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고 말씀하셨다.

7. **㉠**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인데 이는 단순한 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토록 지도하는 모든 훈육(訓育) 과정을 가리킨다(참조, 히 12:10, 11).
- (2) 그러므로 이러한 징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참조, 잠 3:11, 12; 히 12:5, 6).
- (3) 이는 곧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무릇 징

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鍊達)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히 12:11).

- (4) 이러한 원리는 성도들 간에서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정신으로서 성도간의 권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권징과 치리에 있어서도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한다(참조, 마 18:15-17).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 (7-10절)

- ㉠** (1)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 이는 대부분이 사막 지대인 근동 지역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물이 풍부한 곳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2) 여기서 '분천' (噴泉)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이는 본래 '눈' (eye)을 뜻하는 단어이나 유추적으로 '샘' 또는 '분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3) 또한 가나안은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과 같은 농산물과 꿀이 풍부하다. '꿀'은 히브리어로 <데바쉬>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벌꿀을 가리키지만 새로 짜낸 포도즙을 끓여 만든 시럽(syrup)을 의미하기도 한다.
- (4) 더우기 가나안은 광물질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레바논, 팔레스틴 북부 지방,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비교적 풍부한 철광석이 발견되곤 한다.
- (5)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라기 보다는 거의 불모지와 사막으로 뒤덮인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풍요로운 곳이라는 상대적 의미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받을 육적인 풍성한 축복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성을 깨달아야 한다 (엡 1:18, 19).

9. **㉠**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이는 우리들이 날마다 취하는 양식이 우리를 스스로에게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3절; 욥 38:41; 마 6:31, 32).
- (2) 특히 유대인들은 본 귀절(10절)에 근거하여 식사 전과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세웠다.
- (3)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인정하셔서 음식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셨다(참조, 마 14:19; 15:36; 26:26).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풍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시 69:30; 골 3:16).

10. **㉠** 물질의 풍요가 성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가? (14절)

- ㉠** (1) 인간은 대개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게 되어 외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교만과 나태로 변질되어 결국은 정신적인 빈곤의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 (2) 이는 성도들에게도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잠 30:8, 9) 라고 간구했다.
- (3)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마 19:23, 24).
- (4) 그러나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물질적 풍요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이다(시 127:1, 2).
- (5)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을 수 있는 자는 목이 타서 마실 물을 구하는 자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이다(마 5:3).

11. ㉠ 여기에 나오는 불뱀과 전갈에 관하여 설명하라 (15절).

- ㉠ (1) '불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쉬 샤라프>인데 이는 그 뱀에 물리기만 하면 타는 듯한 고열(高熱)과 갈증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 이 뱀은 강렬한 독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대개 근동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시래스티즈' (serastes, 뿔뱀)나 '나자' (naja)의 일종이다(참조, 민 21:6).
 (3) 그리고 '전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크라브>인데 이는 상징적으로 매듭을 묶은 채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4) 특히 성경상에 '아그랍뱀 언덕', 즉 '전갈의 언덕'(민 34:4; 수 15:3; 사 1:36)이란 지명이 나올 만큼 팔레스틴 지역에는 많은 전갈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10여 종에 이른다.
 (5) 이 불뱀과 전갈은 광야의 위험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물렸을 때 생기는 열을 식혀 줄 수 있는 물이 없는 광야 곧 '간조한 땅'과 관련되어 그 고통을 이 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2. ㉠ 재물에 대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먼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그 재물을 위탁받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학 2:8).
 (2)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18절).
 (3)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다(17절).
 (4) 또한 이러한 모든 재물은 자신의 욕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참조, 행 2:43-47).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보다 많은 것으로 맡기시며 세상 끝날에 자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다(마 25:14-46).

13. ㉠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19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사 38:17).
 (2)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롬 12:2).
 (3) 일반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된다(히 5:8, 9).
 (4) 또한 고난은 성도들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롬 5:4).
 (5)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이다(시 119:71).
 (6)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날을 예비하고 계신다(마 13:25-30).
 (7)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여야 할 뿐이다(고후 12:9; 살전 5:18).

본장의 요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6절).

제 9 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과거의 실패를 회상시킴

단락구분 1-6 백성들의 자만심을 꺾는 모세의 훈계 / 7-21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에 대한 회상 / 22-24 광야 생략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회상 / 25-29 모세의 축복 기도에 대한 회상

1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3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시라 네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7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8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9 그때에 내가 들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들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10 여호와께서 두 들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

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1 사십 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들판 곧 언약의 두 들판을 주시고

12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할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3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14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 내가 들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들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16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와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17 내가 그 두 들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18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19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시라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시라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22 너희가 다베라와 맞사와 기브룻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케 하였느니라

23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

회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25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 하였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박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1. **㉠**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모세가 표명하고 있는 우려는 어떠한 것인가?
 - ㉠** (1) 모세는 본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품게 될지 모를 자만심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2) 이는 곧 저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오로지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직함에 기인하고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결코 가나안 입성이 저들의 의로움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4)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또한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고 있음을 교훈하였다(4, 5절).
2. **㉠**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오늘'이라는 말은 여자적(如字的)으로 '오늘(today) 당장'을 가리키지 않는다.
 - (2) 이에 대한 히브리어는 <하욘>으로서 이는 '이때에', '바로 지금'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이 곧 눈앞에 다가왔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이런 사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모세가 죽은 후(34:5-8)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 강을 건너으로써 이루어진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수 3장).
3. **㉠**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완전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뜻이다(수 2:2;6:1).
 - (2) 또한 이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로서는 군사적 방어 시설을 갖춘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 (3)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4. **㉠**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아낙'(Anak)이라는 말은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는 일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종족의 이름이다. 이 아낙 자손들은 본래 가나안 남쪽 산지에 거주하던 자들인데(삿 1:20) '아히만', '세새', '달매'가 이들의 후손이었다(민 13:22).
 - (2) 그리고 본 귀절은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 모세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38년 전 가데스에서 있었던 불신앙적인 정탐군들의 보고를 모세가 인용한 말이다(민 13:28).
 - (3) 즉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거민이 크고 장대하며 두려운 존재라고 보고함으로써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안겨 주었다(민 13:28, 32, 33).

- (4) 이러한 사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 (5)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아낙 자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여야 할 것이다.

5. **㉠**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관하시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수 6:2, 3).
- (2) 이처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삼상 17:47).
- (3) 또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

6. **㉠**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맹렬한 불'이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에쉬 오크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태우는 불', '소멸(燒滅)하는 불'이란 뜻이다.
- (2) 이러한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창 15:17; 출 3:2; 왕하 1:9-12) 하며 본절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렘 4:4; 겔 22:21; 습 1:18).
- (3) 또한 여기서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돋보이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결국 저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맹렬한 불에 지푸라기처럼 사그라질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 **㉠** 본절의 가나안 족속들을 '속히 멸하라'는 말은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7:22; 출 23:29, 30)는 말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3절)

- ㉠** (1) 외면적으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출 23:29, 30에는 분명히 1년이라는 유예(猶豫)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성경의 유오성(有誤性)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를 저들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 (3)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혹자는 7:22과 출 23:29, 30은 가나안 모든 족속에 관계된 말이나 본절은 아낙 자손에게만 관계된다고 주장한다.
- (4) 이 주장은 상당히 그럴 듯하지만 본장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본절의 내용을 아낙 자손의 멸망에만 국한시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한 견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
- (5) 또한 랑게(Lange) 같은 사람은 본절의 '속히'란 말을 7:22과 출 23:29, 30에서 '허락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 (6) 그러나 본귀절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비교적 무난한 듯하다. 즉 7:22과 출 23:29, 30에 언급된 점진적인 멸망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 자체이지만 본절에 언급된 급속한 멸망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들의 국가나 사회로 보는 것이다.
- (7) 이는 곧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왕국은 조속히 멸망당하지만 그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존속하던 가나안 거민들은 점진적으로 멸절되거나 추방되는 것을 가리킨다.

8.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교만은 무엇이라고 지적되고 있는가? (4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 (2)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가나안 거민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 (3) 이처럼 오늘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도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다(엡2:8, 9).
- (4)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갈6:14).

9. ㉠ 가나안 민족들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절)

- ㉠ (1) 가나안 민족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애매하게 가나안 거민을 쫓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대가를 받은 것이다(참조, 7:1-5).
- (3)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다른 민족을 억울하게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참조, 고전8:9).
- (4) 단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며 가나안 거민은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은 것뿐이다(4, 5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욥34:12; 벰전2:23).
- (6)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라도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10. ㉠ '의로움' 과 '정직함' 에는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가? (5절)

- ㉠ (1) 랑게(Lange)와 같은 학자는 '전자는 행동상의 정직함을 가리키며 후자는 동기와 목적상의 정직함을 가리킨다'고 하여 이 둘을 구분하였다.
- (2) 그러나 문자적으로 '의로움' (히, 체다카)과 '정직함' (히, 요쉐르)이란 단어 간에는 그러한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3) 단지 (체다카)는 도덕적, 사법적 의미에서의 '깨끗함'과 '의로움'을 뜻하며 (요쉐르)는 '곧음', '공평함' 또는 '옳음'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 (4) 그러므로 '의로움'과 '정직함'이란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중언법(重言法, hendiadys)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한다(참조, 삼상 2:3; 잠 16:16, 18, 19).

11. ㉠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었는가? (6절)

- ㉠ (1)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
- (2) 여기서 '목이 곧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거역 그리고 어리석은 거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출 32:9; 33:3, 5; 34:9; 대하 30:8; 행 7:51).
- (3) 또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상태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말이기도 하다(7절).
- (4) 한편 성경에서는 '목'이라는 말이 언제나 사람이 악한 길로 나아갈 결심을 하는 상태를 지적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사 48:4).
- (5) 이처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고함을 나타내는데 주로 자신의 일이 형통할 때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악이다(참조, 느9:16).

12. ㉠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도록 힘써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교만이 인간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선봉(先鋒)이며 거만한 마음이 실패의 앞잡이이기 때문이다(잠 16:18).
- (2)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교만 때문에 파멸될 것을 모세는 심히 염려한 것이다.
- (3)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이었다(잠 15:33).
- (4) 즉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겸손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교만하게 되면 받은 은총과 축복까지도 빼앗기는 불행을 맞게 된다(마 25:24-30).

13.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그들에게 과거의 사건을 회상시켜 주었다. 그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라(7-24절).

- Ⓐ (1) 맛사의 사건 : 출애굽 제 1년 2월 말에 르비딤 맛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였다(출 17:1-7).
- (2) 시내 산의 사건 : 출애굽 제 1년 4월 말에 있었던 일로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다(출 20장; 24:12-18; 32:1-6).
- (3) 금송아지 사건 :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사건이다(출 32:1-5). 이 일로 레위인들이 모세의 명을 받아 3,000명 가량의 백성들을 죽이었다(출 32:28).
- (4) 다베라 사건 : 출애굽 제 2년 2월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타난 사건이다(민 11:1-3).
- (5) 기브룻 핫다아와 사건 : 만나에 싫증이 난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한 사건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1개월 간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었으나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고기 맛을 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였다(민 11:4-35).
- (6) 가데스 바네아 사건 : 출애굽 제 2년 5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2정탐군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모세에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징벌을 당하였다(민 13:1-14:38).

14. ⓐ 호렙 산(시내 산)에서 여호와를 격노케 한 사건은 무엇인가? (8-21절)

- Ⓐ (1) 모세가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동안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던 사건이다(출 32장).
- (2)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 '아피스' (Apis)를 본뜬 우상이다.
- (3) 이를 본 모세는 크게 노하여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출 32:19).
- (4) 그 후에 모세는 다시 40주야를 단식하며 기도하여 여호와와의 진노에 대한 속죄를 하였으며 또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흐르는 시냇물에 뿌렸다(18, 21절).
- (5) 이처럼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은 곧 우상 숭배의 완전한 근절을 의미한다.
- (6)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0명이나 죽었다(출 32:28).
- (7) 이와 같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해결된 후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다(10:1-5).
- (8) 이는 죄에 대하여 단호히 징계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요 13:1).

15. ⓐ 십계명은 누가 어떻게 돌판에 기록하였는가? (10절)

Ⓐ (1)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親手)로 기록하셨다.

(2) '친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체바>인데 이는 '손가락' (finger)을 가리킨다.

(3)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는 의미이다 (비교, 출 15:16; 시 34:16; 애 3:56; 약 5:4).

16. ⓐ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호렙 산에서 며칠 동안 지냈는가? (9, 10절)

Ⓐ (1) 모세는 40주야(晝夜)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2) 히브리 역사에서 '40'은 대략 한 세대의 기간을 표시하기도 하며 시험과 연단을 상징하는 수자로 사용되기도 한다(삼하 5:4).

(3) 또한 이는 심판, 회개, 징벌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창7:4, 12, 17; 마4:2; 행1:3).

(4) 이처럼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역을 앞두고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마 4:2).

17. ⓐ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이르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1) '총회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첫 해, 즉 출애굽 제 1년 3월초 시내산 기슭에서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던 날을 가리킨다 (출19:1, 9-18).

(2)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일 동안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 후 제 3일에 성회(聖會)로 모였다(출19:14, 15).

(3)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총회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19:25; 20:1).

18. ⓐ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는 귀절은 개역 성경의 오역이다. 이를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 (1) '내 백성'이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암메카>로 나오는데 이는 '너의 백성'이란 뜻이다.

(2) 이에 준하여 70인역 (LXX)과 KJV, RSV 등과 같은 영어 성경에서도 이를 '너의 백성' (your people)으로 번역하고 있다.

(3) 또한 개역 성경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출32:7에는 '...네 백성'이라고 바로 번역되어 있다.

(4) 그러므로 본절에 있어서의 '내 백성'이라는 말을 바르게 고치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된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네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저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의미한다(참조, 출 6:7).

(6) 이와 같은 관계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도리어 악을 행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없게 된다 (참조, 32:5).

19. ⓐ 여호와와 명하신 도를 '급속히' 떠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6절)

Ⓐ (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하여 불순종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제 2계명을 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출 20:4).

(2) 즉 여호와와 십계명과 규례를 듣고 그 모든 법도를 지키겠노라고 맹세한 후 불과 40여 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와 의 도(道)를 속히 떠난 행위였다.

(3)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미혹받은 사건이다.

(4) 그러므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서 남이니라' (잠 4:23)고 교훈하고 있다.

20. **㉠** 모세가 금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시내에 뿌렸다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21절)

- ㉠** (1) 이는 곧 우상의 무력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분쇄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 (2) 그리고 출 32:20에 의하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만든 가루를 시내 산에서부터 흘러 내리는 시냇물에 뿌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3)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언약의 파기(破棄)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다.
- (4) 이처럼 참된 신앙의 지도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본을 보여야 한다.

21. **㉠**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과 그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5-29절)

- ㉠** (1)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 관계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다.
- (2) 특히 그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하여 부르짖었다(27절). 참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참된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전적인 은혜에 호소하는 것이다(시 51:1).
- (3) 이처럼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 (4)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간구하신 중보 기도와 같다(요 17장).

22. **㉠**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라는 모세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26, 29절)

- ㉠**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언약을 생각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하기는 했으나 여호와와 기업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이다(사 43:1).
- (3)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죄악된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와 긍휼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롬 2:4; 3:25).

본장의 요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
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
었노라'(17절).



제 10 장 십계명이 기록된 새 돌판과 여호와의 권고

단락구분 1-5 두번째의 십계명 돌판 / 6-7 아론의 죽음과 엘르아살의 제사장직 계승 / 8-9 구별된 레위 지파 / 10-11 다시 산에 오른 모세 / 12-16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권고 / 17-22 하나님의 금품과 권고

1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껍 하나를 만들라

2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껍에 넣으라 하시기로

3 내가 싯답나무로 껍을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 내가 들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껍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6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못 브네야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 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7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윗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8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9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10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실 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

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12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16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끈게 하지 말라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21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목도한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새로운 두 돌판을 받은 사건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한 일, 가나안을 향해 계속 행진할 수 있게 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4-7, 11절).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

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결국 모세는 이러한 사건들을 회상시킴으로써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제 2세 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였다.

2.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1절)**

㉠ (1)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신 때이다(참조, 10절; 9:25-29).

(2)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모세는 간절한 중보 기도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9:21, 25).

(3)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는 곧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애통해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골 2:12).

3.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기 위해서이다(2절).

(2)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던 처음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깨뜨려졌었다(9:16, 17).

(3)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십계명 판을 주시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내렸던 진노를 거두시며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표이다.

(4) 이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합 3:2).

4. **㉠ 십계명을 보관할 궤(櫃)는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3절)**

㉠ (1) 싯딤나무이다.

(2) 이는 곧 ‘아카시아(acacia) 나무’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조각목’으로도 번역하고 있다(출 25:10; 26:15; 30:1; 36:20).

(3) 이 나무는 아직도 네게브(Negeb)와 시나이(Sinai) 반도 등의 사막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4) ‘싯딤’(민 25:1; 수 2:1; 19:35; 미 6:5)이나 ‘아벨 싯딤’(민 33:49)과 같은 지명은 그곳에 아카시아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5) 특히 이 나무는 내구력(耐久力)이 강하여 가구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로 언약궤를 비롯하여 성막과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만들었다(출 25-27, 35-38장).

5. **㉠ 십계명을 받은 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곳은 어디인가? (6, 7절)**

㉠ (1) 브에롯 브네야아간 :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민 33:30, 31에는 ‘브네야아간’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에돔 족속의 땅 변경(邊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아간’은 에돔(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다(창 36:27; 대상 1:42).

(2) 모세라 : ‘징벌’이라는 뜻으로 민 33:30에는 복수형 ‘모세랏’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론이 여기서 죽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치는 호르 산 근처인 것 같다.

(3) 굿고다 : ‘갈라진 틈’이라는 뜻으로 가데스 바네아 근처의 ‘홀하깃갓’(민 33:33)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된다.

(4) 옷바다 : ‘상패함’이라는 뜻이다. 이는 본문(7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곳에 시내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상패감을 안겨다 주었으므로 붙여진 명칭인 것 같다.

6. **㉠ 아론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1) 아론은 123세에 ‘모세라’에서 죽었다. 이곳의 위치는 민 33:30의 언급으로 볼 때 호르

산 근처임에 틀림없다.

- (2) '모세라' 라는 말은 '징벌'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론의 죽음은 프리바에 서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간주된다(민20:10-13).
- (3) 또한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 신정 국가의 예비 단계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대제 사장으로 활동한 하나님의 큰 종이었다.
- (4) 그러므로 이제 그의 죽음은 구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간의 교체를 암시한다(1:34-39).
- (5) 왜냐하면 가네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와 여호수아 및 갈렙뿐이었기 때문이다(민14:29-31).

7. **㉠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그들이 하여금 성막 봉사의 일을 비롯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 (2) 특히 광야 생활 중에 언약궤를 메는 일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이동하는 일은 오직 레위인들만이 전담하였다(민 3:6-9).
- (3) 레위의 세 아들 고라,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서로 분담하여 이동함으로써 질서와 능률을 꾀하였다(참조, 민4장).
- (4) 그러나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업무가 재정비되었다. ① 성전 내에서의 봉사(대상24장) ② 찬양대(대상25장) ③ 성전 문지기(대상26장)
- (5)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레위인들만이 성막 봉사를 위하여 택함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전12장).
- (6)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봉사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직 죽도록 충성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생명, 의(義)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딤후4:8; 약1:12; 벰전5:4).

8. **㉠ 레위인들의 분깃은 무엇이며 그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9절)**

- ㉠** (1) 레위인들에게는 삶에 필요한 토지나 기타 물질적인 어떤 몫이 없었다.
- (2)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였으므로 생업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레위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민 18:24).
- (4)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십일조를 모아 레위인들의 생계에 필요한 몫으로 공급하셨다(참조, 레 10:13-17; 민 18:8-19).
- (5)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심 전력하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계신다(참조, 고전9:9, 14).

9. **㉠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 모세의 증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뜻이다.
- (2)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계속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의미이다(합3:2).
- (3)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의 대변자요 중재자였다.

(4) 이러한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딤후2:5; 히9:15).

10.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대하19:9).
 (2)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道)를 좇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5:32).
 (3)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마 22:37).
 (4)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6:5; 수 22:5).
 (5)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을 신실되이 준수하는 것이다(6:1, 2; 왕하 17:13).

11. ㉠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 ㉠ (1)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견해가 있다.
 (2) 첫째, 이것은 단지 하늘의 광대 무변(廣大無邊)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수사학적(修辭學的)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둘째, 이와 같은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우주 개념 가운데 하늘은 상·중·하의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다.
 (3) 전자의 견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그 뜻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히브리어 문법에선 '장엄 복수'(莊嚴複數)라고 칭한다.
 (4) 그리고 후자의 견해는 히브리인들의 '탈무드'(Talmud)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에타나(Etana) 신화'에 등장하는 우주 개념과 일치한다.
 (5)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째 하늘'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후 12:2).
 (6)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그 어느 곳에도 하늘이 1, 2,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개념은 없다.
 (7) 히브리적 개념 뿐만 아니라 성경적 개념에 있어서도 '3'이라는 수자는 더없이 높고 절대적인 것을 뜻하는 완전수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공중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리고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볼 수 있다.
 (8) 아뎀본서의 기자(記者)가 이 귀절을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하는 바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다(참조, 4:39; 수 2:11; 대상 29:11; 시 24:1).

12. ㉠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15-18절)

- ㉠ (1) 신의 신, 주의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대하 2:5; 사 3:15). 이는 곧 하나님의 절대성(유일성)과 거룩성, 전지 전능성(全知全能性)을 가리킨다.
 (2)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삼상 16:7; 대하 19:7). 이는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택하시되 '세상의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고전 1:27)를 막론하고 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불의와 선을 급게 판결하시지 않으신다.
 (3)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伸冤)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시 68:5). 이는 곧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뜻한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가장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들을 대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를 돌보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다(마 6:25-32).

13.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15절)

- Ⓐ (1)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선택하신다(사42:1; 엡1:5).
- (2) 이 말은 인간 편의 조건이나 의로움 또는 신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선택하심을 가리킨다(엡1:9-12).
- (3)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한다.
- (4)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함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그의 기쁨이 되었다(엡1:11).
- (5)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의(義)를 내세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고전 15:10)임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와 성호(聖號)'를 찬양하는 것이다(시 103:1, 2, 22).

14. Ⓞ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

- Ⓐ (1) 할례는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종교적 헌신과 순결의 징표이다(창17:10-14).
- (2) 그러나 많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망각한 채 단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 (3)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곧 개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라는 권면인 것이다(렘4:4; 겔44:7).
- (4)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례에 적용이 되었으니 이는 곧 죄 씻음과 중생의 표시인 것이다(막1:4; 롬6:3).
- (5)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롬5:1; 요일1:9).
- (6)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곧 교만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어 그를 징계하신다(잠18:2).
- (7) '곧은 목'에 관하여서는 9장의 Ⓞ 11을 참조하라.

15. Ⓞ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18, 19절)

- Ⓐ (1)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 40년 동안도 보호하여 주셨다.
- (2) 그러므로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고아와 과부, 즉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며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 (시 68:5)라고 말씀하셨다(참조, 시 10:14).
- (4)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인이며(신 16:14; 24:17; 26:12, 13; 욥 24:21) 그들을 압제하는 자는 심판받을 대상으로 간주되었다(사 10:2-4).

16. Ⓞ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19절)

- Ⓐ (1) 여기서 나그네는 이스라엘인과 함께 사는 이방인과 타국인 모두를 가리킨다(출 22:21; 23:9; 레 19:33, 34).
- (2) 이러한 나그네는 이스라엘의 자비와 관용을 받고 살아야 할 대상이었다.
- (3) 한편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이 세상의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대상임을 고백하였다(시 39:12; 119:19).

- (4)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에선 순례자(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히 11:1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도 소망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것이다(히 11:15, 16).

17. **㉠** 사람이 맹세를 할 때에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절)

- ㉠** (1) 공동 번역에서는 본귀절을 '맹세할 일이 있으면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 (2)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 행위를 나타낸다.
- (3)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맹세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보다 더 크고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를 가리켜 맹세하기 때문이다(히 6:16).
- (4)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마 5:33-37; 약 5:12)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본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출 22:11; 수 2:12; 사 65:16).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창 15:5).
- (2) 이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으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열조의 수는 70명에 불과하였으나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는 장정만 60만 여 명에 이르렀다(민 26:51).
- (3) 이와 같은 자손의 번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일 뿐 아니라 이로써 다윗의 계통을 좇아 나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약속도 성취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사 11장).
- (4)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축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의 자녀될 자들을 부르시되 땅 끝까지의 모든 족속들에 대하여 그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 28:19).

본장의 요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7절).

제 11 장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경고

단락구분 1-7 백성들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총에 대한 모세의 회고 / 8-15 명령에 대한 준수와 그 결과로서의 번영 / 16-17 우상 숭배로 인해 받게 될 징벌 / 18-25 율법의 준수와 그 결과인 은혜 / 26-32 백성에게 있는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

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입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퍼신 팔과

3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흥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시라 오늘까지 이른 것과

5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7 너희가 여호와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묵도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라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땀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태어 기록을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22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23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니

24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테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25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6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말하는 도에서 돌아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좃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30 이 두 산은 요단 강 저편 곧 해 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레 상수리나무결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나

31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32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 ㉠ 본장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언급되어 있다.

(2) 특히 모세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 여부(與否)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3) 또한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10:22이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호소한 설교와 연결되고 있다.

2. ㉠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여호와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다.

(2)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그의 계명과 규례 그리고 법도를 준행하게끔 만드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출 20:6; 단 9:4).

(3)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마 23:23; 막 7:6-13).

(4)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요 14:24; 롬 13:10).

3. ㉠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직임'(職任)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1) '직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쉬메레트>인데 이는 '지키다', '파수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샤마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2) 그러므로 '직임'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위탁된 '의무'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3) 한편 오늘날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직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고후 2:15).

4. ㉠ 여호와와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율법을 지키되 끊임없이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2)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롬 12:11; 뱀전 3:13).

(3)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경우에는 순종하고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경우에도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5. ㉠ '여호와와의 징계'를 기억하라는 뜻은 무엇인가? (2절)

㉠ (1) '징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무사르>인데 이 말은 단순한 형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훈련' 또는 '교육적인 연단'이란 의미를 지닌 말이다.

(2) 한편 본절에서 '징계'로 번역된 <무사르>는 4:36에서는 '교훈'으로 번역되었으며 잠 1:2; 5:12; 6:13 등에서는 '훈계'로 번역되었다.

(3) 그리고 70인역(LXX)에서는 이 말을 <파이데이아>, 즉 '훈련', '교정', '가르침'이란

뜻을 가진 말로 번역하고 있다.

- (4) 결국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징계 곧 잘못에 대한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의 주인이 될 준비 과정으로서의 '훈련'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 모세가 백성들에게 회상시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2-7절)

- ㉠** (1) '강한 손'과 '떠신 팔' (참조, 4장 **㉠** 23)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참조, 출 15장).
 (2) '큰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진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참조, 출 14:15-31).
 (3) 불의에 대하여는 용납하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참조, 민 16장).
 (4) 이처럼 모세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7. **㉠**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지은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벌하셨는가? (6절)

- ㉠** (1) 여기에 언급된 사건은 민 16장에 기록된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회고이다.
 (2)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났던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3) 이 사건의 표면적인 취지는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렵고 고달프므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주동자들 자신이 모세를 몰아내고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반역 사건이었다 (민 16:1-14).
 (4) 이와 같은 반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불신앙적 행위로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으니 이 사건의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었으며 이에 동조하였던 250명의 족장들은 불에 타죽었다 (민 16:31-35).

8. **㉠**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있어서 민 16장에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주동자로 되어 있으나 본질에서 다단과 아비람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랑게(Lange)는 이에 관하여 비록 고라가 사건의 주동자이긴 하였지만 그는 조만간 그 사건에서 빠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 16:20 이하에 의하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랑게의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3)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록 고라가 사건의 주동자이긴 하였지만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보다 더 철저하고 완강하게 모세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민 16:12-14).
 (4)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답은 이 사건을 회고한 모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5) 즉 모세는 여기서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는지를 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시켜 줌으로써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며 그 능력과 위엄의 크고 두려움을 깨우쳐 주려고 한 것뿐이다.
 (6) 그러므로 모세의 회고가 역사적 사실에 배치(背馳)되지 않는 한 고라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9. **㉠** 애굽과 가나안의 농사 조건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0, 11절)

- ㉠** (1) 애굽(Egypt)은 따뜻한 기후와 침적토 그리고 국토 중앙부를 가로질러 흐르는 나일 강의 용수(用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부유한 농업 국가 중의 하나이다.

- (2) 그러나 애굽의 농업은 주로 나일 강의 물을 이용하는 관개 시설(灌溉施設)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었다.
- (3) 본절(10절)에서 '발로 물 대기'란 바로 이와 같은 관개 시설을 의미하는데 곧 수차(水車)를 발로 돌려서 논지에 연결된 수로(水路)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 (4) 이러한 애굽과는 달리 가나안(Canaan)은 수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 (5) 또한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에선 애굽에서 소요되는 것과 같은 관개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농사를 할 수 있었다(참조, 14절).
- (6)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보여 주고 있다(참조, 시 72:16).

10.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따르는 축복은 무엇인가? (8-12절)

- ㉠** (1) 힘을 얻게 된다(공동 번역).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강대함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심령이 담대해지는 것을 뜻한다(참조, 요 16:33).
- (2)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로고스(logos)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얻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롬 8:17).
- (3) 사는 날이 장구해진다. 이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장수(長壽)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아울러 가리킨다(참조, 5:33; 요 8:51).
- (4)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계속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롬 14:17).

11. **㉠**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3-17절)

- ㉠**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 (2)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마 22:37).
- (3)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전심(全心)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시 50:15; 사 55:6; 렘 29:13) 또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다(대하 16:9).

12. **㉠**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가리키며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른 비'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종교력 제 8월 곧 오늘날의 양력으로 10,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가리킨다. 이때 팔레스틴은 파종기(播種期)에 접어드는데 이와 같은 '이른 비'는 흙을 부드럽게 적셔 주어 땅을 갈기에 좋도록 해준다.
- (2) 한편 '늦은 비'는 종교력 제 1월 곧 3, 4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봄비이다. 이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로서 곡식의 결실을 풍요롭게 해준다.
- (3)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 적절히 내리는 것은 농작물의 수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4) 이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니 곧 때를 따라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필요 적절한 은혜이다(히 4:16).
- (5) 이처럼 시시 때때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단 한 시(時)도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살후 3:16).

13.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떠한 징계를 받으리라고 하였는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므로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모세의 예언은 아합 왕 때에 성취되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은 사마리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었다(왕상 17:1-7; 18:1, 2).
- (3)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후반기에도 유다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렘 14장).
- (4)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배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저주는 그들이 순종하면 받게 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10-12, 14, 15절)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다가 충한 때를 맞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고후 6:2)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

14. **☉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기 위한 방법과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18-20절)**

- Ⓐ** (1)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하여야 한다(시 1:2).
- (2)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도록 권고하였다(6:8, 9).
- (3) 이렇게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방법이다(6:6).
- (4) 그러나 후일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경향으로 치우쳐 율법을 옷에 매달고 다님으로써 예수의 책망을 받았다(마 23:1-12).
- (5)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인 형식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망명된 태도이다(막 7:1-23).

15. **☉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감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절)**

- Ⓐ** (1) 이 말은 '하늘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영원토록'이라는 뜻이다(욥 14:12; 시 89:29).
- (2)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받게 될 땅에서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장수(長壽)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자초하였다(대하 36장).
- (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누리게 될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롬 9:30).

16.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받게 될 축복을 간략히 열거하라(21-25절).**

- Ⓐ** (1)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된다(왕상 2:33; 사 26:3, 12).
- (2) 어떠한 원수의 세력 가운데서도 번영하며 강성해진다(삼상 2:10; 사 49:25).
- (3)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므로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삼하 3:1).
- (4) 이와 같은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28:1-14).

1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24절)**

- Ⓐ** (1)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즉 남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북쪽으로 레바논까지와 '하수에서 서해까지' 즉 동쪽으로 유브라테 강에서 서쪽으로 지중해까지이다.
- (2) 그러나 여기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다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참조. 삼하 8:3; 왕상 4:21; 대하 9:26).
- (3)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제 조건(참조. 8절)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사 30:9).
- (4) 한편 본절에 나오는 '서해(西海)는 히브리어로 <암 아하론>인데 이는 '맨 끝의 바다', '뒷쪽의 바다'란 뜻이다. 이는 곧 지중해를 가리키는 말로서 성경상에 '대해(大海)라

- (4) 아라바: 본절에서 아라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 강 서편 땅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라바'라는 말은 '평양'라는 뜻을 지닌 말이므로 이에 따라 KJV에서는 단순히 이 말을 '평양' (champaign)으로 번역하고 있다.

화보자료

울법 상자를 팔에 맨 유대인. 아래의 사진은 어느 전통적인 유대인이 예루살렘의 동쪽의 벽 앞에서 모세 오경으로부터 베낀 글이 들어 있는 거룩한 작은 상자를 팔에 맨 채로 서 있는 모습이다.



이 작은 상자는 '경문(經文)' 또는 <테필린>이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넣어 다니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관습은 출 13:16; 신 6:8; 11:18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참조, 3절).

제 12 장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와의 규례들

단락구분 1-3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라 / 4-7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 / 8-14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려라 / 15-19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 / 20-28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 29-32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말라

1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른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8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9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망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2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

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3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5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무른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16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7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18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 너는 삼가서 네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 자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21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22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무른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23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24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5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6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7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회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복이 있으리라

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낸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30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차취를 밟아 울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와 멀리하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 ㉠ 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대체로 십계명 중 제 2계명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 거민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 특히 레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를 준수토록 당부하고 있다.
- (3) 즉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상의 문제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것이 본장의 주제이다.

2. ㉠ 1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1절은 2절에서부터 26:19까지의 도입부(導入部)이면서 그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제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
- (2) 즉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가 새로이 해석되어 주어지고 있는 모세의 두번째 설교의 본론 중 서언(序言)이다.

3. ㉠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드리고 경배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2절)

- ㉠ (1)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산에 그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었다 (참조, 왕상 14:23; 렘 2:20; 3:6; 겔 6:13).
- (2) 그것은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서 예배하면 그들의 경배 대상인 우상 신에게 더욱더 가까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3) 또한 그들은 무성한 숲 아래서도 예배 의식을 즐겨 행하였다. 이는 자연의 웅장함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敬畏心)을 불러 일으키고 그들의 의식에 엄숙함과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왕상 14:23; 왕하 16:4; 17:10; 대하 28:4).
- (4) 그러나 이처럼 인위적인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거룩한 예배 처소를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 (5)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든 '저 산'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요 4:21-24).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2, 3절)

- ㉠ (1) 가나안 거민들이 우상 숭배하던 모든 장소를 파괴하는 것이다.
- (2) 또한 여러 가지 우상, 즉 주상(柱像)과 아세라상 그리고 조각한 신상 등을 깨뜨리거나 불사르며 또한 찍어서 그 이름까지도 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의 관습에 물들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이교적인 방식으로 섬길 가능성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함이었다.

(4)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성도들은 범죄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살전 5:22).

(5) 비록 범죄한 후에 회개하고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지만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신앙적인 형태로 바꾸는 적극적인 자세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전 12:1; 애 3:27).

5. **㉠**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것처럼 행하지 말고' 에서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1) 이교도들이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다(2절).

(2)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섬기는 규례와 방법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히 제시하여 주셨다(출 20:3, 11; 레 1-7장).

(3)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요 4:24).

(4) 그러므로 오늘날 '카톨릭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상 숭배(聖像崇拜)는 분명히 우상 숭배 행위이다(출 20:4, 5).

(5) 특히 성도들은 '신앙의 토착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이교적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오늘날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경성(警醒)하여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딤후 2:26).

6. **㉠**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한 곳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무엇인가? (5, 6절)

㉠ (1)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2)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눈에 좋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다(왕상 14:23; 왕하 16:4).

(3)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4)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이다(레 11:44, 45).

(5)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민 6:2; 왕상 8:53; 대하 35:3; 고전 4:7).

(6)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예물이기도 하다(롬 12:1).

7. **㉠**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하실 처소로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어디인가? (5절)

㉠ (1) 이 처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드릴 장소인데 후일 소위 '중앙 성소'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대하 3:1).

(2) 특히 이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땅 예루살렘이 선택됨으로써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참조, 시 78:67-69; 132:7, 13, 14).

(3)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 처소로서 한 곳만을 지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방 우상 종교의 풍습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구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4) 또한 이러한 중앙 성소의 예배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왕상 8:62-66; 대하 29:25-36).

(5) 결국 예배 처소로 지정된 '중앙 성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큰 의의는 우상 숭배

를 배경하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보존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결속에 있다.

8. ㉠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어디에서만 드릴 수 있는가? (6절)

- ㉠ (1) 모든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중앙 성소)에서만 드릴 수 있다.
 (2) 즉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첫 열매, 십일조 등과 같은 모든 제물은 소위 중앙 성소에서만 드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이러한 규제는 오직 우상 숭배를 금지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9. ㉠ '번제와 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레 1:3-9).
 (2) 그리고 본절에서 말하는 '희생'은 본문의 전후 내용을 살펴볼 때 '속죄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피를 흘려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희생 제물인 것이다(레 1:11;3:2).
 (3) 한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희생 제물인 피 흘린 제물과 함께 드려진다.
 (4) 이처럼 모든 제사에 있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율법을 좇아...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히 9:22).
 (5) 이는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히 9:11, 12).

10. ㉠ 십일조의 규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라 (6절).

- ㉠ (1) 십일조의 기원은 이미 모세 이전 곧 아브라함(창 14:17-20)과 야곱(참조, 창 28:22)에 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르러 이 십일조는 불쌍한 자들을 도우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헌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2) 이러한 십일조 제도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수되어 같은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
 (3) 그러나 십일조를 바치는 성도들은 먼저 모든 제물이 하나님의 것이며(학 2:8),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벰전 4:10).
 (4) 그러므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나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견해이다.
 (5)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십일조를 드리는 것 역시 잘못된 태도이다.
 (6) 물론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바침으로 복을 받는지 못받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말씀이다(말 3:8-10).
 (7)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서 마땅히 성도의 행할 바이다(고후 9:10-12).

11. ㉠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이 예물들은 모두 화목 제물을 가리킨다(레 7장).
 (2) 즉 거제는 화목 제물의 뒷다리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 예물은 제사 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다(레 7:32).
 (3)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또는 자원제라고도 함)는 감사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드리는 3가지 방법 중의 2가지 방법이다(레 7:12).
 (4) 서원제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소원한 것을 그분께 바치는 제사이다(레 22:21).
 (5) 낙헌제는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이다(16:10).
 (6) 이러한 화목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고 믿는 신앙을 나타낸다.

12. ㉠ 하나님께 재물을 바침에 있어서의 올바른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7절)

- ㉠ (1) 첫째, 법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살전 5:18).
 (2)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으로서 자랑삼아 드리거나(눅 18:12) 마지 못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고후 9:7a)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3) 둘째, 즐겁고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후 9:7b).
 (4) 이처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세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비롯될 수 있다(엡 4:15).

13. ㉠ '여기서는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소견대로'라는 말은 '자기 생각에 알맞은 대로'라는 뜻이다.
 (2)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를 받았었다(출 25-30장).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 같은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
 (3) '여기서는 소견대로 하였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4) 그러나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5절, 참조, ㉠ 7)에서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다.
 (5)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사(記事)를 곡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꼭 교회에 나갈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견해이다. 타오르는 숯불 속에서 밖으로 들어낸 숯이 금방 꺼져 버리듯이 교회를 떠난 개인의 영혼은 더 이상의 성장을 중지하게 된다.
 (7)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도들의 회합체이다(마 16:18).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모이는 곳에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영적 예배와 성도들간의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행 2:44-47).

14. ㉠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에서 '안식과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안식과 기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지적하는 말이다.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이며 그곳에선 더 이상 유랑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안주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것이다.
 (3)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영적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히 9:15).
 (4)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분 안에서의 안식(구원)에 동참했으나 아직 영원한 안식(완성적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딤후 4:18).
 (5)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종말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후 5:1; 히 6:2).

15. ㉠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물이 '아름다운 서원물'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아름다운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정성스럽게 선택된 예물'로 나와 있다.
 (2) 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드리는 자의 정성이 담겨 있음을 가리킨다.
 (3) 한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각종 물질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예배도 아름다운 예물이다(히 13:15).
 (4)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삼상 15:22; 시 40:6).

16. ㉠ 레위인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여야 했으므로 토지를 경작하거나 목축업을 할 겨를이 없었다.
 (2)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토지가 분배되지 않았다(수 13:14).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다(레 27:30).
 (4) 이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십일조 가운데서 또 십일조를 제사장에게 바쳤다(민 18:26-28).
 (5) 이는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 준다(마 6:25-34; 히 1:8).

17. ㉠ 본장 15, 16, 20-25절과 레 17:3-6의 차이점을 논하라.

- ㉠ (1) 본장에서는 단순히 식용으로 사용할 고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레위기에서는 제물용과 식용 고기 2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다.
 (2) 본장에서는 무릇 피를 먹는 것이 엄금된 외에는 식용 고기는 자기 거주지에서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3) 그러나 레위기에는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간에 모든 짐승은 반드시 회막 문 안으로 가져와 그곳에서 잡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이때 비록 식용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피와 기름을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5) 레위기의 규례는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시절에 주어진 규례이다.
 (6) 그러나 본장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될 땅에 흠어져 정착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이다.
 (7) 이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 정착 생활을 하게 될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제기된 규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8) 또한 이상의 차이점은 구약의 행위 언약이 신약에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뀐 것과 같은 성경의 계시 발전적(啓示發展的)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8. ㉠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6, 23-25절)

- ㉠ (1) 첫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창 9:4; 레 17:11).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현대 의학으로도 증명되었다.
 (2) 둘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욥 10:11, 12).
 (3) 셋째, 생명의 근원인 피로써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 30:10).
 (4) 넷째,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교도들의 풍습으로 그들은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던 자기들의 신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간에 그러한 미신과 사악한 풍습이 행해지는 것을 금하고 계신다.
 (5) 한편 이와 같은 규례를 어긴 자는 극형에 처해졌으며(창 9:5, 6; 레 7:26, 27),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동일한 원칙이 가결되었다(행 15:20).
 (6) 이러한 피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으니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代贖)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게 되었다(엡 1:7; 요일 1:7).
 (7)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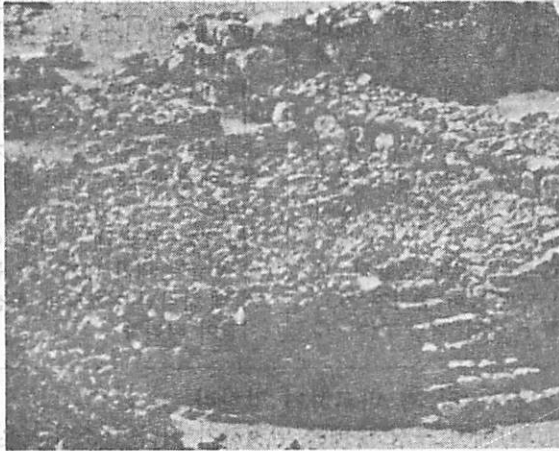
53)고 하신 말씀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19. **㉠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우상 숭배는 어떠한가? (31절)**

- ㉠** (1)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었다.
 (2) 이 신은 몰렉 (Molech)인데 본래는 암몬 족속의 신인 밀곰 (Milcom)이었다(왕상11:5).
 (3) 이 신에 대한 예배 의식에 있어서 특징은 어린아이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4) 혹자는 이처럼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단지 자녀의 무병 장수(無病長壽)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정결 의식이라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성행한 점(왕하23:10; 렘32:35)을 보건대 이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던 어리석고도 잔인한 의식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6)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잔인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된다(참조, 왕상18:28).

화보자료

가나안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산당(山堂). 이곳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을 예배하던 신전인 산당의 폐허에서 발견된 제단이다. 이곳에서 가나안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엄히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다(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셨던 것이다(7:3).

제 13 장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라

단락구분 1-5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 6-11 우상 숭배에로 유혹한 자들을 죽이라 / 12-18 우상 숭배자의 성읍을 멸하라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4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피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지니라

6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피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 곧 네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은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공황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

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10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피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11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13 너희 중 어떤 잠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4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15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6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17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니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심같이 네 수효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18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말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전장(12장)과 비교하여 말하라.

Ⓐ (1) 모세는 전장(前章)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위하여 소위 중앙 성소에서의 제사를 강조하였다.

(2) 본장은 이와 같은 전장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여 거짓 종교의 유혹을 방지하기 위한 교훈을 주고 있다.

(3) 즉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군중들과 같은 개인에서부터 보다 집단적인 성격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세력들에 의한 우상 숭배의 유혹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교훈하였다.

2. ㉠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5절)

- ㉠ (1)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성취와 그 진위성(眞僞性)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18:21, 22; 렘 28:9).
- (2) 그러나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 (3) 이처럼 참 신앙인은 그의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마 7:15-20).
-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한 성경의 내용을 수다스럽게 자랑삼아 잘 떠들면서도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약 2:26).
- (5) 오직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한다(빌 1:29).

3. ㉠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선견자는 어떻게 다른가? (1절)

- ㉠ (1) '선지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이며 '선견자'란 말은 <호제> 또는 <로에>이다.
- (2) 그러나 이 두 용어간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 차이는 구분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예언 사역에 있어서 선견자는 이상(異像)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 하였던 자임에 반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였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3) 그리고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삼상 9:9)는 말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선지자와 선견자란 용어를 혼용하였으나 후기에 와서는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참조, 대상 29:29).

4. ㉠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본문에서 '꿈꾸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홀렘 할름>인데 이는 '꿈에 의하여 예언하는 자', 즉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revelation)라고 말하는 자를 의미한다.
- (2) 히브리 성경의 이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꿈에 의하여 예언하는 사람'(one who foretells by dreams)으로 번역하였으며 Living Bible에서는 '꿈을 통해 미래를 예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one who claims to foretell the future by dreams)으로 번역하였다.
- (3) 꿈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계시(啓示)의 수단이었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꿈을 이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였다.
- (4) 그러므로 꿈의 내용이 성취되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의 결국이 우상 숭배에로 나아간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 (5) 그리고 오늘날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다. 그러므로 꿈이나 이상(異像) 등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 (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시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 (7) 결국 오늘날 꿈이나 이상, 환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거나 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간접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 (8) 그러나 반드시 이상(以上)과 같은 방법만으로 정확하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욥 1:6-19; 2:1-7; 마 24:24).

(9) 이처럼 사단도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온갖 능력과 이적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떠한 신비주의적 요소에도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10) 한편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참조, 요16:13; 고전2:10, 13, 14).

5. **㉠ 이적과 기사에 관하여 설명하라(1절).**

- ㉠ (1) 이적이란 하나님의 특수한 역사로서 제시의 목적과 연결되는 놀라운 현상(現象)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성경상에서 이적과 관련시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이란 말을 많이 볼 수 있다(4:34; 28:46; 대상29:12). 그러나 이 세 용어는 이적의 각기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말일 뿐이다.
- (3) 먼저 ‘표적’(sign)이란 말은 이적의 목적이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으며, ‘기사’(wonder)라는 말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이란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 그리고 ‘능력’(power)이란 말은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 이상의 힘이 나타나는 경우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
- (4) 이러한 이적 가운데 성경상에 나타난 최초의 이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天地創造)사역이며 이적 중의 이적은 요나의 표적, 즉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 (5)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불드시며(히1:3),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 이 모두가 이적이다.
- (6)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現存)을 느끼며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을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다(참조, 시19:1-6).

6. **㉠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여부(與否)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3절)**

- ㉠ (1) 약 1:13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본절의 말은 이와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약 1:13의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에 이르도록 그 마음을 충동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 (2) 하지만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말은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킨다(롬5:3, 4).
- (3)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인간의 탐심이나 사단의 충동에 의한 일반적인 시험(temptation)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뢰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시험(test)을 의미한다(약1:12).

7. **㉠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이들은 거짓 예언이나 능력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 (2) 또한 이처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반역자이기도 하였다.
- (3)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미리 제거하여 우상 숭배의 위협을 막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 가장 가까운 혈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6-11절)**

- A** (1) 친형제나 자녀, 아내(또는 남편) 그리고 친구 등 아무리 가까운 혈족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에로 자신을 유혹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했다.
- (2) 이러한 규례는 잔인한 듯하지만 실상은 죄에 대한 철저한 분쇄를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인 유혹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눅12:52, 53).
- (3) 또한 성도들에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있을 수 없다.
- (4) 이에 예수께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눅14:26).
- (5) 이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꿰을 것은 용기있게 꿰으며 생명을 내걸고 일생 동안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다.

9. Q '네 동복 형제', '네 품의 아내' 그리고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란 말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설명하라(6절).

- A** (1) 네 동복(同腹) 형제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히카 벤 임메카>인데 이를 직역하면 '너의 어머니의 아들 너의 형제'란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이는 곧 부모의 피를 나눈 친형제를 가리킨다.
- (2) 네 품의 아내 : Living Bible은 이 말을 '사랑스러운 아내' (beloved wife)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내가 보호하고 소중히 대하여야 할 아내'라는 의미를 지닌다(참조, 28:54, 56; 미7:5).
- (3)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 :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이 <레아카 아쉐르 케나프쉐카>로 나와 있는데 이를 번역하면 '네 자신의 생명(영혼)과 같은 너의 친구'란 뜻이 된다. 즉 자신처럼 또는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친구를 가리킨다(참조, 삼상20:17).

10. Q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한 자를 죽임에 있어서 먼저 그 친족이 손을 대고 후에 못백성이 손을 대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9절)

- A** (1)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재판 제도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요청되었다(19:15).
- (2) 그리고 이들 증인의 증언이 사건과 일치되어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有罪)로 판명되면 먼저 그 증인이 죄인을 돌로 치고 그 후에 백성들이 일제히 돌로 쳐죽였다(17:6, 7).
- (3) 본절은 바로 이와 같은 재판 절차와 형(刑)의 집행 방법을 언급한 내용이다.
- (4) 실로 사랑하는 혈육이나 아내를 고발하여 처형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하는 이러한 규례는 너무나 가혹한 일임에 틀림없다.
- (5)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실례이다.
- (6) 그리고 이 규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사형(死刑)의 실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 (7) 결론적으로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 사이에는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11. Q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갈 경우 그 성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12-18절)

- A** (1) 먼저 그 성읍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갔는지의 사실 여부(與否)를 가린다.
- (2)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그 성읍 거민 전체와 생축까지도 진멸하였다.
- (3) 또한 그 성읍의 모든 재물을 거리에 모아 놓고 불태워 버렸다.
- (4) 한편 칼빈(Calvin)은 부모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이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과 가옥, 성벽까지도 파괴하도록 한 이 율법

의 잔혹성은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보여 준다고 해석하였다.

(5)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올바른 신앙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즉 사람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참조, 마10:39).

12. ㉠ 잡류(雜類)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성읍 거민을 유혹하였다는 말에서 '잡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잡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네 벨리아알>인데 이는 '무익한', '무가치한' 또는 '사악한', '불경건한'이란 뜻이다.
- (2) 그런데 KJV는 이 말을 '벨리아알의 자식들' (the children of Belial)로, NIV는 '악한 자들' (wicked men)로 번역하였으며 그리고 Living Bible은 '어떤 보잘것없는 떠돌이들' (some worthless rabble)로 번역하였다.
- (3) 한편 사도 바울은 '벨리아알'을 그리스도와 대조시키는 가운데 그를 모든 악인의 우두머리인 사단으로 지칭하였다(참조, 고후6:15).
- (4)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잡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택한 백성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이해된다(참조, 마24:24).

13. ㉠ 본절에서 말하는 '진멸할 물건'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7절)

- ㉠ (1) '진멸할 물건'이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헤렘>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저주를 받은 것'을 뜻한다.
- (2) 그런데 공동 번역은 이 말을 '부정한 것들'로 번역하고 있으며, KJV는 '저주받은 물건' (the cursed thing)으로 그리고 NIV는 '정죄된 물건들' (condemned things)로 번역하고 있다.
- (3) 이는 곧 물건의 소유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죄악의 영향(또는 결과)이 사물(事物)에까지 미침을 의미하고 있다.(참조, 삼상15:3; 롬8:19-22).
- (4)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곧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만짐으로 더럽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5)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를 구별하여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참조, 고전5:11).

14. ㉠ 우상 숭배에로 유혹하는 자를 여호와와의 규례대로 처벌하고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17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수요가 번창토록 하시겠다는 것이다.
- (2) 약속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스라엘의 열조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역사적으로 가나안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참조, 삼하24:9)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자손들의 계속적인 증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참조, 행2:41, 47).
- (3)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사실(7:9)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심' (삼상15:29)에 근거하고 있다.

제 14 장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단락구분 : 1 죽은 자를 위한 자해(自害) 금지 / 2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근거 / 3-21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음식 / 22-27 소산의 십일조를 여호와께 드리라 / 28-29 제 3년의 십일조는 구제 사업에 쓰라

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बे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3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4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5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럼한 사슴과 산 염소와 불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6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7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악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9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10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11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12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술개와 어웅과

13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14 까마귀 종류와

15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16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17 당아와 올웅과 노자와

18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19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20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2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22 너는 마땅히 매년 에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23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져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7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 매삼 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성별(聖別)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 (2) 이를 위하여 본장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호상 행위(護喪行爲)나 식생활에 있어서 조차도 이방인들의 관습과 풍습을 좇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1-21절).

(3) 그리고 본장의 후반부(22-29절)에서는 다시금 십일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다(참조, 12장).

2. **㉠**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니' 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이 말은 본장 전체의 머리말(序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레 11:44).

3. **㉠**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बे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1a절)

㉠ (1)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예배할 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풍습이 있었다(참조, 왕상 18:28). 이는 고행과 자학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여 동정을 살 수 있으리라는 저들의 의식(意識)에서 비롯된 풍습이다.

(2) 이러한 풍습은 저들의 장례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곧 죽은 자에 대한 애도(哀悼)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음부의 신들을 진정시키려는 의식(儀式)이었다.

(3)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거나 도에 지나친 애곡(哀哭)을 해서는 안 된다.

(4) 왜냐하면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직결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참조, 눅 16:19-26; 계 21:3, 4).

(5) 또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스스로 이를 해(害)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롬 12:1; 고전 6:15-20).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बे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이방 풍속을 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고행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4. **㉠**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밟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 b절)

㉠ (1) 본절의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밟지 말라'는 히브리어 성경에 <헬로 타시무 카르 하 벤 에네켄>으로 나와 있다. 이를 직역하면 '네 눈 사이를 대머리지게 하지 말라'는 말이 된다.

(2)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대개 머리털을 밟지 아니하였고, 대머리는 으레히 수치와 멸시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참조, 왕하 2:23).

(3) 물론 성경상에는 선지자들에 의해 머리털을 깎는 일이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의 멸망에 대한 종교적인 애도와 통회(痛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다(사 15:2; 22:12; 렘 16:6).

(4) 그러나 고대 애굽에서는 오히려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 것이 널리 유행하였었다.

5. **㉠**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호와와 성민'이 되었는가? (2절)

㉠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성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레 11:45).

(2)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도 없었다(9:6).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선택되어 '구별되었을' 뿐이며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웠다.

(3) 한편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엡 1:11).

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정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3-21절)

- Ⓐ (1) 어떤 학자들은 이와 같은 규례를 단순히 위생상의 이유,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금하신 짐승의 고기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2) 물론 이와 같은 위생상의 이유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서조차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淨)한 짐승과 부정(不淨)한 짐승을 구별하신 정확한 근거는 잘 알 수 없다.
- (4) 다만 이러한 규례는 종교적, 윤리적인 상징이며 또한 이러한 외적으로 구별된 의식적(儀式的)인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성결을 교훈하신 것만은 틀림없다.
7. ㉠ 본절의 '가증한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가증한 물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에바>인데 이는 다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명하신 것'을 가리킨다.
- (2) 즉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서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된 모든 짐승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모든 것은 다 가증한 물건이다(참조, 레 11-15장).
- (3) 그러나 성경에는 부정한 물건이 왜 부정한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될 따름이다.
8. ㉠ 하나님께서 정하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는 오늘날 우리들도 지켜야 하는가? (3-21절)
- Ⓐ (1)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선 이와 같은 규례를 꼭 지켜야만 한다는 율법적인 당위성(當爲性)은 없다.
- (2) 왜냐하면 본장에 기록된 음식에 대한 규례와 아울러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일종의 행위 언약으로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참조, 6:1-3; 출 19:5, 6).
- (3)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으므로(마 5:17; 요 19:30) 오늘날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한다(참조, 요 8:32).
- (4) 이러한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행 10:9-16)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 (5) 특히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훈하면서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므로 정(淨)하다'고 말하였다(고전 8:6; 10:23-31).
- (6)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를 취하는 것이다(참조, 롬 14:14; 딤후 1:14).
9. ㉠ 짐승들 가운데서 먹어도 되는 짐승은 어떠한 조건을 갖춘 것들인가? (4-8절)
- Ⓐ (1)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면서도 음식을 먹을 때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 중 어느 1가지라도 갖추지 못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
- (2)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짐승은 성질이 온순하고 위생상 정결하며 사람이 먹었을 경우 의학상으로도 전혀 부작용이 없다.
- (3) 이러한 짐승으로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 산(山) 염소, 불기 흰 노루, 빨긴 사슴, 산양 등이 있다.
10. ㉠ 본절에 나오는 '사반'은 어떠한 동물인가? (7절)
- Ⓐ (1) '사반'은 히브리어 <샤판>을 음역한 말인데 시 104:18에는 이 말이 '너구리'로 번역되어 있다.
- (2) 그런데 KJV는 이를 '토끼'로 번역하였으며, RSV는 '오소리'로 번역하였다.

(3)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좌편>이 오늘날 시리아의 '바위 너구리'(hyrax)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11. ㉠ 부정한 짐승의 사체(死體)를 만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8절)

㉠ (1) 본래 정(淨), 부정(不淨)의 구분은 의식적(儀式的)인 것으로서 실제로 깨끗하고 더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깨끗치 못한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2)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의 사체(死體)를 만진 자는 의식상에 있어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정결 의식을 행하여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었다(레 11:28).

(3)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을 빨아야 하며 또한 하루가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었다.

(4) 이처럼 주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취급되었으며 주님에 접촉된 자는 불결한 자로 간주되었다(레 11:40).

12. ㉠ 어류(魚類)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종류는 어떠한 것인가? (9, 10절)

㉠ (1)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이다(레 11:9).

(2)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물고기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3) 아롱든 이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대체적으로 깨끗한 고기들이다.

13. ㉠ 조류(鳥類)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특징을 말하라(11-18절).

㉠ (1) 조류 가운데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특정한 구분 기준이 없다.

(2) 그러나 성경상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정한 새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거나 사나운 맹금류(猛禽類) 등으로 현대에도 거의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레 11:13-19을 참조하라.

14. ㉠ 어웅·다호마스·당아·올웅·노자·대승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12-18절).

㉠ (1) 어웅: 부리 밑에 깃털이 많은 새로서 일종의 '바다 독수리'(ospray)이다.

(2) 다호마스: '다호마스'란 말은 히브리어 <타호마스>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다. 공동 번역은 이를 '올빼미'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새가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다.

(3) 당아: 주로 광야와 같은 황폐한 곳에서 사는 새로서(사 34:11) 대개 '펠리칸'(pelican)을 가리킨다.

(4) 올웅: 독수리의 일종이다.

(5) 노자: 부리가 길며 발에 물갈퀴가 있어서 물고기를 잘 잡을 뿐만 아니라 헤엄도 잘 치는 새인 '가마우지'(cormorant)를 가리킨다.

(6) 대승: 대개의 학자들은 이를 '오디새'(hoopoe)로 보나 KJV에서는 '맹기물떼새'(lapwing)로 번역하고 있다. 이 새는 벌레나 곤충들을 찾아 주로 늪지대로 돌아다닌다.

15. ㉠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19절)

㉠ (1) 이것은 '곤충'에 관한 규례로서 땅에 기어 다니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2) 곤충이면서 기어 다니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이유는 아마도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뱀이 기어 다니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 듯하다.

(3) 그러나 날개가 있고 땅에 기어 다니면서도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곤충, 즉 메뚜기, 베짖이, 귀뚜라미, 팻종이 등은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정(淨)한 짐승으로 간주되었다(레 11:20-23).

16. ㉠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1) 여기서 '스스로 죽은 것'은 자연사(自然死)한 정결한 짐승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되지 아니한 짐승을 가리킨다.

(2) 이는 곧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일단 죽으면 부정한 것이

되어 먹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 (3) 왜냐하면 다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짐승 뿐만 아니라 자연사한 짐승에게 있어서도 그 고기 속에는 피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은 곧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동물의 피를 먹는 격이 된다(창9:4; 레7:24-27; 17:10-14).

17. ㉠ '성중에 우거하는 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1절)

- ㉠ (1) '성중에 우거하는 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 나그네를 가리킨다(Targum 역).
- (2) 이들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으므로 언약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이다.
- (3)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받아들여 할례를 받은 자라면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없다.
- (4) 본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않는 순전한 외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던 자들을 가리킨다.
- (5) 한편 모세의 율법에는 '성중에 우거하는 객'을 공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29절) '이방인'에 관하여 보호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참조, 15:3; 레 25:44-46).

18. ㉠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염소 새끼에게 있어서 어미 염소의 젖은 곧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양식이다.
- (2) 그러므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은 생명의 고귀성을 망각한 행위로서야 만적인 것이다.
- (3)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고대 가나안 족속들간에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관습으로서 일종의 주술적(呪術的)인 행위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규례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사악한 풍습을 금하시고 짐승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 것을 교훈하셨다(참조, 마6:26, 28, 29; 10:29).
- (5) 이와 같은 규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니 이는 곧 못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우리들의 긍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는 목자의 품을 떠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대하여 얼마나 애타는 심정을 갖고 있는가? (마 18:12-14)

19. ㉠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 ㉠ (1)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바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를 드림으로써 모든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소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십일조를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나머지 10분의 9도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 (3) 하지만 십일조를 드림에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린다면 이는 십일조를 드리는 근본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20. ㉠ 첫째·둘째·세째 십일조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22-29절)

- ㉠ (1) 첫째 십일조: 한 해의 추수를 끝낸 백성들은 그들의 소득의 1/10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바친다(민18:21-24). 그러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금 1/10을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바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십일조의 첫 단계를 '첫째 십일조'라고 한다. 이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에 사용된다.
- (2) 둘째 십일조: '첫째 십일조'를 바친 나머지 9/10에서 다시금 1/10을 떼는 것을 말하는 데 이는 백성들이 온 가족과 더불어 성소로 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12:5-19).

(3) 세째 십일조 :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여 제 3년과 제 6년에는 '둘째 십일조'로 잔치를 벌이지 아니하고 이를 각 성에 모아서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사용하였다(26:12-15). 이를 곧 '세째 십일조'라 부르는데 이는 용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둘째 십일조'와 동일한 것이다.

(4) 아물든 이상의 모든 십일조는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 소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데 이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불쌍한 이웃을 돕게 된다.

(5) 이와 같은 십일조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롬 12:13).

21. ㉠ 가나안 땅에서는 두번째 십일조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렸으며 이것이 후에는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23절)

㉠ (1) 여호와께서 정하신 한 곳,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드렸다.

(2) 그러나 중앙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백성들은 십일조를 바칠 짐승이나 물건을 가져 오기가 어려웠으므로 그것을 돈으로 대신 바꾸어 와서 다시금 중앙 성소 근처에서 짐승이나 물건을 사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3) 그러나 예수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타락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며 이를 통하여 매매인이 무수한 폭리를 취하는 등의 불의한 일들이 성행하였다(막11: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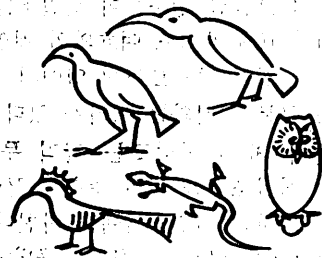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시며 '내 집(여호와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이다(막11:17).

(5) 이는 곧 십일조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자의 내면적 신앙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6)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바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며(학2:8; 말3:8), 우리에게 각양 산업(産業)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장의 요점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
든지 먹지 말라' (3절).



제 15 장 안식년에 대한 규례

단락구분 1-3.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 4-6. 면제년을 지킬 때 받은 축복 / 7-11. 가난한 자에게 후히 꾸어 주라 / 12-18. 히브리 종의 해방에 대한 규례 / 19-23. 초태생(初胎生)의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라

1.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2.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 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3.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5.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경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 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게 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박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옮겨 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너더히 꾸어 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 르기를 제 칠 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고치지 아니 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 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13.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무리 중에서도 타작 마당에서도 포도 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16.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체로 할지니라

18. 그가 육 년 동안에 품군의 값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9.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 너와 네 가족이 매년 여호와와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23.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 ㉠ 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안식년의 규례와 매 안식년에 행할 의무가 언급되어 있다.

(2) 이 안식년은 단순한 휴식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영적 생활과 선민으로서의 일체성을 재정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3) 또한 안식년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입고 있듯이

서로들간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4)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는 '이웃 사랑'이다.

2. **㉠** '매칠 년 끝에 면제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1절)

- ㉠** (1) '매칠 년 끝'은 '매칠 년의 연말'이란 말이 아니고 7년을 주기로 하여 그 주기의 마지막, 즉 '제 7년'을 가리킨다. 이는 곧 유대인들의 '안식년'이다.
 (2) 그런데 본장에 규정된 '채무의 면제'에 관하여선 서로 상반된 2가지 견해가 있다.
 (3) 첫번째 주장은 본장에 언급된 '채무 면제'는 곧 '빛에 대한 완전한 탕감(蕩滅)'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주장은 이를 빛에 대한 완전한 탕감으로 보지 아니하고 안식년에 국한된 '빛 독촉의 면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런데 본절에 나오는 '면제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밋타)이며 이는 '쉬게 하라', '그대로 두라'는 뜻으로서 '일시적인 일의 중단'을 강하게 나타내는 말이다.
 (5) 뿐만 아니라 2절의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지나'라는 말도 '빛에 대한 완전한 탕감'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빛 독촉의 면제'를 의미하는 듯하다.
 (6) 그러므로 본장에 규정된 '채무의 면제'는 아무런 수확이 없는 '안식년'에 있어서 '빛에 대한 독촉을 다음 해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 채주(債主)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2절)

- ㉠** (1) 본문에서의 '채주'는 '대부(貸付)해 주는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
 (2) 한편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채주'라는 말이 전문 용어, 즉 직업적인 고리 대금 업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 또는 식량 등을 선의(善意)로 꾸어 주는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
 (3) 그러므로 채주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자(利子, interests)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빌려 줄 수는 없었다.
 (4) 그러나 외국인에게 빌려 줄 때에는 이식(利息)을 취할 수 있었다.
 (5) 이처럼 채주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주면서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이러한 사랑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되고 있으니 성경은 단지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 주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네 이웃이 주리거든 먹이고, 헐 벗었으면 입혀라'고 명한다(사58:7; 겔18:7; 약2:15, 16).

4. **㉠** '여호와와 면제년'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히브리어 성경에는 '년' (年)이라는 말이 없다.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한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된다.
 (2) 이를 공동 번역은 '야훼의 이름으로 선포된 명령이기 때문이다'로 번역하였다.
 (3) 그러므로 '여호와와 면제년'이란 말은 곧 '여호와를 위한 면제의 해[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의 빛에 대한 독촉을 안식년 동안 면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뜻한다.
 (5) 한편 이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죄책을 면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오늘날은 곧 영적 '여호와와 면제년'임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후6:2).

5. **㉠** 면제년의 규례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제외된 까닭은 무엇인가? (3절)

- ㉠** (1) 본절에 언급된 '이방인'은 히브리어로 (노크리)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종교적으로 전혀 무관한 외국인을 가리킨다(참조, 14장 ㉠ 17).
 (2) 이들은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을 거두어 들인다.
 (3) 또한 이들은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면제년의 혜택을 유보(留保)하신 것이다.

(5)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영적 모든 축복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됨을 뜻한다(참조, 28:1-14).

(6)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 것 같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28:15-68).

6. **㉠**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4, 5절)

㉠ (1)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가난한 자에게 빛을 주며 또한 안식년에 면제해 주기도 하는 여호와의 규례가 계속되는 한 가난한 자는 더 이상 궁핍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또한 안식년에 채무자의 빚에 대한 독촉을 면제해 주는 이러한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채주에게도 손해가 없도록 해주신다는 뜻이다.

(3) 이와 같은 사랑의 규례는 한층 더 발전하여 사도 시대(使徒時代)에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행 2:44, 45).

(4) 이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규례일 뿐만 아니라(마 18:21-35)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까지도 마치 자신에게 한 것인 양 다시금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마 10:40-42).

(5)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벧전 4:7, 8).

7. **㉠** 가난한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 악념(惡念)을 품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1) 면제년이 가까우면 가난한 자가 도움을 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한 말이다.

(2) 즉 면제년에는 채주(債主)가 빚진 자에 대하여 그의 빚을 독촉할 수 없게 되므로 면제년이 가까와 오면 돈이나 물건을 꾸어 주지 않을 염려가 있었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의 요청에 쾌히 응할 것을 당부하신 것이다.

(4) 또한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이웃에게 꾸어 주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 마음이 악한 자로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8. **㉠** 구제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10절)

㉠ (1) 인색하여 억지로 하지 말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한다.

(2) 또한 자기의 것을 아끼면서도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눈가림으로 하여서도 안 되며 오직 성실하게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롬 12:8).

(3) 이처럼 남을 도와 줄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로 알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후 9:7).

(4) 한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잠 11:25).

(5) 그리고 구제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히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마 6:3).

(6) 왜냐하면 구제하는 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외식(外飾)으로 흐르기 쉽고 구제의 참 의미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마 6:2).

(7)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삼상 16:7; 막 2:8).

- (8)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고전 10:31).
9. **㉠** 진실한 구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 보라(행 10장).
- ㉠** (1) 초대 교회에 있어서 백부장 '코넬료'의 선행과 구제는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한 단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행 10:1-4).
- (2) 그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에 힘쓴 자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은 언제나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수반된다(약 2:14-26).
- (4)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된 믿음이다(요일 3:10).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라고 한다.
10. **㉠**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는 무슨 의미인가?(11절)
- ㉠** (1) 본절은 4, 5절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2) 그러나 4, 5절의 말은 이스라엘 중에 결코 가난한 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단지 면제년의 규례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궁핍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다(참조, ㉠ 6).
- (3)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난한 땅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는 항상 고통과 가난이 상존하게 되어 있다(참조, 창 3:17-19).
- (4)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위에 상존하고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아낌없는 구제를 베풀어야 한다(4절).
- (5)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롬 3:24).
11. **㉠**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12절)
- ㉠** (1)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레 25:39-43).
- (2) 그러나 본절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 그의 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3) 하지만 이처럼 가난한 자가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할지라도 주인된 자는 그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품군이나 형제 자매처럼 대우해 주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레 25:39, 40).
- (4)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얽매어 '사단의 종노릇'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요일 3:8).
- (5)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롬 6:17, 18).
- (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근신함으로 다시는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벧전 5:8, 9).
12. **㉠**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 종이 된 사람은 평생 동안 종으로 지내야만 하였는가? (12절)
- ㉠** (1)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는 6년 동안만 주인을 섬기다가 제 7년에는 자유인으로 되돌아가게끔 규정되어 있다.

- (2) 그리고 이때 그는 몸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었다.
- (3) 이는 곧 종 되었던 자가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생활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4)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있어서까지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8장 ㉑9).

13. ㉑ 종을 자유하게 할 때에 공수(空手)로 가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㉑ (1) 만약 6년 동안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던 사람이 빈 손으로 자유하게 되면 그는 온전히 자립할 수 없게 되어 또다시 종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 (2) 이렇게 되면 제 7년에 종을 해방시켜 주는 규례는 아무런 의미를 갖게 되지 못한다.
- (3) 그러므로 주인은 자유하게 되는 종에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4)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한다(마 20:28).

14. ㉒ 주인이 종 되었던 자에게 자유와 더불어 물질을 후히 주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 (14, 15절)

- ㉒ (1)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한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도록 긍휼의 은총을 베푸셨다.
- (2)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 중에서 가난하여 부득이 종이 된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 자신들도 옛날에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여 풍성하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결국 이러한 규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남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훈을 준다(참조, 마 18:21-35).
- (4)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엡 2:4).
- (5)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

15. ㉓ 주인은 해방되는 종에게 어느 정도의 몫을 주어야 하는가? (14절)

- ㉓ (1) 일정하게 규정된 액수는 없으나 후(厚)하게 주어야 한다.
- (2) 여기서 후하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주인에게로 와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한 채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 (3) 한편 유대인 학자들은 말하기를 6년 동안 수고한 종이 해방될 때 주인은 은 30세겔 이상을 종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 (4) 그러나 이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세겔이었다는 점(출 21:32)에서 유추한 주장일 뿐이다. 그러므로 대개 종 되었던 자가 자립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6. ㉔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던 종이 제 7년에 해방되지 않고 여전히 종으로 남을 수 있는가? (16, 17절)

- ㉔ (1) 종으로 있던 자가 주인을 사랑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으로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는 해방되지 않고 종으로서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
- (2)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종살이를 하던 자가 주인의 호의(好意)를 입어 결혼함으로써 자녀가 생긴 경우이다(참조, 출 21:1-6).
- (3) 종으로 있는 동안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자는 제 7년이 되는 해에 그 자신은 해방

이 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여전히 주인의 종으로 남게 된다(출 21:3, 4).
 (4)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결국 그로 하여금 자유를 포기하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결심하게 하는 것이다(출 21:4, 5).

17. **㉠** 종 되었던 자가 제 7년에 자유하게 되는 일을 포기하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주인의 종으로 계속 남게 되는가? (16, 17절)

- A (1)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종이 있을 때 주인은 그를 재판관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와 같은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한다(출 21:6).
- (2) 그리고 나서 그 종의 귀를 대문이나 대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데 이것은 곧 그가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예속되는 것을 상징한다.
- (3) 이렇게 하여 그 종은 영원히 옛 상전에게 예속되는 것이다.

18. **㉠** 양과 소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A (1)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족의 첫 새끼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는 살려 주신 구속사적(敎贖史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출 12:21-30).
- (2) 또한 이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족 대표의 의미를 가진 초태생(初胎生)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그런데 이러한 규례에 나타난 처음 난 수컷은 성별된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즉 처음 난 흠 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화목제(和睦祭)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 준 것이다(참조, 사 53:7; 요 1:29; 고전 5:7).

19. **㉠** 소나 양의 첫 새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21절)

- A (1) 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나 양의 첫 새끼라 할지라도 다리가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흠이 있으면 제물로 사용될 수 없었다.
- (2)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식용으로 사용되었다(22절).
- (3)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반드시 온전한 예물이어야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드리거나 드릴지라도 성의 없이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 행위이다.
- (5) 우리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예물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바치는 것이다(참조, 고후 3:6-11).

본장의 요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
 하겠는 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境內)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11절).

제 16 장 3대 절기를 지키라

단락구분 1-8 유월절에 대한 규례 / 9-12 칠칠절에 대한 규례 / 13-17 초막절에 대한 규례 / 18-20 공의로운 재판을 실시하라 / 21-22 우상 숭배를 금하라

1 아빔 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빔 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2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칠 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4 그 칠 일 동안에는 네 사경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5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냇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8 너는 육 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 칠 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9 칠 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 주를 계수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

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확한 후에 칠 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14 절기를 지키는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 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너의 중 모든 남자는 일 년 삼 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1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21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22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언급되어 있다.

(2)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절기에 관해서는 출 23:14-17; 34:18-23에도 나타나 있는데 본 장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3) 또한 레 23장에는 성회로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언급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

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고 있다.

(4)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중앙 성소에 나아가 예물을 드려야 했다(출 23:14).

2. ㉠ 아빔 월이란 어느 달을 가리키는가? (1a절)

㉠ (1) 아빔 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달이다(출 13:4).

(2) 이 아빔 월은 히브리 민간력으로 제 7월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이 달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달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의 첫째 달(1월)이 되게 하셨다(출 12:2).

(4) 그러므로 이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빔 월, 즉 히브리 민간력으로 제 7월을 1월로 말할 때, 이를 민간력과 구별하기 위하여 '종교력 제 1월'로 명명하였다.

(5) 그 후 민간력과 종교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병행되어 사용되었는데 일반 민간 사회에서는 기존 민간력을 사용하였으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는 종교력을 사용하였다.

(6)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관계되거나 절기의 문제 등에 있어서는 언제나 종교력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달[月] 이름들은 대부분 종교력이다.

(7)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달[月]의 이름이 바뀌어 아빔 월은 '니산 월'로 불리워졌다(느 2:1; 에 3:7).

(8) 오늘날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현대력(양력)으로는 아빔 월이 3-4월에 해당한다.

3. ㉠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아빔 월에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인 '아빔 월' 제 14일 저녁부터 지키게 되어 있다(출 12:6).

(2)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빔 월이 시작되면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이나 염소를 눈여겨 보았다가 그 달 10일에 취하여 14일까지 구별해 둔다(출 12:3-6).

(3) 이처럼 미리 구별해 놓은 어린 양이나 염소는 14일 저녁에 잡게 되는데 이로써 유월절 축제가 시작된다(출 12:6-14).

(4) 이와 같은 유월절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를 '무교절'이라고도 한다(출 12:15-17).

(5)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간에는 이러한 유월절 축제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그 기분이 남아 있었으므로 결국 유월절은 아빔 월 한 달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 축제와 같았다.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로 '아빔 월을 지켜...유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4. ㉠ 하나님께서 아빔 월 '밤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b절)

㉠ (1)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중에 인도해 내셨다는 뜻이 아니다.

(2) 본절의 '밤에'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리신 결정적인 재앙(출 11:1-7; 12:29-33)이 유월절 밤에 있었으며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5. ㉠ 유월절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가? (2절)

㉠ (1) 출애굽 당시의 최초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지켰다(출 12:21-23).

(2)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중앙 성소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되었다(5, 6절).

(3) 이와 같은 차이점이 곧 본서에 재해석되어 있는 율법의 특징이며 또한 성경상에 나타난 '구속사적(救贖史的) 발전'의 한 단면인 것이다.

6. **㉠**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만든, 즉 발효시켜 만든 빵이지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단단한 빵이다.
- (2) 그런데 유월절에 이와 같은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과거 400여 년간 애굽에서 가장 쓰라린 노예 생활을 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 (3) 둘째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을 떠나 오느라고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빵) 반죽을 옷에 싸서 갖고 나온 사건(출 12:34)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 (4)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저녁에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그들은 이를 '고난의 떡(빵)'이라고 부른다.
- (5) 그런데 '누룩'은 종종 성경에서 인간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죄악'을 상징하고 있다(마 16:6, 11, 12; 막 8:15; 눅 12:1; 고전 5:8).
- (6)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빵)'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생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전 5:7).
7. **㉠** 유월절 밤에 제사드린 고기는 어떻게 하였는가? (4절)
- ㉠** (1)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출 12:8).
- (2) 그러나 이 고기는 유월절 저녁에 다 먹어야 했으며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없앴다(출 12:8, 9).
- (3)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8. **㉠** 유월절(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라 (6-8절).
- ㉠** (1) 팔레스틴 각 지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빏 월, 즉 유대 종교력 1월(민간력 제 7월) 제 10일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유월절 제물로 준비하여 14일까지 보존하였다.
- (2) 그리고 아빏 월 제 14일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에서 이미 구별해 놓았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고기를 일정한 장소(성소의 뜰)에서 구워 쓴 나물 및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
- (3)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아침, 즉 아빏 월 제 15일 아침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채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안식하였다(레 23:7).
- (4) 그 후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과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때 7일 동안 매일 수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 (5) 이처럼 무교병을 먹고 제사를 드리는 7일 동안을 '유교절'과 구별하여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무교절의 끝날, 즉 아빏 월 제 21일에는 유월절 첫날처럼 성회로 모여 모든 노동을 금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켰다.
9. **㉠** 유월절이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다(출 23:15).
- (2)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의 고난을 기억하고 해방의 기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 (3)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 얻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다.
- (4) 이것은 오늘날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적 의미와 연결된다(엡 2:1-5).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 (6) 결국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선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죄와 사람의 시험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데에 유월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참조, 히 9:14).

10. ㉠ 칠칠절을 계수함에 있어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본절에서 말하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은 보리의 첫 이삭 단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날, 즉 무교절의 둘째 날(아빏 월 16일)을 가리킨다(레 23:10, 11, 15).
- (2) 이날부터 7주간을 계산하여 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이다.
- (3) 이처럼 '칠칠절'이란 말은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즉 7일씩 7번을 계산한 날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

11. ㉠ 칠칠절은 대체로 1년 중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가? (9절)

- ㉠ (1) 칠칠절은 무교절로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이므로 이때는 유대 종교력으로 3월 초순경이 된다.
- (2) 이는 곧 유대 민간력으로는 9월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력(양력)으로는 5.6월에 해당한다.
- (3) 그리고 유대력에선 이를 '시완 월'(에 8:9)이라고 부르는데 이달에 히브리인들은 밀을 거두어 들인다.

12. ㉠ 칠칠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9절)

- ㉠ (1) '칠칠절'이란 명칭은 무교절 다음날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 (2) 그런데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출 23:16; 34:22).
- (3) 그밖에도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인데 이는 무교절 다음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특히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 있어서 성령 강림이 이날에 있었다(행 2:1-4).

13. ㉠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10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을 성회와 거룩한 안식일로 지켰다(레 23:15-21).
- (2) 이날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즉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다.
- (3) 특히 이날에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소위 중앙 성소)에서 함께 즐거워하였다.
- (4) 그러나 이들의 즐거움은 단순한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즐거움이었다.
- (5)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함께 즐거워한 것은 신약 시대에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같이 영적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행 16:34; 빌 4:4).

14. ㉠ 칠칠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칠칠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 (2)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지난 날 애굽에서의 처량한 노예 생활에 비하여 지금의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3)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중 노릇했음을 알아야 한다(롬 6:17).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와 영생의 축복을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사단의 유혹을 받아 다시금 죄의 중 노릇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롬 6:15-19).

15. **㉠**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가? (13절)

- ㉠** (1) 모든 추수, 즉 농작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킨다(출 23:16;34:22).
- (2) 보다 정확히 말해서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1주간 동안 지키게 된다. 이때는 히브리 민간력으로 1월인데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9,10월경에 해당된 것을 말한다.
- (3) 히브리어로는 이달을 '에다님 월' (왕상 8:2)이라고 불렀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디스리 월'로 명칭이 바뀌었다.

16. **㉠**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13-15절)

- ㉠** (1)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맨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되새기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새로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처하며 지키는 절기이다(레 23:42,43).
- (2) 그러므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웠다.
- (3) 또한 이 절기는 한 해의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 감사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수장절'으로도 불리웠다(출 23:16;34:22).

17. **㉠**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도표화하여 간략히 설명하라.

㉠

	유 월 절	칠 칠 절	초 막 절
다른 명칭	무 교 절	백 추 절 오 순 절	수 장 절 장 막 절
기 원	출애굽 사건을 기념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	광야 생활에 대한 기념과 1년간의 결실을 감사
히브리 종교력	1월 14-21일	3월 초 순 경	7월 15-21일
히브리 민간력	7월	9월	1월
현 대 양 력	3,4월	5,6월	9,10월
가나안식 명 칭	아빔 월 (출 13:4)	?	에다님 월 (왕상 8:2)
바벨론식 새 명칭	니산 월 (느 2:1;에 3:7)	시완 월 (에 8:9)	디스리 월
농사와의 관계	보리의 첫 이삭 수확	밀의 수확	모든 추수 완료 파종 시작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성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완전한 영광
신약 시대의 절기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추 감사절	추수 감사절

18. ㉠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6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년에 3번 단지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다.
- (2)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는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물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다.
- (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사 44:6).
- (4)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성소로 나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중속되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 (5)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정성스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참조, 골 3:15-17).

19. ㉠ 재판장과 유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8절)

- ㉠ (1) '재판장'은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 가운데서 최고 우두머리를 가리키며 '유사'는 서기관, 감독관, 관리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러므로 '재판장'과 '유사'는 당시 사법권과 행정권을 대표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리킨다.
- (3) 한편 이스라엘은 후일 본절(18절)에 의거하여 각 성읍마다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정(裁判廷)을 설치하였다.
- (4) 그리고 120세대 이상되는 성읍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법정(法廷)을 설치하였다.
- (5) 그러나 이 두 법정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었고 다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 (6) 예루살렘 공의회는 현직 대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議長)이었다.
- (7)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회는 A. 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존속하였는데 '산헤드린'(집회 장소)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8)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밤중에 불잡혀 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 주도록 판결을 받은 곳도 바로 이 '산헤드린' 재판정이었다(마 26:57-27:1; 막 14:43, 53, 55, 64; 눅 22:66-7:7).

20. ㉠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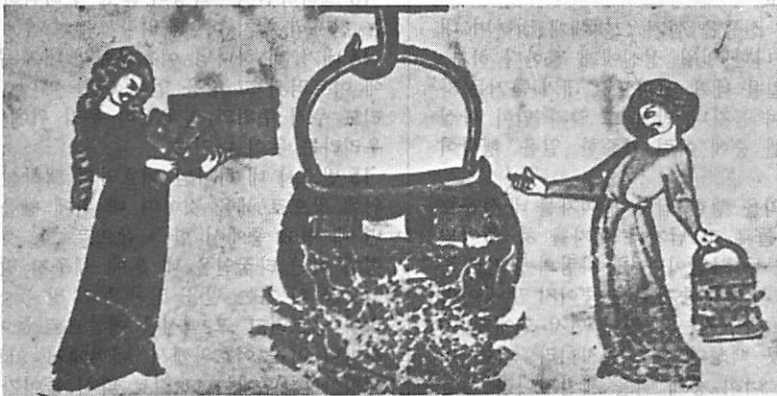
- ㉠ (1)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전 7:7).
- (2) 여기서 '어둡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와르>인데 이는 '눈을 멀게 하다', '장님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다.
- (3) 이는 곧 뇌물이 재판관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조차도 못 본 체 지나가 버리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 (4) 그리고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이다.
- (5) '굽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살라프>는 본래 '비틀다'라는 뜻인데 '뒤엎다', '넘어뜨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 (6) 이는 곧 뇌물이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증언마저도 왜곡시켜 결국 재판의 공정

성을 흔들어 놓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7) 이와 같은 뇌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서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27:25).

화보자료

유월절 식사. 아래의 사진은 라이프치히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4세기경의 그림으로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저녁에 양고기를 무교병(無酵餅) 및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다(출 12:8). 이처럼 유대인들이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은 곧 그들이 이전의 죄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쓴 나물을 먹는 것은 그들 또는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고생한 것(출 1:11-22)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성도들은 이전과 같은 죄악된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 17 장 재판 및 왕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 흠 없는 제물만 드려라 / 2-7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 규례 / 8-13 분쟁의 판결을 담당할 제사장과 재판관 / 14-15 왕을 세울 때에 준수할 주의 사항 / 16-20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지킬 일들

1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될이니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네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 혹은 그 일을 네게 고하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들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6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8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10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

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2 사람이 만일 천자히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들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편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정의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 ㉠ 본장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 (1) 본장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짐승들의 순결성과 완전성이 강조되었으며, 둘째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이 언급되어 있다.

(3) 셋째는 하급 법정으로부터 상급 법정에 이르는 상소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왕의 선택과 왕의 의무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참조, 18장 문 1).

(4) 이와 같이 신명기는 앞에서 언급된 율법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재해석과 확대 해석 그리고 보충된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2. **㉠**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가중한 일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먼저,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牛羊)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 가중하다는 뜻이다.

(2)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그 제물에 흠이 있다는 것은 흠 없고 티 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상반되기 때문이다(요 1:29; 뱀전 1:19).

(3) 그리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의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하나님께 가중하다는 뜻이다.

(4) 사람 사이에서도 선물은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으로 주는 법이거늘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중한 행위인 것이다(말 1:8).

(5) 오늘날 성도들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진리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나님께 각종 헌금과 십일조를 바치는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헌금이 흠 없고 순결한 예물이어야 함이 가장 중요하다(참조, 막 12:41-44).

(6) 자신의 땀 흘림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과연 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3. **㉠** 우상 숭배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2-7절)

㉠ (1)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숭배하는 자가 발견되면 그를 성문으로 끌어내었다.

(2)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의 여부(與否)를 조사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의 우상 숭배한 사실을 인정하면 그를 사형에 처한다.

(3)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은 무서운 범죄 행위로서 간주되어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당하였으나 우상 숭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재판 과정에서는 대단히 심사 숙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를 죽이거나 벌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분명히 입증한 후에 처벌하도록 규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보여 주고 있다.

(5)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증거 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의 원칙은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특별히 '여자'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1)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모든 일은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슨 일에 있어서든 여자는 그 배후에 가리워질 뿐이었다(참조, 마 14:21; 15:38).

(2) 이는 곧 인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자는 그 수효에서 제외된 사실만으로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민 1:45, 46; 26:50, 51).

(3) 그러나 우상 숭배 행위에 있어서만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다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가중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5) 칼빈(Calvin)은 본절에 대하여 '연약한 여성이라고 우상 숭배의 죄책(罪責)이 경감되거나 동정이 베풀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방해받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석(註釋)하였다.

(6)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는 비단 실제적으로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넓게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자는 곧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이다(마 10:37).

5. **㉠**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판단하심에 있어서 악한 행위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
- (2) 즉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행동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면 그것은 곧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됨을 의미한다(잠 12:15; 16:2).
- (3) 이처럼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과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인간이 제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하여도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참조, 막 7:1-13).

6. **㉠**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가? (3절)

- ㉠** (1) 일월 성신(日月星辰), 즉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 (2) 이것들이 인간의 눈에 신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3)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체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통하여 인간이 창조주인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 (4)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할 대개체가 오히려 인간의 숭배 대상으로 변한다면 이것은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행위가 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곳 원주민이나 다른 이방인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무서운 범죄 행위로 규정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임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7. **㉠** '자세히 사실하여 보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우상을 숭배한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사실 여부(與否)를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 (2) 공동 번역은 이 귀절을 '그것이 사실인지 들어보고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로 번역하고 있고, RSV는 '너는 부지런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로, NIV는 '너는 반드시 그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만 한다'로 번역하고 있다.
- (3) 이렇게 철저히 조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 (4) 첫째, 우상 숭배에 관한 소문이 들려 왔을 때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간과(看過)한다면 결국 우상 숭배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어 주위로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5) 둘째, 우상 숭배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처단해 버린다면 자칫 애매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 (6) 이처럼 성경은 우상 숭배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도 심각한 범죄인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중하고도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거기에 비례할 만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사실 확인과 증거 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8. **㉠** 우상 숭배의 혐의가 있는 자를 성문으로 끌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성문은 교대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일종의 공공 장소였으며 이곳에서 자주 재판이 열렸었다(21:19; 25:7; 창 23:10, 18; 룻 4:1, 11; 삼하 15:2; 19:8; 시 127:5; 잠 31:23).
- (2) 따라서 우상 숭배의 혐의가 있는 자를 성문으로 끌어냈다는 말은 그곳에서 재판을 열

- 어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인의 증언을 들어 사형 여부를 결정한 것을 뜻한다.
- (3) 이리하여 사형이 확정되면 그는 성문 밖으로 끌리어 가 사형대 위에 세워진다.
- (4) 그러면은 제일 먼저 증인들이 들을 들어 그 우상 승패자를 친 후 비로소 주위에 둘러서 있던 군중들이 함세하여 들을 던져 그를 죽인다.
- (5) 이처럼 들로써의 처형이 보편화된 이유는 팔레스틴에 들이 많기 때문이다.
- (6) 이와 같은 처형은 인간애(人間愛)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긴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참조, 출32:33).

9. ㉠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도 우상 승패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가? (6, 7절)

- ㉠ (1)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범죄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 (2) 이것은 무고(誣告)나 위증(僞證)으로 귀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제였다.
- (3) 특히 증인이 잘못 증거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되면 그 증인은 희생당자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했다(19:18).
- (4) 더우기 범죄자를 사형시킬 때 증인이 먼저 들을 들어 친 후 백성들이 그를 치는 것도 증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 준다.

10. ㉠ 성중에서 사건이 생겼으나 지방 재판정에서 판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였는가? (8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이나 성읍에는 7명 또는 23명의 재판장들(장로)로 구성된 재판정(裁判廷)이 있었는데 이 재판정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만 모이는 비상설(非常設) 재판 기구였다.
- (2)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지방 재판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거나 지방 재판정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재판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 (3) 이 경우에는 소위 중앙 성소에 있는 재판정에서 이 문제를 판결하였는데 그 누구든간에 이곳의 판결에는 절대로 복종하여야 했다.
- (4) 소위 중앙 성소에 있던 상급 법원과 같은 이러한 제도는 후대에 이르러 '산헤드린'이란 이름의 '예루살렘 공의회'로 발전되었다.
- (5) 이 산헤드린의 정원은 모두 71 명으로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여 24명의 제사장과 24명의 장로 그리고 22명의 학자(랍비)로 구성되어 있다(참조, 16장 ㉠ 19).
- (6) 한편 이 중앙 성소에 있는 재판정에서 내린 판결조차 순복(順服)하지 않는 자는 극형으로 다루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12절).

11. ㉠ '사람이 만일 천자(擅恣)히 하고'란 말에서 '천자히 하다'는 무슨 의미인가?(12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샤 베자돈)인데 이는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다(참조, 1장 ㉠ 22).
- (2) 즉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정의 판결에 복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간주되어 극형(사형)에 처하여졌다.
- (3) 왜냐하면 그 판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권위로 내려진 최종 판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판결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거부이다(참조, 민12:1-10).
- (4) 그러나 중앙 성소의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누구든간에 그 판결을 맹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의 교시(敎示)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優位)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자히' 행하는 자들이다.

12. ㉠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 (神政國家)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참조, 출 19:5, 6; 시 103:17-19).
- (3) 또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본받아 왕을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다.
- (4)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약 400년 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됨으로써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삼상 8:1-22).

13. ㉠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과 그 의미를 말하라 (15절).

- ㉠ (1)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부득이 왕을 세우려면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자라야 하였다.
- (2)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차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어야 한다 (삼상 10:24).
- (3) 이는 곧 사람의 뜻에 맞는 자가 왕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4) 둘째로 이스라엘의 12 지파에 속한 자라야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혈통주의나 민족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5)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하였다.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말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첫째 이유는 애굽과의 접촉을 금지시켜 애굽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을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 (2) 일반적으로 그 당시 좋은 말은 애굽에서 많이 났으므로 그와 같은 말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자연히 애굽과 교역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참조, 왕상 10:28, 29).
- (3)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애굽의 문물(文物)과 풍속이 전래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 (4) 두번째 이유는 왕의 오만(傲慢)과 자기 과신(過信)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 (5) 고대 팔레스틴에서 말은 군사력의 상징으로 말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를 갖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군사력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였다.
- (7)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고 힘이 강대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방지하신 것이다.
- (8)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와 둘째, 세상의 모든 속된 것에서 구별되는 자세이다 (참조, 롬 12:2).
- (9)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 그분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더욱 완전해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골 4:12).

15. ㉠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A** (1) 왕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살피는 국정(國政)보다도 개인의 향락에 더 몰두한다는 것을 뜻한다.
- (2)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린 자는 그 마음이 나뉘어서 무슨 일을 공명正大(公明正大)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 (3) 이는 솔로몬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가 말년에 국정을 그르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수많은 후비(后妃)와 첩들을 두었기 때문이었다(참조, 왕상 11:1-8).
- (4) 또한 근래까지만 하여도 왕정 국가의 왕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주변 국가의 많은 왕녀(王女)들을 후비로 맞아들이는 정략 결혼(政略結婚)을 행하였었다.
- (5) 솔로몬도 그의 통치 초기와는 달리 후대에 이르러선 이와 같은 결혼을 그의 정책으로 채택하였었다.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혼을 전면 금지하시고 제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을 때 그는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를 확립하셨기 때문이다(창 2:18-25).
- (7) 이는 또한 이스라엘의 국력 신장이 어떤 정치적인 술책 여하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대상 29:12).

16. C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A** (1) 이는 재물 축척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재물 축척에 있어서의 이기적인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 (2) 왕은 마땅히 백성들의 안녕(安寧)과 복지(福祉)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 (3) 그런데 왕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재물을 축척하려 할 때는 자연히 과중한 세금 부과나 압제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백성들은 궁핍과 도탄(塗炭)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참조, 왕상 12:4-15).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다.
- (5)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정당한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재물을 축척하는 것을 스스로 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정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향락과 사치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으로써 마땅히 교회에 봉사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는 데 힘써야 한다(참조, 딤후 6:17-19).

17. C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의 국가 통치 이념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18-20절)

- A**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여호와와의 율법의 모든 규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 (2)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의 사본을 만들어 그것을 언제나 자신의 곁에 두고 읽어야 했다.
- (3) 이는 곧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일군된 자로서의 왕은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시 1:2, 3)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며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였다(참조, 삼상 12:13-15).
- (5)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서 자신의 모든 생활 원리와 삶의 이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성경에 입각해야 한다(참조, 딤후 3:16, 17).

18. C 본절에서 말하는 '율법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8절)

- A (1) '율법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토라>로서 이는 '그 율법'이란 뜻이다.
 (2) 70인역(LXX)과 벌게이트(Vulgate)역에서는 이 말을 '신명기'(Deuteronomy)로 번역하고 있다.
 (3) 그러나 본질의 '율법서'라는 말이 꼭 '신명기'만을 가리킨다고 할 확고한 증거는 성경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 오경'(Pentateuch)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화보자료

화강암에 새겨진 함무라비 왕과 설형 문자.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비석과 더불어 바벨론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된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 율법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고대 근동의 생활과 윤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볼 때 법 제정의 정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즉 함무라비 법이 도덕적인 시민법에 국한된 것이라면 모세 법은 어디까지나 그 근본이 종교적이다(참조, 2-13절; 비교, 출23:9; 레19:34). 따라서 모세 법이 함무라비 법의 모방이라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18 장 미래의 선지자에 대한 예언

답학구분 1-8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이신 여호와 / 9-14 이방인의 가증한 증습을 버리라 / 15-19 장차 오실 선지자에게 순종하라 / 20-22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

1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었지니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할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3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뜯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6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 이르면

7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습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12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습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6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교훈한 율법 가운데서 지도자들에게 관한 규례(16:18; 18:22)의 마지막 부분이다.

(2) 즉 이미 언급된 재판장에 관한 규례(16:18-17:13)와 왕에 관한 규례(17:14-20)에 이어 본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선지자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다.

- (3) 한편 제사장과 왕이 사회적,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장에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레위인 포함)과 선지자들은 종교적, 교육적인 지도자들로 볼 수 있다.
- (4) 그런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으로서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3대 직분을 예표하는 것이다.
- (5)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의 '왕'으로서(시 45:1-17)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며, 또 그는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히 5:1-10) 자신의 몸을 세상의 대속물(代贖物)로 단번에 바쳐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실 것(마 21:11-17)을 미리 보여 주고 있다.

2. ㉠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이 귀절은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2)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의 두 부류로 구분되고 있다.
- (3) 또한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말도 곧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4) 단지 이 말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과 다른 일반 레위인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일 뿐이다(출 40:12-15; 레 1:5, 7, 8; 민 25:6-13).
- (5) 한편 '레위의 온 지파'라는 말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손을 의미한다.

3. ㉠ 레위 지파에게는 왜 분깃이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1, 2절)

- ㉠ (1)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전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수종드는 일에 전념하도록 특별히 선택되었다.
- (2)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준다해도 그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 (3) 이처럼 레위 지파 곧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4) 이는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생활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다.
- (5) 이와 같은 원리는 오늘날 복음 전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고 하셨다.

4. ㉠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지지 않은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는가? (1절)

- ㉠ (1) 여호와의 화제물(火祭物)과 그 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 (2) 여기서 '여호와의 화제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제단으로 가져 온 각종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난 후 남은 부분을 가리킨다(레 2:3, 10; 6:16-18; 7:7-9, 14, 30-36).
- (3) 그리고 '그 기업'이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와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곡식의 처음 익을 열매 등을 말한다(민 18:12-15).
- (4) 이처럼 레위 지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 화제물의 남은 부분과 백성들의 십일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잘 공제(供饋)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5. ㉠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을 음식'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 4절)

- ㉠ (1) 본절의 '음식' (應食)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 이는 '권리'라는 뜻이다.
 (2)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레 10:13-15; 22:7, 13; 민 18:8, 11, 19)에서는 '음식'이라는 말이 <호크>, 즉 '몫' (portion)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3) 그러므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이란 제사장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꼭 필요한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한편 본절에서는 제사장이 받을 음식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화제물의 남은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내려 주시는 '음식'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 전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에 합당한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참조, 마 10:10).
 (6) 그러나 비록 주의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음식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 본장의 6-8절 내용은 무엇에 관한 규례인가?

- ㉠ (1) 본래 자신이 거주하던 성읍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 즉 '중앙 성소'로 옮겨 온 레위인의 처우에 관한 규례이다.
 (2) 레위인들은 일부만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수 21:4-42) 48성읍(도피성 포함)에 흩어져 거주하게 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레위인들의 전국 분산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각지에서 종교적인 직무와 교육적인 직무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서 비롯된 듯하다.
 (4) 그러나 본절은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중앙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과 똑같은 '음식'을 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처럼 지방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에게 중앙 성소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이 규례는 중앙 성소의 제사장들이 지나치게 교권주의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선 어떠한 차별이나 등급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동등한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참조, 롬 12:4-8; 고전 12:12-31).

7. ㉠ 레위인들도 상속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8절)

- ㉠ (1)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경작할 토지는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은 기업으로 받았다(참조, 민 35:1-15; 수 21:1-42).
 (2) 레 25:32, 33에 의하면 레위인들도 이와 같은 성읍의 자기 가옥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다.
 (3) 이외에도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개인적인 수입을 소유할 수 있었다.
 (4) 한편 지방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 올라와 봉사하려 할 때는 이제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이나 다른 소유를 처분하게 된다.
 (5) 그러나 이때 그것들을 처분하고 받은 돈은 그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받게 될 '음식'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었다.

8. ㉠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들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9-14절).

- ㉠ (1)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것은 몰렉(Molech) 종교의 희생의

식(犧牲儀式)을 가리킨다(참조, 12장 ㉑ 19).

- (2) 복술자: '복술자'라는 히브리어는 <케셈>인데 이는 점(占)을 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길흉을 말하는 자: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오넨>은 '구름을 관측하는 자', '징조를 살피는 자'를 뜻한다. KJV에서는 이 말을 '때를 살피는 자'로 그리고 NIV에서는 '징조를 해석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다.
- (4) 요술하는 자, 무당: 2사람 모두 마술(magic)을 부리거나 주문을 외우는 자이다.
- (5) 진언자: 히브리어로는 <호베르 하베르>인데 이는 '주문(呪文)을 외우며 마법을 거는 자'를 의미한다.
- (6) 신접자: 점을 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의 영(靈)을 부르거나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서 물어 보는 자를 가리킨다.
- (7) 박수: '박수'는 본래 '남자 무당'이란 뜻이다. 그러나 본질의 '박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인테오니>는 '남자 무당'을 의미하지 않고 '점장이', '마술사'를 의미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 보는 자'로 번역하고 있다.
- (8) 초혼자: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도레쉬 엘 하메팀>인데 그 뜻은 '죽은 자들을 부르는 자'이다.

9. ㉑ 가나안 땅에서 그곳 원주민들이 쫓겨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9-12절)

- ㉑ (1) 가나안 거민이 쫓겨 나는 이유는 표면상으로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들이 쫓겨 나는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의 가증한 죄악, 즉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미신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32:16; 쥬 6:11-14).
- (4) 이리하여 가나안 거민들은 쫓겨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주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창 15:12-21)은 그 궁극적인 성취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 (5)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 이를 회개치 아니할 때, 언약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10. ㉒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㉒ (1) 여기서 '여호와 앞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임 예호와>이다.
- (2)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은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와 함께' 또는 '...에 의해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본질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완전해져야 한다' 또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완전해져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4) 이는 곧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록해져야 하지만(레 11:45) 결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 주셔야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레 20:8; 뵈 4:13).
- (5) 한편 우리의 궁극적인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갈 때에 이루어진다(참조, 히 10:10).
- (6) 여하튼 우리는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절제하고 구별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벧후 3:11, 12).

11. ㉓ 모세의 말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

리니' 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15절)

- Ⓐ (1) 이는 18절의 말과 동일한 내용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다.
- (2) 본절의 '네 형제 중에서'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좇아 나실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계(家系)에서 태어나셨다(마 1:1-16).
- (3)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의 참 중보자가 되실 것임을 가리킨다.
- (4) 이는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요, 참 선지자이며 거룩한 대제사장임을 드러낸다(히 9:11).
- (5) 이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라는 말은 모세에 의해 예표(豫表)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참조, 행 3:20-23; 7:37, 38).

12. Ⓒ '총회'의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16절)

- Ⓐ (1)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들려 주시던 바로 그날을 가리킨다(출 19:1, 7-19).
- (2)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날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후대의 오순절에 해당된다고 한다.
-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장 Ⓒ 17을 참조하라.

13. Ⓒ 선지자가 고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9절)

- Ⓐ (1)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참조, 18절).
- (2) 따라서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로 이는 철저한 책벌(責罰)을 받아야 한다.
- (3)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신 본절의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아노기 에드로쉬 메임모>로 나와 있다. 그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추적하고 찾아내어 그들의 행위를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말이다.
- (4) 이는 곧 인간이 저지른 어떠한 죄악, 즉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중에 행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묵과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거기에 상당한 보응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시 90:8; 전 12:14; 롬 2:16).
- (5)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선지자가 고하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불순종자에게 가해진다는 사실이다.
- (6) 그러므로 오늘날의 '복음(福音)의 사역자' 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여야지 스스로 그 말씀을 가감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다(참조, 계 22:18, 19).

14. Ⓒ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20-22절)

- Ⓐ (1)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말을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자이다. 여기서 '방자히'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지드>로서 '주제넘게', '무엄하게', '감히' 라는 뜻이다.
- (2) 그러나 이들의 말은 실제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 (3) 또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신비한 능력을 행하여 보이고 그가 하는 예언이 꼭 들어맞았다고 할지라도(참조, 13:1, 2)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 (4)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어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서며,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음을 받는 것을 방지하였다(출 20:7).

- (5) 성경은 말세가 가까와지면 질수록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더욱 많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마 24:15-28).
- (6) 그러므로 말세지말(末世之末)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바로 깨달음으로써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뵤전 5:8).

15. ㉞ 18, 19절에 나타난 선지자의 자격과 자세를 오늘날의 교역자들에게 적용시켜서 설명해 보라.

- ㉞ (1) 내가...선지자 하나를...일으키고 : 교역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이와 같은 진정한 소명 의식(召命意識)이 없는 자는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 (2) 그들을 위하여 :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통하여 오로지 성도들의 신앙적인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만 봉사하여야 한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바로 참 교역자이다(요 10:11-15).
- (3)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 교역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입에 가진 자라야 한다(갈 1:11, 12). 그렇지 못할 때에 교역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꾀변(詭辯)이 될 수밖에 없다.
- (4)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다 고하리라 :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야 한다. 교인들의 기호(嗜好)에 맞추거나 심지어 교인들에게 이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증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참조, 렘 1:7, 17).
- (5)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 마지막으로, 교역자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자료

절기. 영어로 절기를 나타내는 'feast' 라는 말은 사적인 잔치나 공적인 잔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자에 대하여는 <미쉬테>를, 후자에 대하여는 <모엘>과 <학>이란 두 원어를 각기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학>이라는 말은 3대 연중 순례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 '순례를 하다'를 의미하는데 순례에는 행진, 춤, 축제 그리고 때로는 음주가 포함된다. 그리고 <모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으로 지키기로 정한 모든 때를 의미하므로 주로 '정한 절기'(appointed time, appointed feasts)로 번역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학>도 포함하는 어휘이다. 이처럼 본장에 <모엘>과 <학>으로 언급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축제일)는 종교의 일부로 즐기는 잔치였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제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놀며 기념하는 것을 뜻한다(16:14; 삿 21:21; 시 42:4).

제 19 장 도피성 제도와 재판의 규례

당락구분 1-10 요단 서편의 세 도피성 / 11-13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 14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 15-21 재판의 규례와 증인의 자세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므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9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엿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나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지로 무함한 것이 판명 되거든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1. ㉠ 본장의 내용은 십계명 중 제 몇 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는가?

㉠ (1)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에 관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교훈하였다.

(2) 그러나 본장에서부터 25:19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생활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다.

(3) 특히 본장에서는 제 6계명과 관계되는 도피성 제도와 제 9계명과 관계되는 위증인(僞證人)에 관한 규례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만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윤리적인 의무도 함께 강조하신다.

2.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세 성읍을 구별하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본절에서 말하는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있는 3개의 도피성을 가리킨다.
 (2)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해 놓을 것을 명하셨다(민 35:10-15).
 (3) 그런데 이 6개의 성읍 중 3개는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가나안 땅에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민 35:14).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구별해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실 치사(過失致死)를 한 자가 그곳으로 피함으로써 잔인한 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 함이었다.
 (5) 한편 이는 원죄(原罪)와 자범죄(自犯罪)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롬 8:1, 2).

3. **㉠**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구별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는 곧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제도라는 의미이다.
 (2)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기치 못한 살인 사건에 휘말리어 어쩔 수 없이 도피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3) 또한 이 말은 도피성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4) 만약 살인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과실 치사자에게까지 적용된다면 이스라엘 사회는 보복에 보복을 가하는 끊임없는 살인 행위가 발생되어 결국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5) 바로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이는 결국 과실 치사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겔 18:32).

4. **㉠** 가나안 땅의 세 도피성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3절)

- ㉠** (1) 가나안 땅의 전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각 중심부에 도피성을 설정하였다.
 (2) 그리고 도피성에 이르는 큰 도로를 만들어 어느 곳에서나 어려움 없이 재빨리 도피성에 이르도록 하였다.
 (3)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세 도피성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빨리 피신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과실 치사자가 그곳에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4)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 (主)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롬 10:8-10).

5. **㉠**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에 관하여 설명하라(3절).

- ㉠** (1)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우 평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다.
 (2)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로의 폭은 32규빗(약 14.6m) 이상의 꽤 넓은 도로이 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고속 도로(highway)에 해당한다.
 (3) 그리고 이 길에는 방향표를 세워서 과실 치사자가 이것을 보고 재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하도록 하였다.
 (4) 이 방향 표시판에는 <미클라트 미클라트>, 즉 '도피성·도피성'이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5) 또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매년 아달 월(종교력 12월, 민간력 6월) 15일에 사자(使者)를 파송하여 그 길을 보수하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개천의 다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6. ㉠ 도피성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4-6절)

㉠ (1) 아무런 원한이 없는 채 우연히 어떤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죽었을 경우이다(민 35:22).

(2) 그리고 무심코 무엇을 던졌는데 그만 누군가가 그것에 맞아 죽었을 경우이다(민 35:23).

(3) 또한 이웃과 함께 벌목(伐木)을 하던 중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나가 그 이웃을 죽였을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19:5).

(4) 이처럼 도피성에 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평소에 피살자에 대하여 어떠한 악의나 미움, 원망 등의 감정을 품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살인 사건에 한한다.

(5)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비록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다.

7. ㉠ 부지중(不知中)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생명이 보존되는가? (5절)

㉠ (1) 어떠한 악의(惡意)가 없이 실수나 부주의로 사람을 죽게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처소에 그대로 있으면 죽은 자의 가족이나 그의 친척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만다.

(2)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도피성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살인의 동기를 말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3) 이때 제사장은 그에게 도피성 안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여 살 수 있도록 해준다.

(4) 그러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도피성 안에서 연장하고 있는 것뿐이며 살인죄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 죽 남을 죽인 자는 그도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다만 그의 죽음이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

(6) 그러므로 그가 도피성에서 나와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를 죽인 자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민 35:27).

(7) 결국 그는 죽을 때까지 죄값을 치르며 자유를 빼앗긴 상태, 즉 도피성 안에서만 갇혀 살아야 했다.

(8) 그러나 당시 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 안의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으로 여겨져 그는 자유로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민 35:38).

(9) 즉 제사장의 죽음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죽어야만 할 죄책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 되었으므로 이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 흘리게 되며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赦)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창 9:6; 민 35:33).

(10) 이처럼 도피성으로 피한 부지중의 살인자가 죽음으로부터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대속(代贖)의 제도를 예표하고 있다.

8. ㉠ '보수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6절)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엘>로서 '복수자', '보복자' 또는 '보상자'란 뜻이다.

(2) 그러므로 '보수자'란 가족이나 친족의 복수를 해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피살자(被殺者)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복수자가 되어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 (4) 한편 공동 번역에는 '보수자' 라는 말을 '피살자에게 양값을 하여 줄 근친'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KJV와 RSV, NIV에는 '피의 보복자'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다.

9. ㉠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3 성읍 외에 또 다른 3개의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설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2) 만약 가나안에 있는 3개의 도피성 외에 또 다른 3개의 도피성을 설정한다면 요단 동편의 3개의 도피성과 더불어 도피성은 모두 9개가 된다.
 (3) 이렇게 되면 이는 6개의 도피성을 설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민 35:14).
 (4) 그러므로 본질의 '셋'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3개의 도피성을 설정한 것을 가리킨다(민 35:14; 수 4:41-43; 20:8).
 (5) 그리고 '세 성읍을 더하여'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도 3개의 도피성을 설정하라는 뜻이다.
 (6) 그러므로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땅에 3개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개로 모두 6개가 있을 뿐이다.(민 35:14).

10. ㉠ 무죄한 피를 흘린 자, 즉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공흘히 여기지 말라는 까닭은 무엇인가? (11-13절)

- ㉠ (1) 도피성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위한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그러므로 만일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해 버리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성읍의 장로들이 도피성으로 사람을 파송하여 살인자를 체포하게 되어 있다.
 (3)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흘을 핑계삼아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성경은 진리를 알고서도 계속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밝히 말하고 있다(히 10:26).
 (5)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흘과 자비를 입은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롬 6:1).

11. ㉠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선인(先人)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 본질은 제 8계명과 제 10계명에 관계되는 규례이다.
 (2)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지파와 가족에 따라 가나안 땅을 소유 재산으로 분배받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경계표'를 세우게 되었다.
 (3)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이 '경계표'는 성경상에 지계표(地界表) 또는 지계(地界)라는 말로도 나타나며(27:17; 사 1:36; 잠 15:25; 호 5:10) 또한 잠 22:28에는 '지계석'(地界石)으로 언급되어 있다.
 (4) 그런데 이 '경계표'는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자기 땅을 넓히려는 욕심이 생길 때는 그 '경계표' 곧 '지계석'을 뽑아 먼 곳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5)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이웃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행위(제 8계명)임과 동시에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제 10계명) 범법(犯法) 행위이다.
 (6) 결국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근본 의미는 모든 계명의 최고법, 즉 '이웃 사랑'의 원리를 교훈한 것이다.

12. ㉠ 본질의 '선인' (先人)이란 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14절).

- ㉠ (1) 본질에 나오는 '선인'이라는 말을 놓고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서의 기록 연대를

가나안 정복 및 분할 사건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주장한다.

- (2) 이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토지 분배를 시작한 것은 여호수아 때(수 14장)이므로 본절에서 '선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본서의 저자는 분명히 여호수아보다 훨씬 이후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 (3)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본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참조, 1절).
- (4) 그러므로 본절의 '선인'이라는 말은 본서가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 (5) 결론적으로, 이상의 사실은 본서의 저자가 여호수아 이후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참조, 서론 Q 2, 3).

13. Q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에 있어서 반드시 2, 3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5-21절)

- A
- (1)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증인은 고발자와 증인의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 (2)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자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또 스스로 그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재판의 결과를 그릇되게 이끌고 갈 우려가 있는 것이다.
 - (3) 따라서 재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서로의 증언이 일치할 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꾀하여 무고(誣告)나 위증(僞證)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5) 이처럼 재판 제도에 있어서 2, 3명의 증인을 필요로 하고 거짓 증인을 가려내어 엄벌에 처하는 것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 9계명에 입각한 형법 규례이다(민 35:30).

14. Q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보복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A
- (1) 이러한 원리를 법적 용어로는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이라고 한다.
 - (2) 그러나 본절에 규정된 동해 보복의 원리는 결코 개인적인 복수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3) 이는 다만 재판과 형벌 원칙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 사회적 질서와 공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4) 즉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말은 비록 생명을 해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 이상을 그 값으로 지불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가해(加害)를 당하였다고 해서 그 가해자를 죽여 버린다거나 자신이 당한 피해 이상의 보복을 행한다면 이는 형평(衡平)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6) 그러므로 율법은 범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아울러 보복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해 보복법을 규정한 것이다.

제 20 장 전쟁에 대한 규율

단락구분 1-4 전투를 독려(督勵)하는 제사장의 말 / 5-9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 10-15 전쟁시에 먼저 화전을 제의하라 / 16-18 가나안 거민을 진멸시키라 / 19-20 전쟁시에 과수목(果樹木)을 보존하라

1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불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5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7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8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9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10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11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은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15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홉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 곧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18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19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래 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의 나무를 작별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야 할 전쟁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2) 비록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3)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이었으므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참조, 4절).

- (4)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지어 주신 것이다.
- (5) 한편 이상의 사실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보장되어 있으나(롬 8:17) 그들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딤후 6:12).

2. ㉠ 본장의 1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지쳐 있었으며 반면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높은 성과 요새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 (2)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기도 전에 겁을 내고 있었을 것이다.
- (3) 본절의 내용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의 군사 시설이나 무기 또는 그들의 힘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자신만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싸울 것을 격려하신 것이다.
- (5) 한편 이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만 전주어 세상을 쳐다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차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요 16:33).

3. ㉡ 이스라엘이 싸울 곳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으며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참조, 1:1, 5).
- (2)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했다.
- (3)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싸울 곳'이란 요단 강을 건너 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전쟁터를 말한다.
- (4) 요단 강을 건너 후 이스라엘이 최초로 싸웠던 전쟁터는 여리고이다(수 6장).
- (5) 여기서 이스라엘이 '싸울 곳'으로 가까이 나아간 것은 곧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스런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서이다.
- (6) 이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는 이후로 그를 위하여 하늘 나라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딤후 4:7, 8).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때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4절)

- ㉢ (1)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싸움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 (2) 특히 당대에 위용을 자랑하던 가나안 열국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 (3)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자로서 제사장이 임명되었다.
- (4) 그런데 본절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탈무드(Talmud)에 의하면 비느하스(민 31:6) 처럼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받은 자로서 제사직만을 수행하는 일반 제사장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5) 한편 이는 오늘날의 '군목 제도'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제사장이 군사들에게 격려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 말라'는 것이었다(참조, 수 10:25; 대하 32:7).

(6) 오늘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늘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는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계 17:14).

5. **㉠** '유사' (有司)는 어떠한 자들인가? (5절)

㉠ (1) '유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테르>인데 이는 '서기관', '감독관' 또는 '집행관'이란 뜻이다.

(2) 이 말이 70인역 (LXX)에서는 <그람마테이스>, 즉 '서기관적인 임무를 맡은 자'로 번역하고 있다.

(3)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유사'를 지파(支派)의 기록을 보관하는 자, 특히 수자적인 회무를 담당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Lange).

(4)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의 활동으로 보아 '유사'는 지파의 두령(1:15)이나 일종의 장로(21:1-10, 18-21)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6. **㉠** 이스라엘 백성들 중 군복무가 제외된 자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5-9절)

㉠ (1) 새 집을 건축하고서도 아직 낙성식, 즉 봉헌 의식을 하지 않은 채 싸움터에 나온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대신 낙성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군복무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재배한 자가 그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 채 징집당했을 경우, 그 소산을 타인이 취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는 군복무가 면제되었다.

(3)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 자는 징집에서 제외되었다.

(4) 결혼을 한 자에겐 1년 동안 군복무를 면제해 주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24:5).

(5) 또한 겁이 많은 자, 즉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 보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 이는 곧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참조, 사 7:2-8)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자는 전쟁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뜻하고 있다.

(7) 한편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더욱 힘써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참조, 고전 15:58).

7. **㉠** '낙성식'은 어떠한 의식이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1) '낙성식'이란 말은 <하나크>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뜻은 '줍히다', '봉헌하다', '연단하다'이다.

(2) 이 <하나크>라는 말은 제단 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민 7:10, 11, 88) 개인의 주택(20:5) 또는 하나님의 성전(왕상 8:63)을 건축한 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념예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3) 한편 이 <하나크>라는 말은 신약에서 <앵카이니조>라는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그 뜻은 '새롭게 하다', '먼저 드리다', '봉헌하다'이다(참조, 히 10:20).

(4) 결국 '낙성식'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대상 7:14; 사 66:2)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보여 주는 예식이다.

8. **㉠**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

- Ⓐ (1) '약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리쉬>, 즉 '결혼을 위해 약속하다'란 뜻이다.
- (2) 그러나 히브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혼 상태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할 수 없었다(참조, 마 1:18).
- (3) 그리고 약혼한 여자를 범하는 자에게는 단호한 벌을 내리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22:23, 25, 27, 28).
- (4) 이는 곧 혼인의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보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서 성도들은 혼인 생활에 있어서의 도덕적, 윤리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히 13:4a).
- (6)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같은 개방적인 성 윤리(性倫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다(히 13:4b).

9. ⓐ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엔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0-12절)

- Ⓐ (1) 적군에 대하여 화친(和親)을 제의하는 것이다.
- (2)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하의 전쟁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잔인한 행동과 피 흘리는 일을 삼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겔 18:23).
- (4) 한편 이러한 화친 제의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항복하는 자들에게서는 조공을 받고서 서로 평화를 누렸지만 이를 거절하는 자들은 무력으로 진멸을 당하였다.
- (5)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도 항상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사랑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참조, 민 21:4-9).
- (6) 이와 같은 화친의 제의 곧 '평화의 선언'은 오늘날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평화를 선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참조, 사 53:5; 눅 19:42).
- (7) 또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롬 12:18).
- (8)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림과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참조, 마 5:9; 롬 5:1).

10. ⓐ 본절에 언급되고 있는 '공'(貢)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11절).

- Ⓐ (1) '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스>는 '강제 노동 형태의 세금', '징수', '징용' 또는 '조공'이라는 의미인데 본래의 뜻은 사람을 기진 태진하게 만드는 '짐'이었다.
- (2) 이 '공'은 정복자가 전쟁 중에 강제로 취하는 전리품과는 구별된다.
- (3) 즉 이 '공'은 계약 관계를 통해 약소국(弱小國)이 강대국(強大國)에게 바치는 물건을 의미한다(참조, 왕상 5:7-12).
- (4) 한편 가나안 정복기(征服期)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크게 강화되던 시기와는 달리 그들의 부패가 극심하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봉신(封臣)의 위치에서 '공'을 바쳤었다(참조, 사 3:15-18; 왕하 12:18; 16:5-9).

11. ⓐ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은 어느 성읍들을 가리키는가? (15절)

- Ⓐ (1) 여기서 '네'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이 민족들'이란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킨다.

(2) 그러므로 본절이 가리키고 있는 상급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은 성읍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 만난 '성읍들'을 말한다(참조, 민 33장).

12. ㉠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적에게 화친을 제위하도록 되어 있는 규례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왜 적용이 되지 않았는가? (16-18절)

- ㉠ (1)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각 가지 극심한 죄악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멸망의 작정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9:4;5).
- (2) 특히 가나안 족속들은 가증한 우상 숭배에 몰두하던 자들이었으므로 만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우려가 있었다(참조, 8:25;18:10).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선 화친을 제의함이 없이 그들을 모조리 멸절시키라고 명하신 것이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그들의 죄악에 있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주시려고 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새 있지 아니함을 잘 보여 준다.

13.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때 베어서는 안 될 나무는 어떠한 것들이 가? (19,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때 과목(果木)이 아닌 나무는 베어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오직 과일 나무는 베지 말라고 명하셨다.
- (2) 왜냐하면 과일은 사람들의 음식으로서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1:29).
- (3) 이는 곧 생명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비롯된 규례로서 진노 중에서도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 주고 있다(참조, 합 3:2).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일 나무를 베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하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나타내려고 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 ㉠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신(神)들이 주는 의미를 요약하라(18절).

- ㉠ (1) 가나안 땅의 신들은 우상이나 이방 신앙 전체, 즉 이스라엘의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거짓 신들을 가리킨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B.C. 1406)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B.C. 6세기경)까지 구약의 전(全) 역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했으며 또한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 (3)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였다(참조, 왕상 14:6-13).
- (4) 특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혐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 (5) 한편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였다(롬 1:18-25).
- (6)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모든 정도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우상 숭배를 행할 수 있다. 즉 그(마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이외의 물질을, 정신적, 영적인 것들이 대신 차지잡고 있다면 이는 곧 우상 숭배인 것이다(참조, 마 10:37-39).

15. ㉠ '성읍을 치는 기구'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0절)

- ㉠ (1) 본절에서 말하는 '기구'는 히브리어로 (마초르)인데 이는 '에워싸는 어떤 것', '방벽',

‘포위’ 또는 ‘압박’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 고대인들은 요새화된 성읍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공성(攻城) 무기를 사용하였는데 본 절의 ‘성읍을 치는 기구’란 바로 이러한 공성 무기를 뜻한다.
- (3) 한편 출애굽 당시의 팔레스틴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들은 주요 성읍들을 건축할 때 성벽을 둘러 쌓고 탑과 성문을 만듦으로 요새화했다(참조, 3:5; 민 13:28).
- (4) 성경에 의하면 이와 같은 성읍을 치는 무기로는 창과 칼, 방패 이외에도 멀리서 쓸 수 있는 활과 물맷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삿 20:16).

연구자료

약혼의 의미

약혼은 혼인을 하기 전에 선행되는 당사자간의 약속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약혼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풍습이었으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 약혼 풍습은 존재했었다(참조, 창 24:67; 29:15-21). 인생의 동반자를 결정하는 결혼이라는 큰 일에 바로 들어가 기보다는 가치 있는 결혼 생활을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으며 구체적인 결혼 준비 기간을 갖추기 위한 약혼이란 인류가 공유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약혼의 성경적인 전형은 ‘이삭의 약혼’(창 24:50-67)과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참조, 마 1:18) 및 신명기 율법(20:7; 22:23-2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약혼을

- 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창 24:50, 51)
- ② 부모의 뜻이 존중되고(창 24:58, 67)
- ③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창 24:58, 67)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혼을 통해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성립되는데

- ④ 서로간에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22:23-27).

이러한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는 물론 사회까지 그들의 성스러운 결혼의 준비를 도와 주어야 한다(7절).

하나님 앞에 혼인을 서약하는 약혼은 파기되어서는 안 되며(참조, 삼하 18:17이하) 경우에 따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한다(마 1:18, 19).

영광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창세기 1:1-2:3의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2:4-2:25의 창조의 순서를 비교하여 보라. 창세기 2:4-2:25의 창조의 순서를 창세기 1:1-2:3의 창조의 순서와 비교하여 보라. 창세기 2:4-2:25의 창조의 순서를 창세기 1:1-2:3의 창조의 순서와 비교하여 보라.

제 21 장 사회적인 여러 법도와 규례

단락구분 1-9 살인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족속 규례 / 10-14 포로로 잡혀 온 여인들 아내로 취하는 규례 / 15-17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례 / 18-21 불효자에 대한 규례 / 22-23 사형당한 시체의 처리 규정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데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거든

2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짚 것이요

3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땅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4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길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곧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 자기들 설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6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10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 그를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마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일 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14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중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15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16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 만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들지 아니하거든

19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들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 아침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회적인 규

례가 언급되어 있다.

(2) 즉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神政國家)로서 하나님의 성결에 이르는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였다.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결에 이르는 법을 통하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간격 없는 교제가 계속되기를 원하셨다.

2. **㉠**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속죄 방법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1) 살인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즉 피 흘린 자에 대한 피 흘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다(참조, 창 9:6; 잠 1:11-19).

(2) 그런데 시체는 발견되었으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때 피살자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사는 장로들이 피 흘린 죄를 대속(代贖)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때 대속의 방법은 어린 암송아지에게 피 흘린 죄를 전가시켜서 그 송아지의 목을 격는 것이었다.

(5) 이와 같은 규례는 곧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는 성경 말씀과도 일치한다(히 9:22).

(6) 한편 무수한 범죄자들이 비록 세상 형벌은 교묘히 피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도 다시 찾아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전 3:15).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진실로써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참조, 고전 5:8).

3. **㉠** 무죄한 자의 피흘림에 대한 속죄로 희생된 암송아지는 무엇을 예표하는가? (3-6절)

㉠ (1) 살인자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암송아지는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멩에를 메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곧 흠이 없고 순결한 것을 의미한다.

(2) 또한 이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온전하고 흠 없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예표하기도 한다(요 1:29; 행 8:32).

(3) 즉 암송아지가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보상된 것이다(롬 3:25; 요 일 2:2).

(4)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훼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켰기 때문이다(참조, 히 10:12-14).

(5)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체를 '몸으로 산 제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롬 12:1).

(6) 이처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생활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윤리의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4. **㉠** 속죄물로 희생될 암송아지는 멩에를 메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1) '멩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도록 소나 말의 목 부분에 매는 '가로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떼 소나 말은 자유를 상실한 채 주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2) 이러한 상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을 당하며 자유 의지가 결여된 채 죄의 멩에 아래서 허덕이는 것을 연상시켜 준다(롬 6:15-20).

(3) 그러므로 명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흠이 없고 온전한(상태의 희생 제물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리고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음으로써 살인자의 죄가 용서되고 시체로 인한 부정(참조, 민 19:11)이 제거되는 것은 곧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을 의미한다.

(5) 결국 명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히 4:15).

(6)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은 참 자유자들이 되는 것이다(갈 5:1).

5. **㉠** 들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발견된 경우 그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구약 시대에 있어서 시체(주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시체를 만진 자나 곁에 있는 자도 의식적으로 부정함을 입었다(참조, 레 22:4, 5).

(2) 그러므로 들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이 가장 많은 '부정'(不淨)을 입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부정으로부터의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민 19:16-19).

(3) 이와 같이 정결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성읍의 장로들이 손수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곧 자신이 속한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성읍 사람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4) 한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겔 3:18).

6. **㉠** 속죄물로 희생될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에서 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팔레스타인에는 지형적으로 물이 흐르는 좁은 골짜기가 많이 있다(참조, 1:24; 2:24; 민 13:23; 수 13:16; 삼하 24:5; 왕하 3:16).

(2)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탄>인데 이는 '영원한'이라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물이 영원히 흐르는 곳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죽이는 이유는, 암송아지가 대신 담당한 죄악을 흐르는 물에 영원히 떠나 보내려는 의도에서였다.

(4) 한편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란 속죄 의식이 이행된 후에도 계속해서 살인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골짜기를 죽음의 땅으로 취급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 듯하다(참조, 행 1:19, 20).

7. **㉠**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살인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5절)

㉠ (1) '레위 자손 제사장'이란 레위의 세 자손인 고탓, 므라리, 게르손을 조상으로 한 세 가문 중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고탓 가문 출신을 말한다(출 13:2, 12; 22:29; 레 27:26).

(2)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장소에 참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그 자리에 임재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보존하며(출 28:38; 레 10:7; 민 18:1),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중재하기 위하여(말 2:4-9)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

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4)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를 하고 계신다(참조, 딤후 2:5).

(5)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이면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해결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마 11:28-30).

8. **㉠**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하여 속죄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후 범인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 모세의 율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그 범인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2) 일부 학자들은 일단 그 사건에 대한 죄책(罪責)이 암송아지에게 전가되었기에 더 이상 범인에게는 법적인 징벌을 가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한다.

(3) 그러나 이는 성경적 가르침과는 상반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이다(19:13).

(4) 또한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 의식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성읍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살인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었다.

(5) 그러므로 속죄 의식을 거행한 후라 할지라도 범인이 잡히면 그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9. **㉠**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1) 본질의 '속량하신'이란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구해 내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2) 그런데 '구해 내신'이란 말이 개역 성경의 '속량'보다는 의미 전달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

(3) 왜냐하면 본절에서의 '속량하였다'는 말은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4) 한편,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셨는데(출 11:13) 이는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성도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예표한다(히 9:12).

10. **㉠** '무죄한 자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절)

㉠ (1) '무죄한 자의 피'(innocent blood)란 피살된 사람의 죄없는 피를 가리킨다.

(2) 하나님은 19:10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경우 그 피의 대가가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3) 그런데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다(마 27:4, 24).

(4) 하지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라고 기도하셨으니 이는 차후에라도 누구든지 돌이켜 자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요 3:16).

11. **㉠**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중에 포로로 사로잡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10-14절)

㉠ (1) 가나안 여인 외에는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7:1-4).

(2)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외의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남자는 모두 죽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다 살려 두었다(20:13, 14).

(3) 이 경우 살아 남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중에 사랑스런 여자가 있으면 그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 (4) 그러나 그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는 먼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와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긴 후에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게 하였다.
- (5) 이와 같이 하여 여자의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된 후에야 비로소 남자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12. ㉠ 포로로 사로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여자의 머리를 깎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기는 것은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10-14절)

- ㉠ (1) 이러한 행위는 이방 여인의 삶의 위치와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이스라엘 남자들은 가나안 여인을 제외한(7:3,4) 다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방 여인들의 머리를 깎고 손톱을 베고 옷을 벗기는 것은 이방의 모든 생활 방식을 버리게 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이다.
- (3) 한편 제집에 살고 있던 아픔은 신앙의 개혁을 단행할 때 그 지방을 떠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라고 명하여 옛 관습들을 버리라는 상징적 의미의 명령을 내렸다(창35:2).
- (4) 이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어야만 한다(엡 4:22,23).

13. ㉠ '참 장자'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6절)

- ㉠ (1)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을 경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미움을 받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고 그 후에 사랑을 받는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다.
- (2)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낳은 두번째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비록 미움을 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장자로 삼아 기업을 줄 때 그에게 두 배를 주도록 명하셨다.
- (3) 그러므로 여기서 '참 장자'란 아버지의 핏줄을 받아 세상에 먼저 태어난 아들 곧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말한다.
- (4) 이는 결국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을 비롯하여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다(창14:19).
- (5)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결과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결코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 (6) 한편 본질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 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일부 다처 제도가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있던 상황에서 장자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는 대목일 뿐이다.
- (7)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어디까지나 일부 일처 제도이며(창2:18-25), 일부 다처 제도는 다만 완악한 인간들이 스스로 낸 제도에 불과하다(참조, 창4:19).

14. ㉠ 이스라엘 가정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를 어떻게 처벌하였는가? (18-21절)

- ㉠ (1) 이스라엘의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참조, 5:16).
- (2)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 (3)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 (4)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로 규정되어 성읍의 장로들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은 후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다.

- (5) 이처럼 부모에게 패역한 자는 한 가정의 자식이기 이전에 그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벌을 받았다.
- (6)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의 파괴와 자녀의 불순종 및 부모의 방탕적인 삶은 크나큰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결혼과 가정 제도의 파괴라는 점에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창6:1-7).
- (7)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
- (8)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의 가정에 있어서의 불화는 곧 하나님과의 불화를 의미하며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못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치 못함을 의미한다.
- (9) 성경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장수(長壽)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엡6:1-3).

15. ㉠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3 절)

- ㉠ (1)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사형 방법은 돌로 쳐죽이는 것이었다(21절; 13:10; 22:21).
 (2) 그러나 극악한 범죄자들을 죽일 때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참조, 수 8:29; 10:26).
 (3) 이 경우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해가 지기 전, 나무에서 내려야 했다.
 (4)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사람들간에 공포심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레 22:4-6; 민 6:11; 9:6).
 (5) 한편 예수의 시체도 이러한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해가 질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다(요 19:31-42).
 (6) 즉 예수는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형이 되신 것이다(갈 2:14).

16. ㉠ '밤새도록' 과 '당일' 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인가? (23 절)

- ㉠ (1) 히브리인들은 대개 '하루' (a day)의 시작을 '해가 지는 저녁'부터 계산하였다(참조, 창 1:5, 13, 19).
 (2) 그러므로 그들의 관념에 의하면 '완전한 하루'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다시금 해가 지는 저녁까지의 24시간을 의미한다.
 (3) 그런데 본절에서의 '당일'이라는 말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즉 하루의 낮 시간을 의미한다.
 (4) 또한 '밤새도록'이란 말은 해가 저서 해가 뜰 때까지, 즉 하루의 밤 시간을 의미한다.
 (5) 따라서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는 말은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날이 시작될 때까지 시체를 나무 위에 그냥 매달아 두지 말라는 뜻이다.

본장의 요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의
 중에서 제할지니라' (9절).

제 22 장 사회 생활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4 길 잃은 짐승과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라 / 5 남녀의 의복을 구별하라 / 6-7 어머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 / 8-12 건축과 농사 및 의복에 대한 규례 / 13-30 성(性)에 관한 사회 질서 및 윤리.

1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나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가 쉬우면 그에게 돌릴지니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라도 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6 노증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머니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머니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 어머니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 하리라

8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9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10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

11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2 입은 겹눈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13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적을 얻어 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

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께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21 처녀를 그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들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2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들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었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8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29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 라 그가 그 처녀를 육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

리지 못하리라

30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 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1. ㉠ 본장의 주된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사랑과 혼인에 대한 순결이 강조되어 있다.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순결이 유지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신앙과 순결을 교훈하셨다.
 (3) 한편 도덕적, 영적 순결이 깃뻛힌 현대인의 삶을 볼 때 본장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순결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처럼 들린다.

2. ㉠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 (1) 이는 혈연적인 형제나 친척, 또는 자기 이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2)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3) 곧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2절)이라는 말로써도 충분히 입증된다.
 (4) 한편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라는 점은 그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안목은 이보다 더 넓어야 한다.
 (5) 즉 신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어야 한다(참조, 눅 10:29-37).
 (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마 28:19,20).

3. ㉠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못 본 채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짐승이 주인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짐승을 붙잡아 주인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
 (2) 이것은 짐승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짐승을 잃고 걱정할 주인을 위한 것이다.
 (3) 결국 길 잃은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교훈하셨다(마 18:12-14).
 (4) 현대의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곧 주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다(참조, 마 25:31-46).

4. ㉠ 이웃의 나귀나 소가 넘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

- ㉠ (1) 넘어진 짐승의 주인을 도와서 그 짐승을 일으켜야 한다.
 (2) 이것은 넘어진 짐승 때문에 걱정하며 애태우는 이웃을 도와 그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 주는 곧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행위이다.
 (3) 그러므로 이는 결국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 주라는 규례가 아니라 넘어진 짐승을 일으켜 세워 주는 행위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신 여호와의 규례인 것이다.
 (4)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라고 말하였다(요일 4:20).

5. ㉠ 남녀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왜 여호와께 가증한 일인가? (5절)

- ㉠ (1)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녀의 옷이 서로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미는 옷의 모양이나 옷 입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다만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구별된 옷차림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다.
 (3) 그리고 이것은 남녀를 각기 구별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규례이다.

- (4)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형식적인 규례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이 규례의 근본적인 의미와 정신만은 여전히 존중하여야 한다.
- (5)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새 계명은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참조, 갈5:1).

6. **㉠** 본문 6, 7절에 규정된 율법을 설명하라.

- ㉠ (1)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심과 동정심을 갖도록 교훈하신 규례이다.
- (2) 즉 이 규례는 어미새에 대한 동정심과 아울러 자연계의 질서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자에 대한 무자비한 행위를 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참조, 14:21; 창32:11; 레22:27, 28; 호10:14).
- (3)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5계명을 지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을 역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출20:12).
- (4)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작아 보이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이를 잘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는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참조, 마5:19).

7. **㉠** 새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도록 요구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팔레스틴의 가옥은 지붕이 슬라브 형식으로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다.
- (2) 그리고 이 지붕은 취침이나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삼하11:2).
- (3) 그러나 지붕 위에서는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언제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령하셨다.
- (4) 이는 곧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목숨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5) 이처럼 가옥 하나에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므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 (6)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32:10).

8. **㉠**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그대로의 것과 다른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는 의미이다.
- (2) 이는 또한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 이방 종교의 규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 (3) 한편 오늘날 성도들이 불신자와 타협하는 것은 곧 영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
- (4) 성경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두움이 서로 사귀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서로 조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고후6:14-16).
- (5) 이처럼 성도들의 영적 순결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을 가리키며 이러한 삶은 고난을 통하여서 연마된다(참조, 딤후4:8).

9. **㉠**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소와 나귀는 팔레스틴에서 농사 지을 때 주로 사용하는 요긴한 짐승이다.
- (2) 그러나 이 두 짐승은 서로 보폭(步幅)과 쟁기를 끄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두 짝을 지워 쟁기를 끌게 하여야 한다.
- (3) 만약 소와 나귀를 나란히 세워 놓고 쟁기의 멍에를 매면 서로 균형을 잃게 되어 밭갈이를 할 수 없게 된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와 더불어 사 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 (5) 왜냐하면 소와 나귀의 보폭과 힘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사고와 행동 원칙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은 불신앙적인 생활이나 윤리, 철학에 동화 내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참조, 고전 6:14-16).

10. ㉠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붙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행위이다.
- (2) 왜냐하면 겉옷에 다는 술(tassel)은 한눈에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민 15:39, 40).
- (3) 후대 유대 풍습을 살펴보면 이 4귀의 술은 각각 8가닥의 실을 5개의 매듭으로 묶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13'이라는 수자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4) 그리고 각 문자마다 고유 수자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웃단'(민 15:38)을 뜻하는 <치치스>의 수치는 '600'이다.
- (5) 한편 모세 율법의 총 조항은 613항인데 공교롭게도 위의 '13'과 '600'이란 수의 합은 '613'이 된다.
- (6)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에 단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후일 바리새인들은 이 술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님으로써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공공연히 자랑하였다.
- (7)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형식적인 행위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이를 실천하는 일인 것이다(참조, 롬 2:13-15).

11. ㉠ **남편이 동침한 아내를 미워하여 버릴 수 있는가? (13-21절)**

- ㉠ (1) 아내가 결혼 전에 이미 순결을 잃었거나 결혼한 후에 부정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참조, 요 8:1-5).
- (2)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버릴 수 없다.
- (3) 만약에 남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침한 아내를 버리기 위해 무고(誣告)한 사실이 드러나면 남편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주어야 했으며 평생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장로들의 경고장을 받아야 했다.
- (4) 이와 같은 규제는 곧 부부간의 순결과 혼인의 순결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순결을 교훈하고 있다(참조, 사 61:10).

12. ㉠ **'처녀의 처녀인 표'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5-17절)**

- ㉠ (1) 히브리인들에게는 결혼 첫날밤에 '처녀의 표적'을 얻으려고 눕는 자리 위에 흰 옷을 까는 풍습이 있었다.
- (2) 여기서 '처녀의 표적'은 처녀가 최초의 성(性) 관계를 가짐으로 생기는 혈흔(血痕)이 묻은 옷을 말한다.
- (3) 이는 처녀성의 증명 수단으로 처녀의 부모는 그 '표적'을 잘 보관해 두어야 했다.

13. ㉠ **아내를 버리기 위해 무고(誣告)한 사람이 장로들의 판결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 아내는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했다. 이것이 주는 의미를 말하라 (19절).**

- ㉠ (1)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아내의 부정(不貞)을 알았을 경우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었다(참조, 24:1).
- (2) 그러나 아내의 무죄함이 밝혀졌을 때는 오히려 그 남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지불하여야 했는데 이는 그가 결혼을 위해서 처녀가 아버지에게 지불하여야 했던 돈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참조, 29절).

- (3) 그리고 그 남자는 평생 동안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 (4) 이러한 규례는 남성 우위적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의 지위를 보강해 준 규례이다.
- (5)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창 2:18; 고전 11:9)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고전 11:12)로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여야 한다 (엡 5:33).
- (6) 그러므로 본질의 규례는 지극히 성경적이고도 인도적(人道的)인 규례라 할 수 있다.

14. ㉠ 창기의 행동을 한 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21절)

- ㉠ (1) '창기의 행동을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나>인데 이는 곧 여자의 '간음 행위'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 <자나>라는 말은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성 행위를 하는 것 외에도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이다 (23:18; 출 34:16).
- (3)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 모든 경우의 불법적이고도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곧 죄악이다 (참조, 고전 5:1-3; 6:15-20).
- (4) 모세의 율법은 이처럼 다른 남자와 불법적으로 성 관계를 가진 여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다는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다.
- (5) 한편 오늘날 육체적 순결은 배제하고 정신적, 영적 순결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언어 도단(言語道斷)이며 어불 성설(語不成說)이다.
- (6) 육체적 순결이 무시되는 상태에서는 정신적 순결이나 영적인 순결이 보존될 수 없다.
- (7) 점차 성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성도들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순결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엡 5:1, 8).

15. ㉠ 유부녀(有夫女)와 통간한 남자가 있을 경우 그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 (22절)

- ㉠ (1) 어떤 남자가 남편 있는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을 경우 두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레 18:20; 요 8:3-11).
- (2) 이 경우 남자는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 여자를 범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며 여자는 또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혼인의 순결을 잃은 자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다.
- (3) 이처럼 유부녀와 한 남자와의 통간은 인륜적(人倫的)으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 제도의 순수성을 파괴한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다.
- (4) 또한 오늘날 성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성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 제도의 순결을 무시한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무서운 범죄 행위이다.
- (5)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러한 범죄자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참조, 골 3:5, 6).

16. ㉠ 약혼한 처녀가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통간했을 때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23, 24절)

- ㉠ (1)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처녀는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창 29:21; 마 1:20).
- (2) 따라서 처녀 때의 부정보다 약혼한 이후의 부정을 더욱 엄중하게 다스렸다 (28, 29절).
- (3) 그러므로 약혼한 처녀가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통간하는 것은 결혼의 순결을 파괴한 무서운 범죄자로 여겨져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 (4) 또한 약혼한 처녀를 범한 남자도 불법적인 성 관계자로 정죄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17. ㉠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 그 처벌 규정은 어떠했는가? (25-27절)

- ㉠ (1) 이 경우 성 범죄가 이루어진 장소가 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남자만 죽임을 당하였다.
 (2) 왜냐하면 약혼한 여자가 남자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들이기 때문에 성음에까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그 처녀는 강제로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죽음을 면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때로는 가혹하고 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 한 남자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결혼 전에 통간했을 때 그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 (28, 29절)

- ㉠ (1) 이 경우에는 둘 다 죽음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참조, 히 13:4).
 (2) 그리고 죽음이 면제된 두 남녀는 그 후에 반드시 합법적인 결혼을 해야 했다.
 (3) 이것은 그들의 결혼 전의 불법적인 성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앞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공활을 베풀어 앞으로는 성적 순결을 지키며 살도록 조처한 결과이다.

연구자료

결혼 지참금. 결혼식을 거행할 때 신부에게 주는 선물과는 달리 청혼한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을 히브리어로 <모하르>로 말해지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세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다(창34:12; 출22:16; 삼상18:25). <모하르>의 액수는 처녀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데에 따르는 경우도 있으며(12절) 또한 처녀의 가정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었다(삼상18:23). 처녀를 강간하여 강제적인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은 50세겔을 지불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29절). 이에 따라 우리는 일반적인 결혼 지참금이 은 50세겔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결혼 지참금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의 봉사료로 대치될 수 있었으며(창29:15-30) 다윗과 미갈의 결혼에서와 마찬가지로(삼상18:25) 일정한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결혼이 허락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신부의 가족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치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의무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일종의 매매 계약의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 지참금은 아내에 대하여 지불하는 구입 가격보다는 처녀의 가족에 대한 보상금의 의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제 23 장 여호와와의 총회와 일반 사회 규례

단락구분 1-8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 9-14 진중의 금기 사항 / 15-16 도주한 종을 보호하라 / 17-18 이스라엘 중에 창기와 남장을 없애라 / 19-20 동족에게 이자를 쥐하지 말라 / 21-23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 / 24-25 포도와 곡식을 취할 수 있는 범위

1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 사생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까지라도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 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들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7 너는 애دم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8 그들의 삼 대 후 자손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9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나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11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올 것이요

12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13 너의 기구에 작은 삼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불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시

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15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16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17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18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에 가져 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19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20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일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1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22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23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4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25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1. ㉠ 본장의 요지는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19:1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생활에 관한 율법이 계속되고 있다.

- (2)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과 영예(榮譽)의 보존에 관한 규례가 강조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성실한 삶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 (3) 결국 이스라엘 사회의 일반적 규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신실한 관계', 즉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나타나 있다.

2. ㉠ 신랑이 상한 자나 신(腎)을 빼인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원문은 '남성의 생식기가 터져서 상했거나 혹은 잘린 사람'을 의미한다.
- (2) 이렇게 남성을 상징하는 남자의 불알이나 성기에 이상이 생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 (3)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버린 것을 뜻하기도 한다(참조, 창 1:27; 3:19; 시 8:4, 5).
- (4)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러한 자가 '여호와와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16절)은 오늘날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다(요 4:24; 히 10:22).
- (5)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자신을 흠 없고 거룩한 자로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잠 4:23; 롬 12:1).

3. ㉠ '여호와와 총회'에 대하여 설명하라(1절).

- ㉠ (1) '여호와와 총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 또는 큰 행사로서의 공식적인 예배 의식을 가리킨다(참조, 9:10).
- (2) '여호와와 총회'는 가장 거룩해야 하며 온전한 백성만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다(참조, 출 19:10-15).
- (3)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자나 사생자, 모압과 암몬 족속 등은 공식적인 예배나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 (4) 이처럼 구약 시대에 여호와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택한 백성들의 성결을 강조한 것이다.

4. ㉠ 사생자(私生者)가 여호와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사생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맘제르>인데 속 9:6에는 이 말이 '잡족'(雜族)으로 번역되어 있다.
- (2) 그러나 본래 이 '사생자'는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성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자녀나 제 18장에 금지되어 있는 근친 상간(近親相姦)에 의해 태어난 자녀, 또는 음행의 자녀 등은 모두 사생자에 해당한다.
- (4) 이러한 자들은 10대까지, 즉 문자적인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 (5)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적 사생자, 즉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야 비로소 '영적 사생자'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참조, 엠 2:1-7).

5. ㉠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3-6절)

- ㉠ (1) 본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和親)의 대상으로 여겼던 민족들이다(2:9; 창 19:30-38).
- (2)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화친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었다(민 22:1-24).
- (3)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신정 국가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방

해하고 대적하였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한 범죄 행위였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영원히 여호와와 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
- (5)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계 20:9).

6. **㉠**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에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창 25:25).
- (2) 그러나 에돔 족속은 사실 모압이나 암몬 족속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을 박대하였었다.
- (3)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때 에돔 족속은 그 진로(進路)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의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았었다(민 20:14-21).
- (4)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에돔 족속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에돔 족속이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같은 혈족이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용서하도록 명령하셨다.
- (6) 결국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같은 혈족으로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 (7)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형제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실수가 드러날 때 이를 용서하고 잘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의(義)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롬 5:8).
- (8)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다(고전 12:27).

7. **㉠** 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가? (7절)

- ㉠** (1)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었다(참조, 창 15:13).
- (2) 특히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 직전의 몇 년 동안은 애굽인으로부터 무서운 학대를 받았었다(출 1:8-14).
- (3)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애굽인들이 요셉과 그 가족(야곱 가족)들을 선대(善待)한 사실을 들어서 애굽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창 42-47장).
- (5) 여기서 우리는 남의 잘못이나 나쁜 일을 기억하여 그를 미워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장점과 선한 일을 기억하여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 (6)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즉 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 줄 뿐만 아니라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선한 일을 기억하여 오히려 이를 칭찬하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

8. **㉠** 밤에 몽설(夢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밤에 몽설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믹케레 라멜라>인데 이를 직역하면 '밤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라는 말이 된다.
- (2) 그런데 70인역(LXX)에는 이 말이 '밤에 그의 유출(流出)로 인해'로 번역되어 있다.
- (3)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남자들이 성적인 꿈을 꾸든지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사정(射精)을 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4) 오늘날 이러한 일은 의학적으로 볼 때 인체에 아무런 해도 없으며 비위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남성의 생리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그러나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까닭은 의식법적인 차원에서이다.

(6)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과 같은 이유이다(14:3+21).

9. **㉠** 밤에 몽설한 자는 진 밖으로 나갔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1) 레 15:16에 의하면 정액의 유출로 인하여 부정해진 자는 반드시 목욕을 하여야 하는데 그리하고도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다.

(2) 그러므로 본질의 규례는 바로 레 15:16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여기서 밤에 몽설한 병사를 해가 질 때까지 병영 밖에 나가 있도록 한 조처는 군대의 병영에서 발생하는 의식법상의 부정에 관한 규례에 근거하고 있다.

(4) 이처럼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 몸을 성결케 하고 성적인 일들을 멀리하는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보편화된 현상이기도 하다.

10. **㉠** 이스라엘 백성이 대변(大便)을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갈 때 삼을 가지고 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13, 14절)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하였다.

(2) 특히 생리적인 배설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반드시 진 밖에서 일을 본 후 삼으로 그것을 덮어 외적인 더러움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3) 이와 같은 외적인 성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긍지를 나타냈으며 또한 야영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의식적, 자연적, 불결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진중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참조, 민 9:15-23).

11. **㉠** 본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陣中) 성결(聖潔)에 관한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9-14절)

㉠ (1)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 성결은 언제, 어떤 상황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2) 이는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시(戰時) 상황에서도 성도의 변할 수 없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다.

(3) 또한 진중 성결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다.

(4) 즉 눈앞에 보이는 적군과 싸우기에 앞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부정과 죄와 싸워야 한다는 점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외부적으로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에 대항하여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죄악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참조, 막 7:20-23).

(6) 즉 성도를 파멸시키는 원수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과 불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롬 1:28-32).

12. **㉠** '중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라'는 규례를 설명하라(15, 16절).

㉠ (1) 본질의 규례는 이방 족속의 노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쳐 왔을 때 그 처리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2)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인근의 이방 족속의 종들이 이스라엘로 도망쳐

을 때는 그를 받아들여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내용이다.

- (3) 그런데 이 경우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방 노예는 반드시 그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쳐 나온 자들에 한(限)하였다(Calvin, Matthew Henry, Dake).
- (4) 한편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일단 도망쳤다가 도로 주인에게 붙잡혀 온 노예는 사형에 처해지거나 두 발이 잘리는 중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5) 그러므로 도망쳐 온 노예를 주인에게 도로 돌려 보낸다는 것은 곧 이와 같은 벌을 받도록 방조하는 무자비한 행위인 것이다.
- (6) 아꼴든 형제의 위급함을 보고 도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된 자로서 행할 도리가 아니니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13. ㉠ 창기와 미동(美童)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17절)

- ㉠ (A) (1)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창기' 또는 '창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조나)인데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킨다(참조, 18절; 잠 29:3; 렘 16:33).
- (2) 그러나 본절에 언급된 '창기'라는 말은 (케데쉬)로서 주로 우상의 신전에 소속되어 거기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하는 창녀를 가리킨다(창 38:21).
- (3) 그리고 '미동'은 히브리어로 (카데쉬)인데 이는 곧 창녀처럼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 즉 '남창'(男娼)을 의미한다.
- (4) 개역 성경에서는 대개 '미동'이란 말을 '남색(男色)하는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왕상 14:24; 15:12; 22:46; 고전 6:9; 딤펢전 1:10).
- (5) 결국 창기와 미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순수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자들로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레 18:22; 20:13).

14. ㉡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A) (1) 여기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란 남창의 소득을 의미한다(NIV).
- (2) 이들이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이유는 목적은 좋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또한 만일 이들이 불법적인 성 행위를 통하여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음행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 (4) 또한 헌금은 그것을 바치는 성도의 정성과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고후 8:2).
- (5)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얻은 대가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고후 9:5-15).

15. ㉢ 성경상에는 사람을 개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간략히 분류하여 보라.

- ㉢ (A) (1) 사람을 경멸하는 비유적 표현: 삼상 17:43; 24:14; 삼하 3:8; 9:8; 16:9; 왕하 8:13; 시 59:6, 14
- (2) 동성 연애자에 대한 표현: 23:18
- (3) 미련한 자를 의미하는 표현: 잠 26:11
- (4) 다름을 간섭하는 자에 대한 표현: 잠 26:17
- (5) 타락한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 마 7:6
- (6) 배교자들을 지칭하는 표현: 벧후 2:20, 21
- (7) 버림받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표현: 계 22:15
- (8)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표현: 마 15:26, 27
- (9)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표현: 사 56:10, 11
- (10) 거짓 선생들을 지칭하는 표현: 빌 3:2

(1)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지칭하는 표현 : 시 22:16, 20

이상은 데이크(F. J. Dake)의 분류에 따른 구분이다.

16. **㉠** 형제에게 돈을 꾸어 줄 때 이식(利息)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이는 일종의 고리 대금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례이다(출22:35; 레 25:36, 37).
 (2) 즉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줄 때 이자(利子)를 요구하는 것은 곧 가난한 자의 생계를 압박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웃 사랑'의 정신에 어긋난다(참조, 약 3:15, 16).
 (3) 그러나 타국인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일종의 국제적인 상거래(商去來)였으므로 당연히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4) 한편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돈 거래가 부득이 발생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5) 또한 돈을 빌려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너무 늦게 갚는 일로 인하여 돈을 빌려 준 형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국 형제에게 돈을 꾸어 줄 때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와 교훈은 곧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17. **㉠** 여호와께 서원(誓願)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만약 갚기를 더디하면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23절)

- ㉠** (1) 본래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테트>인데 이 말은 '약속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나다르>에서 유래하였다.
 (2)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할 때 사용되었다(창 28:30; 레 27:2; 잠 31:2).
 (3)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억지로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약속과는 다르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기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참조, 전 5:4, 5).
 (5)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시 15:4).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올바른 신앙 자세이다.

18. **㉠**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따 먹거나 곡식 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 먹도록 허용한 규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24, 25절)

- ㉠** (1) 이 규례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규정 중의 하나이다.
 (2)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고아, 과부, 나그네 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며 또한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을 제정하셨다(참조, 15:1-5, 7-10, 18; 16:11, 14; 24:6, 10-22; 26:12-15).
 (3) 특히 가난한 자들이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으며 인간은 다만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여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욥 2:21).
 (4)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와 이웃과의 삶을 통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이 땅에는 의(義)가 이루어질 것이다.

19. **㉠**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는 것은 허용되나 그릇이나 낫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4, 25절)

- ㉠**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수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는 것은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2) 그러나 그릇이나 낫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린 배를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 아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반출(搬出)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 (3) 이와 같은 행위는 '구제'의 단계를 넘어선 일종의 절도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4) 한편 오늘날의 세대는 선(善)을 도리어 악(惡)으로 갚는 일이 비일 비재할 정도로 부도덕한데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마5:13-16).

화보자료

사막의 진(陣). 아래의 사진은 파리의 생에티엔느 뒤 몽 교회 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사막에서의 진을 나타내었다. 오른쪽 아래에 언약궤의 모습이 보인다.



진(陣)을 정결케 유지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진과 함께 계시기 때 문이었다(9-14절). 따라서 병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성 결과 품위를 갖추어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인 오늘날의 성도들(딤후2:2,3)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성결의 명령 인 것이다(롬13:12).

제 24 장 약자(弱者)를 위한 규례

단락구분 1-4 이혼에 대한 규정 / 5 신혼 남자의 짐집 면제 / 6 밧들을 전당 잡지 말라 / 7 유괴범은 죽이라 / 8-9 문둥병에 관한 규례 / 10-15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례 / 16-18 공의로운 송사(訟事) / 19-22 가난한 이웃의 생계 유지를 위한 규례

1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 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2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6 사람이 밧들의 전부나 그 뒷쪽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8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 하여 행하라

9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10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11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12 그가 가난한 자거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

지고 자지 말고

13 해질 때에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질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군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16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18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19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0 내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21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라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1. ㉠ 본장에서는 어떠한 규례에 관하여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가?

㉠ (1) 본장에는 19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생활에 관한 규례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 (2) 특히 본장에 언급된 규례들은 출 21-23장; 레 13, 19, 23장 그리고 본서의 20-22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의 반복이다.
- (3) 한 마디로 본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규례'라고 말할 수 있다.
- (4) 한편 규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전반에 걸쳐서도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등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참조, 출 22:22; 시 68:5; 렘 22:3; 약 1:27).
- (5) 결국 본장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 뿐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2. Q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무엇인가? (1절)

- A (1)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었다.
- (2)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히브리어로 (에르와트 다바르)인데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학자들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다.
- (3) 예수 당시 힐렐(Hillel) 학파는 이것을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마 19:3), 즉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4) 이와 반대로 그 당시 샴마이(Shammai) 학파는 이것을 '아내의 간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5)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이혼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으며(참조, 마 19:3-9) 또한 다른 남자와 간음한 여자는 사형을 당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22:13-21).
- (6) 아몽든 본절의 '수치되는 일'이란 남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적이고도 충분한 이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Q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한 번 결혼하였다가 이혼당한 여인은 몸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 있다.
- (2) 그런데 이혼 증서란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성문서(成文書)였다.
- (3) 또한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고려했던 것인 동시에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일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이다.
- (4) 한편 예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지 결코 이혼을 합법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9:3-11).

4. Q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어떠한가?

- A (1)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부부(夫婦)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로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마 19:6).
- (2) 또한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한 몸이 다시금 둘로 나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참조, 막 10:7, 8; 고전 6:16; 엡 5:31).
- (3)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4) 첫째, 음행하였을 때이다(마 5:32; 10:9); 음행을 한 자는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스스로 한 몸된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였으니(고전 6:18) 이혼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 (5) 둘째, 부부 중 한쪽이 불신자(不信者)로서 이혼을 요구해 올 때이다(고전 7:15). 그러

나 신앙 생활을 못하도록 꾀박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자녀들과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전 7:14, 16).

- (6) 세째, 강제로 내어 버림을 당하였을 때이다(마 19:9). 일방적으로 별거(別居)를 당하거나 아내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부양(扶養)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 오늘날 민법에도 '악의(惡意)의 유기(遺棄)'가 합법적인 이혼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5. **㉠** 이스라엘 백성간에는 재혼(再婚)한 여자가 다시 이혼했거나 후부(後夫)가 죽었을 경우 재차 전부(前夫)와 결혼할 수 없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 4절)

㉠ (1) 여기서 첫번째 남편을 가리키는 말(전부)과 두번째 남편을 가리키는 말(후부)은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동일하지 않다.

(2) 즉 전부(前夫)에 해당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을 지닌 <바알>인데 비해서 두번째 남편, 즉 후부(後夫)라는 말은 일반적인 '남자' 또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이쉬>이다.

(3) 이것으로 볼 때 첫번째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결혼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규례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두번째 결혼했을 경우 두 남녀의 관계는 처음 결혼한 때처럼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특히 모세의 율법에는 한 번 아내를 버린 남자는 그 여자, 즉 자신이 버렸던 여자를 다시금 아내로 맞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참조, 렘 3:1).

(5) 한편 이러한 규례는 이혼한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여 생활하게 되었으나 얼마 못가서 그 후처(後妻)가 전처(前妻)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첫번째 아내를 다시 원하는 것과 같은 경솔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6) 결국 이혼과 재혼에 관한 본규례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결혼 윤리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올바른 성 윤리를 확립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데 있다.

6. **㉠** 결혼하여 아내를 취한 남자는 결혼 후 얼마 동안 징집이나 기타 공무가 면제되었는가? (5절)

㉠ (1) 1년 동안이다.

(2) 만일 결혼하여 아직 신혼인 남자가 징집되어 가정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아내는 신랑의 신변 안전에 대한 염려와 또한 혼자 살아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3) 이것은 곧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큰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에 어긋나는 일이다(참조, 창 2:21-25).

(4) 따라서 결혼 생활의 신성함과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갓 결혼한 남자는 징집과 기타 모든 공무를 1년 동안 면제받았다.

7. **㉠** 갓 결혼한 남자에 관하여 징집과 기타 모든 공무를 1년 동안 면제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첫째는 신혼의 첫번째 해를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이다.

(2) 두번째는 1년이라는 기간이 신혼 가정을 이루어 첫 자녀를 출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3) 한편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남녀의 결합이 가졌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대(代)를 이을 자녀의 출산에 있었다(참조, 창 19:30-38).

- (4) 그리고 별다른 피임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신혼 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1년이라는 특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본질의 규례는 신혼 부부들로 하여금 첫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계(家系)의 계승과 유지를 보다 원활하게 해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8. **㉠** 이스라엘 사회에서 맷들을 전집(典執)하는 것은 곧 생명을 전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맷물에 갈아서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 (2) 따라서 맷들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생활 용품이었다(참조, 렘 25:10).
- (3) 따라서 이와 같은 맷들을 담보물로 저당잡는다는 것은 곧 한 가정의 식생활권(食生活權)을 송두리째 빼앗는 잔혹한 처사로서 곧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살인 행위와 같은 범죄로 여겨졌다.
- (4) 그러므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비록 금전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생활 필수품, 특히 의식주(衣食住)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물(擔保物)로 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9. **㉠** 사람을 후린 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를 반드시 죽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7절)

- ㉠** (1) 여기서 사람을 '후린 자'란 유괴범(誘拐犯)을 가리킨다.
- (2) 즉 사람을 유괴(誘拐)한 자는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로서 그의 행위는 살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 (3) 이처럼 유괴 행위는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말살시켜 버리는 살인 행위이므로 유괴범은 살인자와 같이 사형을 당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4) 현대 사회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유괴 행위는 마땅히 제거하여야 할 사회악이다.
- (5) 뿐만 아니라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 아래에 두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후리는 유괴와 동일한 범죄이다.
- (6)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자행(恣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계 20:12, 13).

10.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란 출애굽 2년 초, 하세롯(Hazereth)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던 사건을 가리킨다(민 12:1-16).
- (2) 그런데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기까지 하였으나 문둥병에 걸리자 7일 동안 진(陣) 밖에 갈혀 있어야 했다.
- (3) 이러한 사실을 보아 문둥병에 걸린 자는 신분의 귀천(貴賤), 지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제사장들이 가르친 규례(레 13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엄격히 격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민 12:14, 15).

11. **㉠** 이웃에게 물건이나 돈을 꾸어 줄 경우 꾸어 주는 자가 이웃의 물건을 담보(擔保)할 수 있는가? (10-13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에게서 이자(利子)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금품대여(金品貸與)에 대한 담보물은 요구할 수 있었다.
- (2) 그러나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물건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량에 맡겨야만 했다.

- (3)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 즉 멧들이나 잠잘 때 덮고 자는 겹옷(13, 17절) 그리고 매일의 품삯 등은 담보로 잡을 수 없었다.
- (4) 이는 결국 이웃과의 금전 거래나 기타 물품 거래에 있어서 먼저 이웃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19-21절).

12. ㉠ 품군의 품삯을 반드시 당일에 주어야 하는 규례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14, 15절)

- ㉠ (1) 여기서 '품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샤키프>인데 '고용된 사람' 또는 '급료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벌어 먹는 사람들로써 오늘날의 '날품팔이'(day labour) 혹은 '일용(日傭) 근로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참조, 렘 22:13).
- (3) 그러므로 기업주(채용한 사람)가 이러한 품군에게 당일의 노동 대가인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는 곧바로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품삯을 당일에 지불하도록 엄격히 명하신 것이다(마 20:8).
- (5) 만약 당일에 품군의 품삯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그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 범죄자로 취급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 (6) 또한 이에 대하여 신약에서도 '발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약 5:4)고 경고하고 있다.

13. ㉠ 14, 15절의 규례가 갖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 ㉠ (1) 오늘날의 기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훈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 (2) 기업주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박대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들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3) 비인격적인 처우나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 터무니없는 저임금(低賃金)이나 무리하고 과도한 근무 시간 등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 (4) 특히 기업주가 힘써야 할 점은 임금 체불의 방지이다. 왜냐하면 임금의 체불은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그 부양 가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14. ㉠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는 규례는 어떠한 의미인가? (16절)

- ㉠ (1) 이는 죄값의 지불에 관한 규례이다. 모든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참조, 겔 18:1-4, 19, 20).
- (2) 이러한 원칙은 형사 사건에서 강조되는 것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 (3) 분열 왕국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범인들을 처형할 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다. 이것은 바로 이 율법의 규례를 적용한 좋은 예(例)이다(참조, 왕하 12:20, 21; 14:5, 6).
- (4) 그런데 이와 같은 규례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족장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선 공동체적 책임감이 몹시 강조되다 보니 그것이 너무 지나쳐 자비와 관용이 메말라 버린 사회가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도와 주라고 명하신 규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객이나 고아,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자들이다.
- (2) 그러므로 이들은 종종 자기의 권리마저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참조, 사 1:23).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들을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아 보호해 주라고 명하시고 있다.
 - (4)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날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또한 압제받는 자로 생활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속량함을 받은 구속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한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후에 이를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도록 요구하신다(참조, 마 18:21-35).
 - (6)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참조, 빌 2:8).
 - (7)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준행하여야 할 것이다(마 19:19).
16. **㉠**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수할 때 수확의 일부를 밭이나 과수원에 일부러 남겨 두는 제도는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가? (19-22절)
- ㉠** (1)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의 규례이다(레 19:9, 10; 23:22).
- (2) 이러한 규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은 롯기서이다(룻 2:2-23).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규례 속에서 이웃에 대한 자비의 정신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 (4) 이런 '이웃에 대한 자비'는 본절에서 뿐만 아니라 본장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 (5) 한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모세 오경'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모세 오경은 다시 '신명기'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핵심은 '여호와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규례라고 말할 수 있다(6:5; 마 22:34-40).
- (6) 오늘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나 '동정심이 메마른 현상'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핵심에 역행하는 불신앙적 태도이다.
- (7) 하지만 세상이 점점 각박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이를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0-13).

본장의 요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 두라' (21절).



제 25 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규례들

단락구분 1-3 재판을 통한 태형(臺刑) 규례 / 4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 5-10 계대 결혼(繼代結婚)에 관한 규례 / 11-12 전박한 여인에 대한 징계 / 13-16 공정한 저울추와 되 / 17-19 아말렉을 도 말하라

1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옆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 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4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5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9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

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11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12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13 너는 주머니에 갈지 않은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 네 집에 갈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 오직 십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16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7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도 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1. ㉠ 본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 (1) 본장의 내용은 26:1-19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생활에 관한 율법의 마무리 부분이다.

(2) 그런데 본서의 규례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나 구체화 또는 확대, 발전된 것들인데 반해 본장에 언급된 규례들은 대부분 최초로 율법으로 성문화된 내용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참조, 룖 3:9; 4:10; 마 22:24; 막 12:19; 눅 20:28).

2. ㉠ 이스라엘 사회에서 태형(笞刑)의 규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형벌은 주로 사형(死刑), 태형(笞刑), 배상형(賠償刑)으로 구분되었다(22:18; 출 21:35; 22:19).
- (2) 이 가운데 사형에 못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40대 이하의 매를 때리는 태형(笞刑)을 가하였다.
- (3) 그런데 이 태형은 반드시 재판장의 입회하(立會下)에 집행되었으며 이렇게 태형을 가하는 것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서 개심(改心)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4) 그리고 율법은 태형을 가할 때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는 것을 엄히 금하였는데 이는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사람이 너무 심한 매를 맞아 불구의 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 (5) 한편 신약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40대에서 1대를 감한 39대의 매를 때렸는데 이는 곧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매를 5번이나 맞은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고후 11:24).
- (6) 또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에는 수석 재판관이 본서의 28:58, 59을 큰소리로 봉독하였으며 매질이 끝날 때에는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로 충만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참조, 시 78:38)는 글을 큰소리로 읽었다고 한다.

3. ㉠ 태형을 실행함에 있어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40대의 매를 때리지 않고 39대의 매를 때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 '40'이란 수자는 성경에서 종종 '시험', '연단',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창 7:12; 출 24:18; 민 13:25; 14:34; 마 4:2; 행 1:3).
- (2) 그러므로 40대의 매를 때린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한 '심판'을 뜻함과 동시에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연단의 방편'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태형을 집행할 때 일부러 40대에서 1대를 감한 39대의 매까지만 때렸다(고후 11:24).
- (4) 그 이유는 혹시라도 계수(計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40대의 매를 초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였다.
- (5)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율법의 외면적인 계율을 존중하는 것은 요구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 곧 내면적인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이다(참조, 요 8:1-11).

4. ㉠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규례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이 규례는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 (2) 이는 또한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인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적절한 대가(pay)는 물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 (3) 그리고 이 규례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치는 주의 사역자들이 성도들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 (4) 예수께서는 전도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전대에 돈이나 여행에 필요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교훈하셨다(마 10:9; 막 6:7-10; 눅 9:3-5).
- (5) 또한 사도 바울도 본질의 모세의 규례를 인용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생계에 필요한 일용품의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고전 9:9-13).

- (6) 그러나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러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濫用)하여 지나치게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거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당연한 권리로써만 취한다면 이는 곧 잘못된 태도일 것이다.
- (7)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자세야말로 복음 전하는 자가 취할 참된 태도라고 강조하였다(고전 9:12).
- (8) 따라서 주의 종들은 마땅히 언제나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서도 자신은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마 25:34-39; 눅 17:10).

5. **㉠** 계대 결혼(levirate marriage)의 목적은 무엇인가? (5-10절)

- ㉠** (1) 이스라엘 및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후사(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형수 또는 제수)를 다른 형제가 취하여 결혼하는 제도가 있었다.
- (2) 이러한 제도를 소위 계대 결혼(繼代結婚)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세 시대 훨씬 이전의 이스라엘 사회와 주변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었다.
- (3) 이처럼 옛부터 내려오는 계대 결혼 제도(창 38:7-11)는 모세 시대에 이르러 성문화(成文化)되었으며 그 후 이러한 규례는 엄격히 지켜졌다(룻 3:9; 4:10; 마 22:24).
- (4) 이러한 계대 결혼의 목적은 첫째로 죽은 형제의 대(代)를 이어 줄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그 가문(家門)과 기업(基業)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려는 데 있다.
- (5) 그리고 두번째 목적은 홀로 남게 된 미망인(未亡人)을 보살피기 위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에 있다.
- (6) 특히 이와 같은 계대 결혼과 유사한 형태의 관계로 인하여 다윗의 계열이 지속되고 이 계열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참조, 창 38장; 마 1:1-17).

6. **㉠** 형제가 아들은 없이 딸만 낳고 죽은 경우에도 계대 결혼을 하여야 하는가? (5절)

- ㉠** (1) 할 필요가 없다.
- (2) 왜냐하면 죽은 형제에게 딸이라도 있다면 민 27:4; 36:8의 규례에 따라 그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본질의 '아들이 없거든'이라는 말은 꼭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아들'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4) 죽 이 말은 아들과 딸을 막론하고 가문을 이어줄 후손이 아무도 없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7. **㉠** '성읍의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7-10절)

- ㉠** (1) '성문 장로' 또는 '성읍 장로'란 말은 이스라엘 각 성읍에서 개정(開廷)되는 법정(법정)의 재판관을 가리킨다(참조, 17장 **㉠** 10).
- (2) 이스라엘 사회 재판 제도는 각 성읍에서 열리는 일반 법정과 중앙 성소에서 열리는 고등 법정으로 구분된다.
- (3) 그런데 각 성읍에서 열리게 되는 일반 법정의 장소가 바로 마을 성문이었으며 그 법정의 재판관들이 마을의 장로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 (4) 이때 재판관의 수는 120 세대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는 7명으로, 120 세대 이상의 성읍에서는 23명으로 구성되었다.

8. **㉠** 만일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계대 결혼을 하여야 할 당사자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9, 10절)

- ㉠** (1)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미망인에 의해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되며 그는 장로들로부터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받는다.
- (2) 그러나 계대 결혼을 해야 할 당사자가 이를 끝까지 거부하면 그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

서 미망인에 의해 신발을 벗기우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한다.

- (3) 여기서 신발을 벗기우는 것은 그 남자가 더 이상 형제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다.
- (4) 또한 그가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미망인이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앞에서' 땅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유대인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Talmud).

9. ㉠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대 결혼의 예는 어떠한 것인가?

- ㉠ (1) 첫번째는 유다의 아들 오난과 다말 간의 관계이다(창 38:6-10).
- (2)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의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도록 명하였었다.
- (3) 그러나 오난은 그와 같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자손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는 땅에 설정(濫精)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임을 당하였다.
- (4) 두번째는 룯과 보아스 간의 제대 결혼이다(참조, 룯 2:1; 4:1-13).
- (5) 이처럼 룯과 보아스 간의 제대 결혼으로 인하여 출생한 아이가 오벳이니 그는 곧 다윗의 할아버지이다(룯 4:17; 마 1:5, 6).

10. ㉠ 남편을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음낭을 잡아당기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 손을 찍어버리는 중벌로 다스렸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자기 남편을 위기로부터 건져 내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남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여성으로서의 품위와 덕성을 팽개쳐 버린 행동이다.
- (2) 게다가 그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 남자에게 신체적으로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몰지각한 행동이다.
- (3)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여인에게는 그 손을 잘라 버리는 중벌을 가하였다.
- (4)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즉 성도들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덕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 (5)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
- (6) 한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4)고 권면하고 있다.

11. ㉠ 주머니 속에 크고 작은 2개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는 규례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13절)

- ㉠ (1) 여기서 '저울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벤>인데 '돌'이라는 뜻이다. 즉 히브리인들은 일정한 양의 무게를 비교할 때 돌로 만든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 (2)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두개의 추를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무게를 잴 때 그것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 (3) 즉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여 많은 양을 거두어 들이고 그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함으로써 2개의 저울추의 차액만큼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무서운 범죄로서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이다(잠 11:1).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직 정직과 공의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
- (7) 이와 같이 자신에게 진실하고 이웃에게 성실하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충실한 삶이야말로

로 성도의 가장 올바른 자세이다.

12. ㉠ ‘네 집에 같지 않은 되…말 것이요’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본절은 13절과 함께 히브리적 대귀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즉 ‘주머니’와 ‘집’ 그리고 ‘저울추’와 ‘되’가 서로 대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3) 따라서 서로 ‘같지 않은 되를 집에 두지 말라’는 말은 ‘주머니에 같지 않은 추를 넣고 다니지 말라는 말’과 같이 그것을 집에 보관해 두지도 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왜냐하면 집에다 그런 것들을 두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 5:22)고 권면함으로 써 처음부터 우리들이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배제토록 강조하고 있다.

13. ㉠ 아말렉 (Amalek) 족속은 어떠한 자들인가? (17-1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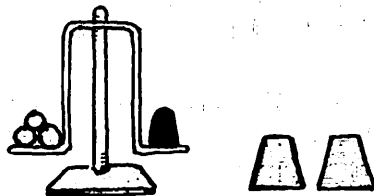
- ㉠ (1) ‘아말렉’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전사(戰士)’라는 뜻으로 추정되어진다.
- (2)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며 후일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강력한 족속을 이루었다 (참조, 창 36:12; 민 24:20).
- (3) 이들은 가나안 남방 땅에 거하면서 주로 애굽의 국경 지대와 시내 반도를 배회하며 약탈을 일삼았다 (참조, 민 13:29).
- (4) 그들은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혀 왔었는데 (참조, 출 17:8-16; 민 13:29; 14:25; 사 3:13; 6:3; 7:12; 삼상 30:1-6) 사울 왕 시대에 거의 멸절을 당하였다(삼상 15장).

14. ㉠ 아말렉이 도말(塗抹)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7-19절)

- ㉠ (1) 아말렉이 도말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 (2) 즉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도전하였다(출 17:8).
- (3) 이와 같은 아말렉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처사였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철저한 징벌을 명하신 것이다.
- (5) 한편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6)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에로 우리를 이끌며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참조, 딤후 1:13, 14).

본장의 요절

‘네 집에
같지 않은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4절).



제 26 장 첫 열매와 십일조에 관한 규례

단락구분 1-11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에 관한 규례 / 12-15 제3년에 드리는 십일조에 관한 규례 / 16-19 모세의 제 2 설교의 결론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팥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4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팥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5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증역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 이곳으로 인도하시니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 제 삼 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13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14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5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16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셨은즉

19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 (1) 본장은 4:44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율법, 즉 모세의 제 2 설교 마무리 부분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한편 본장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와 또한 제 3년의 십일조에 관한 규례이다.

(3) 결국 본장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제

3년의 십일조 규례와 그 용도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교훈하고 있다.

2. **㉠** 첫 열매(만물)를 여호와께 드리는 규례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1-11절)

- ㉠** (1)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모든 열매를 수확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었다.
- (2)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을 마친 후 그것의 일부를 정성껏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 (3)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만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다.
- (4)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② 이스라엘의 비천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③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와의 섭리를 찬양하며 ④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 등이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과 그 땅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들은 단지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다.
- (6)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 예물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신앙 고백'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조, 막 12:41-44).

3. **㉠**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 2절)

- ㉠** (1) 이 말이 1, 2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와의 섭리와 은혜의 결과임을 나타낸다.
-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결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창 13:14, 15).
- (3) 한편 성도들이 영적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롬 3:24).

4. **㉠**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곳은 어디인가? (2절)

- ㉠** (1)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중앙 성소'이다 (참조, 12장 ㉠ 7).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주할 당시 이방 족속들은 그들의 다신교적 예배 의식에 따라 예배 처소를 자주 바꾸었다.
- (3) 이러한 이방 예배 의식을 배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지정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셨다 (12:10-14).
- (4) 그런데 가나안 거주 초기에는 벧엘과 세겜의 중간 지점에 있던 실로 (Shiloh) (수 18:1; 삿 18:31)가 그리고 후기에는 예루살렘 (대하 3:1)이 '여호와와 택하신 곳'인 '중앙 성소'가 되었다.
- (5) 한편 '만물'이라는 말은 첫 열매 (first fruits)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소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킨다 (참조, 민 18:12, 13).
- (6)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수확을 마친 후 만물을 준비하여 '중앙 성소'에 가지고 가 제사장 앞에 두었으며 제사장은 이것을 다시금 여호와와 단 앞에 드렸다 (3, 4절).

5. **㉠**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란 말에서 '내 조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5절)

- ㉠** (1)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을 가리킨다.
- (2) 한편 아람 (Aram)은 셈의 다섯 아들 중의 한 사람으로 야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창 10:22, 23).

- (3) 왜냐하면 계보(系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셈의 또 다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예이기 때문이다(참조, 창11:10-26).
- (4) 그런데 본절에서 야곱을 '아람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가 20년간이나 아람 지방 곧 '밧단 아람'에서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기 때문이다(창28-31장).
6. **㉠** 고통과 신고(辛苦), 압제는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7절)
- ㉠** (1) 이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갖가지 고통을 묘사한 말이다(참조, 출1:8-22; 2:23; 3:7).
- (2) '고통'은 히브리어로 <오니>인데 이는 주로 '정신적인 고통, 고뇌'(affliction)를 뜻한다(KJV, RSV).
- (3) '신고'는 히브리어로 <아말>로서 대개 '육체적 노고'(toil)를 의미한다(RSV, NIV).
- (4) '압제'는 히브리어로 <라하츠>인데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생활의 권리가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 (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와 같은 고통을 돌아보시고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참조, 출12:31-51).
- (6) 이는 곧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사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과 같다(참조, 롬6:22).
- (7)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과 고통, 멸망을 초래하는 영원한 죄의 멍에를 짊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갈5:1).
7. **㉠** 첫 열매(밭물)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말하라(3-11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돌보아 주신 여호와와의 은혜에 대해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 (2) 또한 이때 행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였다.
- (3)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와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긴밀한 교제와 영적 관계를 나타낸다.
- (4)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요5:24).
- (5)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이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히13:15).
8. **㉠** '제 3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란 무엇을 뜻하는가? (12절)
- ㉠** (1) 여기서 제 3년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째 되는 해를 가리킨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년째 되는 해엔 매년 드리는 십일조 외에 또 다른 십일조를 취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 (3) 이처럼 매 3년마다 특별히 드리는 십일조는 가난한 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드려졌으며 이 경우 각 성읍에 그 십일조를 저축해 두었다.
- (4) 따라서 매년마다 드리는 십일조에 비하여 3년마다 드리는 이 십일조는 자칫 소홀해질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 해를 특별히 '십일조 드리는 해'로 정해 놓고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이 특별 십일조를 드리도록 강조하였다.
- (5) 한편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외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자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3:16-18).
9. **㉠** 본절에서 규정되어 있는 십일조에 관한 규례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라(12-14절).

- Ⓐ (1)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용도로 십일조를 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기업화(企業化)에 사용하고 있다.
- (2) 이러한 십일조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데, 즉 사회 봉사나 구제 활동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 (3) 또한 십일조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일조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4)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친히 십일조 제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마 23:23; 눅 11:42).
- (5) 그러므로 우리는 십일조를 비롯한 모든 수입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할 것이다(참조, 대상 29:11-14).
- (6)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헌금함에 있어서 너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 하였다(고후 9:7).

10. Ⓞ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2가지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 (2)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 (3) 본질의 '범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트>인데 '지나가다', '지나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참조, 함 1:11).
- (4) 또 한 가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형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다.
- (5) 분명히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경홀(輕忽)히 여기는 자요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자이다.
- (6) 아뭏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항상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6:6) 이를 행함에 있어서도 도가 지나쳐 외식적인 경향으로 흐를 위험을 배제해야 한다(참조, 눅 13:10-17).

11. Ⓞ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란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15절).

- Ⓐ (1) 일찍부터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여겼었다(참조, 창 28:17; 욥 22:12; 시 2:4; 115:3).
- (2)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하늘에 거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 (3)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시신 우리 아버지'(마 6:9)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기쁘고 평화로운 곳이며(눅 19:38) 창창 성도들이 기업으로 얻을 곳이기도 하다(벧전 1:4).
- (5) 그리고 본질의 '하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프>인데 이는 7절의 '하감하다'라는 말인 <라아>와는 다르다.
- (6) 왜냐하면 <라아>라는 말은 '보다', '주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일반적인 동사이지만 <샤카프>는 '은밀하게 지켜 보다'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 (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사 우리의 행위를 은밀히 지켜 보시고는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참조, 마 6:3, 4).

12. Ⓞ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16-19절)

- Ⓐ (1)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6:5).
- (2)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인간의 삶 가운데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귀한

- 일이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여호와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고전 7:32).
- (3) 이처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참조, 시 72:14; 116:15) 더욱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참조, 시 23:3).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시며(28:13) 지혜롭게 하신다(시 119:97-100).
- (5)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참조, 출 19:6; 벰전 2:9)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호위하여 주실 것이다(사 58:8).
- (6)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롬 14:8).

13. Q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A** (1)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보배로운 존재였으나(창 1:26-31)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여 본래의 영광스러움을 상실하였다(참조, 롬 3:23).
-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비교, 9:6).
- (3)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벰전 1:29)로 값 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보배롭다(참조, 행 20:28).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히 인정받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갈 5:22, 23; 벰후 1:4).

화보자료



(검은 옷을 입은 과부(寡婦)). 옆의 사진은 나이가 많은 과부의 모습으로서 그 표정에서 험난했던 인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고아와 과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먹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12절) '네이 옷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참조, 레 19:18).

제 27 장 요단을 건너 후 가나안에서 선포될 규례

단락구분 1-4 요단을 건너 후 에발 산에 돌비를 세우라 / 5-8 돌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라 / 9-10 여호와 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 11-13 그리스 산과 에발 산에서의 축복과 저주 / 14-26 에발 산에서 선포할 12 가지 저주의 규례

1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2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3 이미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라

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6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 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9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의 백성이 되었으니

10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 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1 모세가 당일 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12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스 산에 서고

13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

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14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중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16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 그 이웃의 지체표를 움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9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0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1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2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3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4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5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6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후 선포될 규례에 관한 것들이다.

- (2) 지금까지(1-26장)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지난 40여 년 간의 광야 생활을 상기시킨 후(1:6-4:43)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듭 강조하였다(4:44-26:19).
- (3) 그런데 본장에 와서 모세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지켜야 할 준비 의식(1-8절)을 설명하고 있다.
- (4) 또한 본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언약적인 관계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곧 '축복과 저주'라는 결과로써 선포되었다.

2. Q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일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2-4절)

- A**
- (1) 율법을 들에 새겨 에발 산에 세우는 것이었다.
 - (2)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교훈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졌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門楔柱)가 죽음으로부터 건져 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라면(출 12장) 본절의 돌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는 기념비(記念碑)라고 할 수 있다.
 - (3)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참조, 합 2:2).
 - (4) 또한 율법을 새긴 돌비가 저주의 표상인 '에발 산'(참조, 11장 Q 19)에 세워지는 것은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갈 3:10)
 - (5) 즉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며(롬 3:20), 우리로 하여금 죄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몽학 선생(蒙學先生)의 역할을 한다(갈 3:24).
 - (6)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며(롬 10:9-17) 그 말씀을 좇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빌 1:27).

3. Q 돌 위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2, 4절)

- A**
- (1) 돌에 글을 새기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새긴 글자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한편 고대 사회에서는 돌의 사용도가 매우 컸다. 때로는 경계(境界)의 표시로(창 31:43-55; 수 15:6; 삼하 20:8; 왕상 1:9), 때로는 획기적 사건에 대한 기념의 표시로(수 7:26; 8:29; 삼하 18:17) 그리고 증거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다(수 24:26, 27; 삼상 7:12).
 - (3) 특히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돌비를 세우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 (4) 그런데 석회는 내구성(耐久性)이 크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을 발라서 만든 돌비는 후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4. Q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라고 말하는 모세의 신앙은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3절)

- A**
- (1)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아니하시는 속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
 - (2)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
 - (3) 모세의 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큰 일을 수행하셨던 것이다(출 3:10).
 -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며,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약속을 지켜 나가신다(참조, 막 6:7-13).
 - (5)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명하신 약속

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신다(참조, 사 55:11).

5. **㉠** 에발 산에서 제단(祭壇)을 쌓으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5-7절)

- ㉠** (1) 저주의 산인 에발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곧 죄와 저주가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2) 그러므로 에발 산의 희생 제사는 갈보리 산, 즉 저주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의 대속 사역(代贖使役)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 (3) 또한 에발 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 (4) 왜냐하면 이는 곧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롬 12:1, 2).
- (5) 그리고 제단을 쌓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은 성도들이 가식(假飾)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즉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이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사 1:18)을 확신하고서 우리는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히 4:14-16).

6. **㉠** 제단, 즉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이는 곧 출 20:25의 규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선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정과 같은 철기는 곧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부정(不淨)한 일이다.
- (3) 한편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 제단을 쌓거나 신전을 건축할 때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사용함으로써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건물의 아름다움보다는(참조, 마 24:1, 2)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적 아름다움을 요구하신다(요 4:23).
- (5)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기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7. **㉠**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영적 의미를 주는가? (6, 7절)

- ㉠** (1) 우선 ‘번제’는 죄의 속죄 및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이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와 친교를 간구하는 제사이다(참조, 12장 **㉠** 11).
- (2) 또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선고받은 곳이다(참조, 7:23-26).
-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도전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였다.
- (4) 이러한 제사 행위는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 성격이 동일하니 항상 예배에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와 함께 감사와 경배의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다.

8. **㉠** 그리스 산과 에발 산은 어떤 곳인가? (12, 13절)

- ㉠** (1) 그리스 산과 에발 산은 모두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로 마주 보고 있다.
- (2) 비록 이 두 산은 평범한 산에 지나지 않지만 군사상, 경제상으로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

하고 있다.

- (3) 왜냐하면 이 두 산 사이로 요단 강 주변 지역과 지중해에 접한 해안 평야 지역을 연결 해 주는 중요한 교통로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그리스 산이 축복의 산으로 에발 산이 저주의 산으로 선정된 이유는 해가 뜨는 동쪽, 즉 요단 강과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바라볼 때 그리스 산은 오른쪽에 그리고 에발 산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 (5)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의 관념상 오른쪽은 '능력', '행운', '축복' 등을 상징하는 반면 (참조, 출 15:6; 전 10:2; 사 62:8) 왼쪽은 '우매', '저주', '불행' 등을 상징한다(참조, 전 10:2; 마 25:33).

(6) 이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장 ㉑ 19를 참조하라.

9. ㉑ 이스라엘 12지파 중 그리스 산에 서도록 되어 있는 지파와 에발 산에 서도록 되어 있는 지파는 각각 어느 지파들인가? (12, 13절)

- ㉑ (1) 그리스 산에는 시므온·레위·유다·잇사갈·요셉·베냐민 지파가, 에발 산에는 르우벤·갓·아셀·스블론·단·납달리 지파가 서도록 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일부 신학자들은 그리스 산에 서게 된 지파들은 모두 축복을 받은 자들이며, 에발 산에 서게 된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단정한다.
- (3)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단·아셀·납달리 지파가 에발 산에 서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의 저주를 받은 시므온·레위 지파가 그리스 산에 서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창 49장).
- (4) 그러므로 단지 축복의 산에 서게 된 지파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리고 저주의 산에 서게 된 자들은 율법에 거역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0. ㉒ 본질의 '레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㉒ (1) 9절에 나와 있는 '레위 제사장들'을 가리킨다.
- (2) 혹자는 본질의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레위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부당하다.
- (3) 왜냐하면 일반 레위 자손들은 이미 '그리스 산'에 서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2절) 본질에 나타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치는' 사역은 대체적으로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이다(참조, 출 32:5).

11. ㉓ 에발 산에서 선포된 12가지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15-26절)

- ㉓ (1) 여기서는 11장 29절과는 달리 오직 12가지 저주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는 곧 십계명을 적절히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아무리 은밀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히 4:13).
- (3) 그리고 죄가 밝혀진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히 9:27). 또한 사람의 범죄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날은 꼭 있을 것이다(롬 14:11, 12).
- (4)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저주의 죄목들에 대해서 다 순종을 하였다고 해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5)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이다(참조, 갈 3:10, 11).
- (6)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감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0, 21)고 고백할 수 있다.

12. **㉠**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아멘'의 의미는 무엇인가? (15-26절)
- ㉠** (1) '아멘' (amen)이라는 말은 본래 '건고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등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하였다.
- (2) 그런데 이 말이 문장이나 대화의 끝에서 사용될 때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또는 '과연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 (3) 본문에서도 '아멘'이란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니 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나 신앙 고백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과 같다.
- (4) 결국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다(대상 16:36; 롬 1:25; 계 22:20).
13. **㉠**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소경이 많았었다.
- (2) 즉 이들은 대부분 가난으로 인한 영양 실조,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고온 건조(高溫乾燥)한 기후 및 전쟁으로 인한 실명(失明) 등과 같이 후천적으로 불행을 당한 자들이었다.
- (3) 그런데 예로부터 이러한 소경을 일부러 괴롭히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본절이 의미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 (4) Living Bible은 본절을 '소경의 이(利)를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번역하였다.
- (5) 또한 레 19:14에서는 '너는...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 (6) 따라서 이는 소경과 같은 사람을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기에 급급하며 영적으로도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Matthew Henry).
- (7) 성경은 우리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롬 15:1).
14. **㉠** 본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 범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20-23절).
- ㉠** (1) 20, 22, 23절에 나타나 있는 근친 상간(近親相姦)의 죄는 이미 레 18, 20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이런 성 범죄는 그 당시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만연(蔓延)되어 있었다(참조, 레 18장).
- (3) 그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하여 그 음란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었다.
- (4) 이러한 근친 상간은 우생학적(優生學的) 폐단은 제외하고라도 우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간 사회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이다.
- (5) 그리고 21절에 나타나 있는 수음(獸淫)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엄한 인간(창 1:26, 27)이 스스로를 하등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극도로 타락한 소행이자 최악이다.
- (6) 성경은 이런 모든 성 범죄를 문란한 죄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참조, 레 18:23; 20:15, 16).
15. **㉠** 24절은 무엇에 관한 저주 조항인가?
- ㉠** (1) 이는 곧 십계명 중 제 6계명과 관계된 것이다(출 20:13).
- (2) 그러나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살인 행위보다는 감추어진 살인, 즉 '암살'에 관해 꾸짖고 있다.

- (3) 우선 '암살'은 상대방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살해하는 것이므로 비겁한 행위이고 또한 그 죄를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사악한 범죄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죄가 사람의 눈을 피해 합법적으로 자행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시 33:15; 130:3).
- (5) 한편 예수께서는 육체에 대한 살상 행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살인으로 간주하셨다(마 5:21-26).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여야 하는 것이다(롬 12:18).

16. **㉠**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26절)

- ㉠** (1) 여기서는 15-25절에서 언급된 율법 이외에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 (2) 그런데 본절의 '실행치 아니하는'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로 야킴>인데 이는 '확고한 행동으로 계속 지키지 못하는'이란 뜻이다.
- (3) 그러나 이 세상에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롬 3:10).
- (4)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갈 3:10)고 단언한 것이다.
- (5) 따라서 우리가 이미 선포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갈 3:11-14).

연구자료

저주의 실재성. 옛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내려지는 천벌이 바로 저주라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저주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기분에 따라 내려지는 신의 진노가 아니라 분명한 언약과 규례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다(참조, 15-26절; 28:16-19). 이에 따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참조, 창 4:11; 사 24:6; 렘 23:10; 단 9:11; 숙 5:3; 말 2: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범죄한 백성들에게 경고 하시기도 하였다(참조, 렘 24:9; 25:18; 42:18; 44:8; 49:13). 이러한 징계 조항이 있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남왕국의 요시야 왕은 제사장 힐기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두려워하며 불안을 느꼈던 것이다.

제 28 장 축복과 저주

단락구분 1-14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 / 15-68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

1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8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9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10 너를 여호와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이 하시며

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네 땅에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16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0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건축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21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23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낯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25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흠음을 당하고

26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27 여호와께서 애급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28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멀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29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험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0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31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 줄 자가 없을 것이며

32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 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네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33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34 이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35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중기로 발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36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적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37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렘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38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39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40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41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42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43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44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45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고 네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46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가 되리라

47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48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꺾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땅에를 네 목에 매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49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날음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50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51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52 그들이 네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53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54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55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56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57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니 이는 네 대적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58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랜 것이라

60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1 또 이 율법 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며

62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은 땅에

서 뺏힐 것이요

64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나와 네 열조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65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66 네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

이라

67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의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68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1. ㉠ 본장의 요지는 무엇인가?

- ㉠ (1) 전장과는 달리 본장에는 율법의 순종 여부(與否)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2)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 (3) 이는 곧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경우에만 참된 축복과 평안이 유지됨을 의미한다(엡 1:4, 5, 8, 13).

2. ㉡ 본장을 내용에 따라 두 부분으로 구분할 때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68절)

- ㉡ (1) 본장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축복과 저주'이다.
- (2) 즉 1-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경우 그들이 받을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
- (3) 그리고 15-68절에는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 받을 저주가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 (4) 이는 곧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축복과 저주 곧 물질적이며 가시적(可視的)인 것의 풍요로움과 빈곤을 대조시켜 보임으로써 그들의 내적,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 (5) 결국 본장은 후일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구원과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징벌을 예표하고 있다.

3. ㉢ 본장의 1-14절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간주할 때 시 119편은 내적이며 영적인 축복으로 볼 수 있다. 두 부분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의미를 비교해서 설명하라.

- ㉢ (1) 두 곳에 언급된 내용의 공통점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1, 2절; 시 119:1, 2).
- (2)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나 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3절; 시 119:45).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가정과 재산에 있어서도 축복을 받는다(4, 11절).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더 큰 축복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시 119:162).
- (4) 먹을 것이 풍부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수 있으나(5절) 참된 성도는 육신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시 119:13).
- (5)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음식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시 119:103).
- (6)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6절). 그것은 그가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다(시 119:97).

- (7)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는다. 그러므로 원수가 그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격퇴시켜 주실 것이며(7절), 궤방과 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시 119:22-24).
- (8)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업에 축복을 받는 것도 큰 축복이다(8, 12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말씀'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그의 기업이 된다(시 119:111).
- (9)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9절).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며 기뻐하게 된다(시 119:94).
- (1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명예를 누리게 되며(1, 10, 13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수치스러움이 사라진다(시 119:31).
- (11) 결국 본장 1-14절과 시 119편의 내용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 중의 가장 큰 축복임을 교훈하고 있다.

4. **Q**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A** (1)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2) 또한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적인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 (3)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흠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Q**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A** (1)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란 수자는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수이다.
- (2)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사역을 7일 만에 마치신 것(창 2:1-3)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하신 사실(마 18:21, 22)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 (3) 그러므로 '대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완전하게 패배하여 제각기 도망치는 것을 의미한다.
- (4)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됨을 보여 준다.

6. **Q**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寶庫)를 열으사...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라는 말을 설명하라(12절).

- A** (1)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공동번역은 이를 '당신의 풍성한 보물 창고인 하늘'로 번역하였다.
- (2)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비를 내리시고'라는 말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보고를 열어 비를 내려 주시므로 각 계절에 좋은 수확을 거두도록 해주겠다'(Living Bible)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그리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는 욥 2:23이 의미하고 있듯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7. **Q** 본장에 나타나 있는 저주의 특징과 그 의미를 말하라(15-68절).

- A** (1) 이 부분의 내용은 한 마디로 1-14절의 축복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특히 본절의 저주는 그 내용이 점진적으로 크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3) 즉 15-19절에는 일상 생활에서의 저주가 나타나 있는 반면 20-26절에는 그보다 더 큰

질병, 한재, 적군에게 패배 등이 언급되어 있다.

- (4) 그리고 27-37절에는 국내외적으로 닥칠 커다란 재앙이 언급되고 있으며 금기야 38-46절에는 산물(産物)의 저주와 국가의 멸망이, 또한 47-57절에는 빈곤과 적의 침입이 언급되고 있다.
- (5) 마지막으로 58-68절에는 이산(離散)과 멸망에 대한 예고가 나타나 있다.
- (6) 이처럼 본절에서 저주의 내용과 그 실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적 경향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함이지 결코 이러한 저주를 잔인하게 보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 (7) 다시 말하면 본문 가운데 점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저주는 형벌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 (8) 이처럼 '저주'의 조항에 있어서까지도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8. **㉠** 본장의 15-68절에 언급되어 있는 저주 내용과 마23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화(禍)의 선언'을 비교해 '저주'와 '화(禍)가 임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미를 설명하라.

- ㉡** (1) 본장과 마2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저주(화)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15, 45, 58, 62절; 마23:3, 13, 15, 16, 23, 25, 27, 29).
- (2) 특히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화가 임할 것으로 경고되었다 (마23:16, 24).
- (3)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히10:26, 27).
- (4)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도 저주를 불러 일으킨다 (20, 58절).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로서 저주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마23:15-36).
- (5)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나 헌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가증하여 저주를 야기(惹起)시킨다 (47절).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 (참조, 마23장)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샀으며 그 결과 그들은 무서운 화(禍)를 선언받았다.
- (6)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표면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judgment)와 인(mercy)과 신(faith)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23:23).

9. **㉠** '저주와 궁구(恐懼)와 견책'은 무엇을 뜻하는가? (20절)

- ㉡** (1) '저주'는 히브리어로 <메에라>인데 축복의 반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 (2) 그리고 '궁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후마>인데 '혼란', '소동', '파괴', '당혹' 등을 뜻한다 (참조, 7:23).
- (3) 그러므로 '커다란 두려움' 또는 '몹시 두려워함'이란 뜻인 한자(漢字) '궁구'는 원문과 약간의 어감적 차이가 있다.
- (4) 한편 '견책'은 히브리어로 <미기에레트>로서 '책망', '저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5)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10. **㉠** 본절에 나타나 있는 각종 질병과 재앙들을 간략히 설명하라 (21, 22절).

- ㉡** (1) 염병(染病)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베르>는 '흑사병' 또는 '악역'(惡疫, pes-

tilence)을 의미한다.

- (2) 폐병 (consumption): 몸의 기력을 약화시켜 사람을 여위게 하는 병으로서 '결핵' (tuberculosis)으로도 불리운다.
- (3) 열병 (fever) · 상한 (傷寒) · 학질 (瘧疾): 이 모두 심한 열을 발생시키는 염증 (inflammation)을 가리킨다.
- (4) 한재 (旱災):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레브>인데 '가뭄' 외에도 '칼', '예리한 도구' 따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심한 가뭄'을 뜻한다.
- (5) 풍재 (風災): 공동 번역에는 '열풍'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농작물을 시들게 하는 건조한 바람을 의미한다 (참조, 창41:23).
- (6) 썩는 재앙: 찬 이슬로 젖어 있는 잎사귀가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나 태양열로 인해 썩어 버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11. ㉠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낫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

- ㉠ (1) 이는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라붙는 극심한 가뭄을 의미한다 (참조, 레 26:19, 20).
- (2) 팔레스틴에서는 5-10월 사이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때에는 이따금씩 내리는 비와 이슬만이 식물에게 수분을 제공하는 공급원이 될 뿐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가뭄이 들게 되면 초목들은 말라 죽게 되고 땅은 메말라서 갈라지며 하늘은 달아오른 낫처럼 뜨거워진다.
- (4) 따라서 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수목 지대나 목초지에는 종종 자연적인 화재가 일어난다 (참조, 사5:24; 9:18).
- (5) 아뭏든 본절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할 자연적인 재앙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소산 (所産)이 없는 '저주의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참조, 학1:7-11).

12. ㉠ 본절의 '티끌'과 '모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4절)

- ㉠ (1) '티끌'과 '모래'는 황폐한 토양에 바람이 급히 불 때 일어나는 '흙먼지'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현상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계속될 때 종종 발생되는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눈병에 걸리는 수가 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티끌과 모래로 시달렸던 이스라엘이지만 자신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에게 다시금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13. ㉠ 본절에 언급된 메뚜기 재앙에 관하여 설명하라 (38절).

- ㉠ (1)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인데 거대한 무리를 형성한 채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농작물을 해치는 메뚜기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흔한 자연 재앙 중의 하나였는데 (참조, 출10:14, 15) 이것들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농작물은 물론 짐승과 사람까지도 살아 남지 못한다.
- (3) 그리고 이러한 메뚜기 떼를 막아낼 수 있는 방도는 달리 없으며 단지 바람을 타고서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뿐이었다.
- (4) 성경상에는 종종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와 연관되어 있다 (대하7:13; 시78:46; 105:34, 35; 욥1:4; 2:25).

14. ㉠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가 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6절)

- Ⓐ (1)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원래 '깃발', '신호'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말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사 19:20).
- (2) 한편 70인역(LXX)은 '표적'을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말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인 '이적'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한다(참조, 마 12:38).
- (3) 하지만 본질의 '표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관련된 것으로서 '경고'나 '교훈'을 의미한다.
- (4) 그리고 '감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페트>인데 '증표', '징조'를 의미하며 사실상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다.
- (5) 그러므로 본질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교훈이 되리라'는 뜻이다.
- (6)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라는 말은 '너희가 불순종하는 한 영원히'라는 의미이다.

15. ⓐ 이스라엘이 철명에 불복에 메이우고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48절)

- Ⓐ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겠다는 뜻이다.
- (2) 특히 본문과 렘 28:14을 비교해 볼 때 여기서 '대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한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패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다(참조, 대하 36장).
- (4)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롬 6:16)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5) 한편 성도들도 이전에는 죄의 종(롬 6:17, 20)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인이 되었다(갈 5:1a).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갈 5:1b).
- (7) 또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종'(딤후 1:1)이요, '그리스도의 종'(엡 6:6; 약 1:1)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

16. ⓐ 본절에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49, 50절)

- Ⓐ (1) 원방(遠方) 땅 끝에 거하는 민족으로 묘사되었다.
- (2)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지리에 어두웠기 때문에 지금의 중동 지방에 위치했던 앗수르나 바벨론은 '땅 끝'에 있는 나라로 여겨지기에 족했다.
- (3) 그리고 '독수리의 날음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민족으로 묘사되었다. 여기서 '독수리의 날음같이'라는 말은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라는 뜻이다.
- (4) 또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묘사되었다. 사실 히브리인들은 '셈어'를 사용하였는데 반해 바벨론인은 대개 '수메리아어'를 사용하였다.
- (5) 게다가 그들은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서 '용모가 흉악하다'는 것은 성질이 무척 사나움을 의미한다.
- (6) 이는 그들이 '유치(幼稚), 즉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사실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17. ⓐ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포위되고 또한 성벽이 무너져 망하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52절)

- Ⓐ (1) 이 예언은 B. C. 586년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함락되고 만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왕하 24:20-25:12; 대하 36:13-21).
- (2) 당시 유다 왕국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성읍과 성벽을 더 의지하고 이로써 적의 침

입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였었다(참조, 사 25:12; 렘 50:15).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결국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

(4)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부터 이탈해 세상 권세를 의지하며 개인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참조, 히 12:6).

18. **㉠**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뜻과 그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라(53-57절).

㉠ (1)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적의 침략을 받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자 자녀를 삶아 먹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러한 예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당시 성 안에 있던 자들이 자녀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왕하 6:24-33).

(3) 또한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도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었던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애 4:9, 10).

(4)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식인 행위(食人行爲)는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한 극히 야만적이고도 불신앙적인 행위였다.

(5)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적 통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시 49:20).

19. **㉠** ‘아침에는 저녁이 되는 것을, 저녁에는 아침이 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가? (67절)

㉠ (1) 누구든지 생활이 평안할 때에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빠르며 아쉽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2) 그러나 커다란 곤경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반하여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느린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3)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오직 시간만 가기를 고대하게 될 것이다(참조, 욥 7:3, 4).

(4) 본절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5) 한편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당하게 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20. **㉠**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관한 예언과 그 결과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58-68절)

㉠ (1) 이스라엘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2) 이 예언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지만 A. D. 70년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지게 됨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3) 결국 그들이 팔레스티ン으로 돌아와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기까지는 어언 2,00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4)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언제나 영육간의 축복을 가져 오지만 불순종은 항상 고통과 파멸, 죽음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시 89:19-51).

제 29 장 언약의 회상과 율법 순종에 대한 요구

단락구분 1-9 출애굽 사건과 언약에 대한 회고 / 10-15 언약의 대상 / 16-19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박해 지지 말 것 / 20-29 강박한 자에게 임할 여호와와의 진노

1 호렘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 하였느니라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5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7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0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12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16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17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장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18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 하여 짓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20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21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22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 시키는 질병을 보며

23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훼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24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25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27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

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 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29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1. ㉠ 본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출애굽 직후 호렘 산에서 맺었던 언약 곧 호렘 산 언약 외에 모압 평지에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2) 그러나 호렘 산에서 세워진 언약(출 19장)과 본장의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이다.
- (3) 다시 말하면 호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세대는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정탐군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 (4)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호렘 산 언약 당시 20세 미만이었거나 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로서 호렘 산 언약을 잘 모르거나 그 언약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 (5)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곳 모압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언약 곧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2. ㉡ ‘모압 땅에서 언약을 새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전에 호렘 산에서 맺었던 ‘호렘 산 언약(출 19, 20장)의 갱신’을 의미한다.
- (2) 그러나 여기서 언약의 갱신이란 호렘 산 언약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대상이 바뀐 것을 말한다(참조, ㉠ 1).
- (3) 그러므로 ‘모압 땅의 언약’은 ‘호렘 산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4) 한편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참조, 창 9:9; 17:4; 출 31:16; 대하 34:31; 렘 31:31). 그리고 이 언약적 관계는 오늘날에도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시키고 있다(참조, 마 26:28; 고전 11:25).
- (5)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참조, 마 26:18; 고후 6:2; 갈 4:4; 6:9).
- (6)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것은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점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 ‘호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절)

- ㉢ (1) 여기서 ‘언약 외에’라는 말은 호렘 산에서 맺은 언약 이외에 또 다른 언약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 (2) 즉 ‘언약 외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밀르바드 하베리트>인데 ‘...외에’라고 번역된 <밀르바드>는 ‘...에 덧붙여’ (in addition to) 또는 ‘...외에’ (besides)라는 뜻이 있다.
- (3) 그러므로 본문을 ‘그 언약 외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언약에 덧붙여’ (부가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다.
- (4) 이는 결국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언약은 호렘 산에서 맺은 언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호렘 산에서 이미 구세대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언

약에 덧붙이는 언약임을 가리킨다.(참조, ㉑ 2).

4. ㉑ 호렙 산에서 맺어진 언약과 모압 땅에서의 언약을 비교 설명하라(1절).

- ㉑ (1) 언약이 맺어진 시기: 호렙 산 언약은 출애굽 원년(제1년) 3월에 맺어졌고(출 19:1-24) 모압 땅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약 2달 전 B. C. 1407년 11월경에 맺어졌다(1:3; 수 4:19).
- (2) 언약이 맺어진 장소: 호렙 산 언약은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 산 기슭에서 이루어졌으며, 모압 땅에서의 언약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졌다.
- (3) 언약의 대상: 호렙 산 언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졌다고 기록되었으나(출 19:8; 20:18) 모압 땅 언약은 남녀 노소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 언약에 참가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10; 11절).
- (4) 언약의 내용: 실제적으로 내용상에는 두 언약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모압 땅 언약이 호렙 산 언약을 확인했다는 점과 또한 호렙 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소 구분이 된다.
- (5)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언약은 옛 언약(호렙 산 언약이나 모압 땅 언약)이나 새 언약에 있어서 그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한편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거쳐 내려온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 되었으며 이러한 '구속 계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옛 언약(출 19:5, 6)과 새 언약(히 8:10)의 끝자를 이루고 있다.

5. 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㉑ (1)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거나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의미한다.
- (2) 그러므로 모세는 호렙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대상으로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새 세대들에게 호렙 산의 언약을 재확인시키려고 그들을 소집한 것이다.

6. 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 ㉑ (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과거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 후에 광야 생활과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들려 주었다.
- (3) 모세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한 번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 (4)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 (5) 한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곧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요 3:16).

7. ㉑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4절)

- ㉑ (1) 이 말을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무지와 강박함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인 양 오해할 수 있다.
- (2) 그러나 그와 같은 이해는 '하나님을 죄의 근원으로 보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 (3)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목전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베푸셨지만(2, 3절)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서도 전혀 감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4) 그러므로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역설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한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참조, 엡 2:7, 8).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실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참조, 행 28:23-28).

8. ㉠ 본질의 기사(記事)는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가? (7, 8절)

㉠ (1) 에돔 광야에서의 불뱀 사건(민 21:1-9)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그곳 길목을 지키고 있던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사건을 가리킨다(2:26-3:17; 민 21:21-35).

(2) 이때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그들의 여러 성읍, 즉 헤스본(민 21:21-33) 및 요단 강 동부 지역(3:1-11; 민 21:33-35) 등을 상실하였다.

(3) 여기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이란 이들로부터 탈취하였던 땅 중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주었던 '길르앗 땅'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아르굽 땅'을 가리킨다(3:12, 13).

(4) 한편 당시 전역면에서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헤스본 및 바산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민 21:34).

(5)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전 15:57).

9. ㉠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효력이 있는가? (10-15절)

㉠ (1)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류 시조(始祖)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인류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2) 즉 이 언약은 남녀 노소, 신분, 계급, 종족, 민족, 나라 등과 같은 그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히 8:6) 구원받는 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례당이나 무할례당 그리고 야인(野人)이나 스쿠디아인 또는 종이냐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골 3:11)을 강조하였다(롬 4:23, 24).

10. ㉠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본문 중에서 찾아 보라(9, 13, 29절).

㉠ (1)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서이다(13절).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던 인간을 '왕과 백성'의 관계로 승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니 이는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요 1:12).

(3)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29절).

(4)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 1:15)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9절).

(6) 율법은 본래 인간을 저주의 율가미로 얽매려고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참조, 롬 2:18).

(7)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28:1-14; 시 128:1, 2).

11. ㉠ ‘독초’와 ‘쑥의 뿌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8절)

- ㉠ (1) ‘독초’와 ‘쑥의 뿌리’는 모두 독성이 매우 강하고 쓴 맛이 나는 식물이다.
 (2) 그런데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멀리 떠난 강박한 자들을 의미한다(호10:4; 히12:15).
 (3) 또한 ‘독초’와 ‘쑥의 뿌리’같은 마음은 군중들 가운데 빠른 속도로 증식되므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
 (4) 한편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독초’와 ‘쑥의 뿌리’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5)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이 발견되면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박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히3:12,13).

12. ㉠ 본절에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 (1) 여기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다.
 (2) 혹자는 주장하기를 ‘젖은 것’이란 곧 ‘우상 숭배나 정욕에 흠뻑 빠진 자’를 의미하며, ‘마른 것’이란 끊임없이 ‘우상 숭배나 정욕을 갈망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3)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들을 각각 ‘물이 쿵쿵 솟는 동산’과 ‘메마른 사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너무 문자 하나하나에 치우쳐 있는 여자적(如字的) 해석으로 볼 수 있다.
 (5)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에 의거하여 볼 때 ‘젖은 것’과 ‘마른 것’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6) 그러므로 본절은 저주가 임박하여 ‘모든 것’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평안한 체하는 자들의 강박함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참조, 렘6:14; 8:11).

13. ㉠ ‘여호와께서 이런 자를 사(赦)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와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붓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와 교훈을 말하라 (20절)

- ㉠ (1) 본문에서 ‘이런 자’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말한다.
 (2) 특히 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일을 꾀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징벌하시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참조, 민11:1-3; 16:1-35; 히10:26).
 (4) 한편 하나님의 진노는 다만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또 무서운 파멸로 나타난다(참조, 레10:1, 2).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적인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당신의 공의(公義)를 나타내신다(참조, 7:9, 10).

14. ㉠ 여호와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22-29절)

- ㉠ (1) 본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그들이 질병과 파멸, 열방의 조소를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실제로 이스라엘은 후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여 가나안은 궤멸(毀滅)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갔으며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는 곧 그들이 여호와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기 때문이다.

- (4) 한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재물과 명예, 권력을 믿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데(딤후3:2)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 (5) 즉 현대인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看過)하시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렘34:5).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떳떳이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이 ‘언약’을 굳게 잡아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힘써야 한다(딤후3:12).

15. ㉠ 본절에 나오는 지명들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23절).

- ㉠ (1) 소돔(Sodom) : ‘에워싼 장소’란 뜻이다. 아라바 평지(창13:12)에 있던 가나안인의 다섯 성읍 중의 하나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주하여 살았던 곳이다(13:10-13).
- (2) 고모라(Gomorrhah) : ‘깊은 곳’ 또는 ‘풀이 많은 곳’이란 뜻이다. 사해 남부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고대 가나안의 다섯 성읍 중의 하나이다(창10:19).
- (3) 아드마(Admah) : ‘붉은 흙’이란 뜻으로서 소돔 근처에 있던 성읍 중의 하나이다(참조, 창10:19).
- (4) 스보임(Zeboiim) : ‘염양’(羴羊)이란 뜻이다. 가나안인의 다섯 성읍 중의 하나로서 그들라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함락되었던 성읍이다(창14:1-10).
- (5) 본절과 호11:8에 의거해 볼 때 이상의 네 성읍은 모두 도덕적 퇴폐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같은 날에 몰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참조, 창19:1-28).

화보자료

물길는 여인들. 아래의 사진은 유대 산지의 한 우물에서 물을 길는 여인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로 두령과 장로들 뿐만 아니라 나무 패는 자와 물길는 자까지 열거하신 것은(10, 11절) 언약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30 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권고

단락구분 1-10 회개하는 자가 받을 축복 / 11-14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 15-20 백성들 앞에 놓여진 생명과 사망의 선택

1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홀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4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8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10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희를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19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1. ㉠ 본서에서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사실상 모세의 설교로 구성된 신명기를 끝맺는 결론 부분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31-34장의 내용은 신명기의 부록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호수아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한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2. **㉠** 이스라엘이 멸망 중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1, 2절)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참조, 28:62-68).

(2)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옛 언약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3절).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 중에서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의 죄를 탄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이다(렘 3:18, 20).

(4) 한편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요 3:16).

(5) 따라서 오늘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my Lord)로 모시는 것이다(참조, 롬 10:9, 10).

3. **㉠** 본절에 나타나 있는 회개의 3가지 요소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1, 2절).

㉠ (1) 첫째, 자신의 죄를 기억하여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은 단 한시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참조, 롬 7:14-25).

(2)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참조, 말 3:13).

(3)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구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지난 죄를 발견해야 한다.

(4) 둘째, 이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기억한 자는 솔직히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5)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를 어여쁘게 여기시어 그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사 43:25).

(6) 셋째, 이와 같이 하여 사죄(赦罪)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신의 이전 행위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골 3:1-10).

(7) 왜냐하면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그 신앙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 (요일 4:20)가 되기 때문이다.

4. **㉠** 쫓겨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1)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아주 먼 곳에 끌려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다.

(2)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시 80:1)가 되시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한편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때 세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여 귀환한 느헤미야는 본문의 말씀(4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였다(느 1:8).

(4)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the power of God)으로 나타난다(롬 1:16).

5. **㉠**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때루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1) 본래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다(창 17:11).

- (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후손)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3) 그러나 이러한 할례 의식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의식' 그 자체로만 행하여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 (4) 이러한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렘 4:4)고 대언한 말에서 잘 나타난다.
- (5)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베다'라는 말은 '마음에 할례' (렘 9:26)를 받드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서 참 마음으로 회개하여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의미한다(참조, 렘 31:33; 32:39, 40; 겔 11:19; 36:26).
- (6) 그러므로 본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 (7) 이는 곧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마 3:11; 행 5:31; 롬 2:4).
- (8) 아뭏든 오늘날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참조, 갈 6:15, 16).

6. **㉠** 인간은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영적 생명을 얻게 하신다.
- (2) 이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하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엡 2:8).
- (3) 이처럼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섬기는 행위까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참조, 갈 3:13).
- (5) 이와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금 살려 주신 것이다(엡 2:4, 5).
- (6)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거나 죽는 자가 없다. 오직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 뿐이다(롬 14:7, 8).

7. **㉠**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 (2) 둘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전심 전력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다.
- (3) 한편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신앙 원리이다(참조, 마 22:35-40).
- (4)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참조, 5:29)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감사'(참조, 골 1:12; 살전 5:18)를 통해서 계속 축복된 관계로 지속될 수 있다.

8. **㉠**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가? (11-14절)

- ㉠** (1)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지키기에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0:13).
- (3)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에게

밝히 계시(啓示) 되어 있는 것이다(29:29).

- (4)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며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요일 5:3).
- (5) 한편 오늘날 성도들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비록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닐지라도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참조, 롬 5:1).

9. ㉠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1-14 절)

- ㉠ (1)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곧 깨닫기가 쉽다는 뜻이다.
- (2) 물론 이는 상대적인 것이긴 하다. 왜냐하면 심령이 완악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마 13:13).
- (3)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 말씀을 준행하기가 쉽다는 뜻이다(참조, 요일 5:3).
- (4)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다(시 119:105). 이는 비록 어리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5)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딤후 3:16, 17).
- (6) 특히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10. ㉠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禍)를 네 앞에 두었다는 말의 근본 뜻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과 저주를 받을 것을 뜻한다(참조, 28장).
- (2) 특히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는 말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참조, 왕상 18:21).
- (3) 이와 같은 선택의 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 (4) 즉 그가 자신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영생과 하늘 나라에서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가 구주 되심을 믿지 않는 자에겐 저주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요 3:18; 5:24).

11. ㉠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6 절)

- ㉠ (1)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 (2)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준행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요일 5:3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를 재정립하여 주셨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신앙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새 계명(요 13:34, 35; 15:12, 17)을 실천하는 것이다.
- (5)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마 19:19).

12. ㉠ 하나님께서 '생명' 이시라는 말의 의미와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라 (20 점).

- ㉠ (1)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생명' 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다.
- (2)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창 2:7; 욥 10:12; 시 27:1), 즉 그분이 피조물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시며 구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 (3) 한편 모세가 본문에서 하나님과 생명을 동격(同格)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홍망 성쇠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였다.
- (4)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란 의미이다(참조, 골 3:4).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6)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새로운 '생명', 즉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한다(요일 5:12).

13. ㉠ '하나님께 부종(附從)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 점)

- ㉠ (1) 이 말은 본서 전체의 주제를 총괄하는 결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16절).
- (2) 그리고 여기서 '부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그 뜻은 '굳게 결합하다', '밀다', '밀접히 달라붙다'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말고 그분과 굳게 연합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 (4) 그런데 <다바크>라는 말은 주로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행동을 가리키는데 10:20에는 '친근히 하다'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 (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하나님께 부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인 규정에 얽매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기 보다는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 주고 있다.

14. ㉠ 본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 ㉠ (1) 공의의 하나님이다(1, 7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엄히 징계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히 12:7).
- (2) 사랑의 하나님이다(3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시 86:5; 요일 1:9).
- (3) 택한 백성의 목자이다(3-5절). 비록 백성들이 무지하여 그릇되이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사 53:6)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 (4) 생명의 근원이다(6절).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죄를 지은 것) 그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
- (5) 만복의 근원이다(5, 9, 10절).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며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이미 기쁨과 행복을 소유한 복 있는 자의 신앙에서 비롯된 확신이다(시 1:1-6; 128:1-4).

제 31 장 모세의 마지막 명령과 예언

단락구분 1-6 모세가 백성을 격려하다 / 7-8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세 / 9-13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들에게 전수(傳授)하다 / 14-21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예언 / 22-23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치다 / 24-30 레위인에게 율법 보존을 지시하다

1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 푸니라

2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일백 이십 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4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5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8 여호와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9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위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15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18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9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닷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지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22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23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

게 하리라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떼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7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28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30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본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마치 본서의 부록과 같은 성격을 지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 (2) 자신의 나이 120세인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서(2절)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있다.
- (3) 그 가운데 특별히 본장에는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14, 23절).
- (4) 그리고 모세는 그의 사후(死後)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16-21, 27-30절).

2. ㉠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이름 없는 미디안의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영도자로서 40년, 도합 120년간의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다(참조, 행 7:23, 30, 36).
- (2)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 동편까지 왔으나 끝내 약속의 땅을 밟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민 20:12).
- (3) 그러므로 이러한 때 모세가 자신의 나이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120세(34:7)를 끝으로 자신이 삶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그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끝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또한 이로써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5) 한편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삶은 강건해야 80세이며 수고와 슬픔 속에 신속히 지나간다'(시 90:10)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3. ㉠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는 어떠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위로하였는가? (3-6절)

- ㉠ (1)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다.
- (2) 즉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 것이다.
- (3) 특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백성들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모습은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한 단면이다.
- (4) 즉 자신의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한 후 나머지 주님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권고한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민 20:12)에 묵묵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참조, 삼상 15:22).

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한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그 뜻은 '실패하다', '게으름을 피우다'이다.
- (2) 그리고 '버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인데 <라파>와 거의 비슷한 말로서 '놓추다', '낙오된 채로 방치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 (3) 그러므로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아끼시는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사 43:1).
- (5)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며(사 43:1)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사 43:7).
- (6)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이는 험한 세파(世波)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참조, 고후 1:20).
5. ㉠ 모세가 여호수아를 권고하고 위로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
- ㉠ (1)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했었다.
- (2)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즐겁고 평안한 여행이 아니라 오직 대적과 싸워 승리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무엇보다도 강한 용기와 신앙의 힘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 (4) 여기서 '강하게 하라'는 말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할 때의 날쌔고 완강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인 히브리어 <하자크>에서 유래하였다.
- (5) 그리고 '담대히 하라'는 말은 '방심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나타내는 말인 히브리어 <아마츠>에서 유래하였다.
- (6) 한편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가나안, 즉 하늘 나라를 목적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를 거둬야 한다(딤후 2:3, 4).
6. ㉠ 모세가 율법책을 복사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준 목적은 무엇인가? (9-13절)
- ㉠ (1) 모세는 율법책을 복사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언약케 결(25, 26절)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 (2) 이처럼 율법책을 언약케 결에 보관하도록 한 목적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먼제년'의 초막절에 나아온 이스라엘에게 이 책을 낭독하여 들려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3) 또한 이와 같이 율법책을 보관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준수토록 하기 위함이었다(6:7).
- (4)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각 가정이나 교회 또는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성경 공부'(Bible study)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유도하는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먼제년'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0절)
- ㉠ (1) '안식년'을 가리킨다(참조, 15장 ㉠ 2).
- (2) 이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작(耕作)을 하지 않았고(민 14:11, 23; 16:30) 가난한 자

들을 돌아보고 빗진 자에 대한 빛 독촉을 하지 아니하였다(참조, 15장 ㉒ 2).

(3) 그리고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을 기념하며 또한 1년간의 모든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다(참조, 16장 ㉒ 16).

(4) 그런데 이러한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 주는 이유는 그들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였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족한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8. ㉑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약술(略述)하라(14-23절).

㉒ (1)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은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14-16절).

(2) 둘째,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배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17, 18절).

(3) 셋째,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침묵을 지키실 것이다(17, 18절).

(4)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말을 노래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5)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바가 성취되는 날에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21절).

(6)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격려했다(23절).

9. ㉑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래’는 무엇을 가리키며, 또한 그것을 지은 목적은 무엇인가? (9-22절)

㉒ (1) ‘이 노래’란 이스라엘의 배역(背逆)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16-21절)을 기록한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가리킨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짓도록 명하신 목적에 관하여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첫째, ‘이 노래’가 정당하게 활용되지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배역을 방지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둘째, 비록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배역을 방지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회개시켜 돌이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이 실족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제책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이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참조, 롬 2:4).

10. 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0절)

㉒ (1)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여호와와의 언약을 어기고 돌이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서도 지난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소행이다(참조, 대하 32:25).

(3) 한편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게 된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2)는 성경 말씀에 깊이 명심하여 언제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11. **㉠** 본절의 말이 32-34장의 저자가 모세라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24절)

- ㉠** (1)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모세가 직접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니 34장만큼은 다른 사람이 기록하여 부가(附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2) 그러나 32, 33장이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본문적 증거는 없다.
- (3) 특히 본래의 히브리 성경에는 오늘날과 같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었다.
- (4) 그러므로 본절의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라는 말은 오히려 본서의 저자가 모세 자신이라는 점을 단정지워 주는 말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 (5) 이처럼 본절의 말은 32-34장의 저자가 모세임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12. **㉠**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9절)

- ㉠** (1) 이것은 모든 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 (2) 즉 인간이 범죄하여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은 인간 자신의 불성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패역함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는 뜻이다.
- (3) 특히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우매하여 지각이 없으며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렘 4:19, 22).
- (4)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완전 부패, total improbity)하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 (5)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롬 1:16, 17).

13. **㉠** 본절에서 말하는 '말세' 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29절)

- ㉠** (1) 여기에서 '말세'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아하리트 하야림)인데 그 뜻은 '그날들의 말미에' (in the latter end of the days)이다.
- (2) 그런데 '그날들'이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기간을 총칭하는 말인 듯하다.
- (3) 한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시기를 대략 B. C. 1406년으로 잡는다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B. C. 586년까지 이스라엘은 약 800년의 세월을 가나안에서 보낸 셈이다.
- (4)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말세'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거의 임박하였었던 B. C. 6세기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6절).

제 32 장 백성을 향한 모세의 애가(哀歌)

단락구분 1-4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 5-14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 15-18 이스라엘의 배교(背敎) / 19-25 하나님의 진노 / 26-38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 39-43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 44-47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다 / 48-52 모세의 죽음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3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5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6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8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3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

을 마시우셨도다
 15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매 밭로 찻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18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19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케 한 연고로다
 20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한 때를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22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턱도 불게 하는도다
 23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24 그들이 주리므로 파리하며 불 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25 밖으로는 칼에, 방안에서는 불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지리로다
 26 내가 그들을 흠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도다
 27 대적을 격동할가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

악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
도다

28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
식이 없도다

29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
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좇으며 두 사람이 만
을 도망케 하였을까

31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
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들의 포도나무요 고
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약
독이라

34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
지 아니한가

35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값으리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
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다

3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
력함과 갇힌 자나 놓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37 여호와와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
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
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
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 인줄 알라 나와 함
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
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40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
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41 나의 변칙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
는 자에게 보용할 것이라

42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
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도다 하시
도다

43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
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값으사 그 대적에게 보
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하
시리도다

44 모세의 논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45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
하기를 마치고

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
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
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
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48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49 너는 여기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
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
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 네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
게로 돌아간 것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트리바 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
한 연고라

52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
라보는지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
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일반적 명칭은 무엇인가?

㉠ (1) '모세의 노래'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2) 특히 이 노래는 장차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
어진 것으로서(31:19, 21) 다분히 교훈적이다.

(3) 따라서 본장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이스라엘의 악한 성격,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
역과 이스라엘의 악행 등이 서로 상반되어 구성되어 있다.

(4) 결국 모세의 이 노래는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불순종의 죄
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2. ㉡ 모세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과 같다고 소개하고 있는가? (2절)

㉡ (1)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또한 '퀘소 위에 단비'
같다고 하였다.

(2) 이러한 표현은 서정적(叙情的)인 수사법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이 메마른 영혼을 기름

지고 윤택하게 만드는 ‘단비’와 같다고 선언하고 있다.

- (3) 결국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살찌우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교훈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 (4)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단단한 마음 발이 변하여 기름진 옥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참조, 마 13:23).

3. **㉠**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본장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반석’으로 말하고 있다 (4, 15, 18, 30절).
-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반석’이란 말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은신처’를 가리킨다(삼상 22:1; 24:1-3).
- (3) 또한 반석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출 17:6; 민 20:11).
- (4) 이처럼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적절히 임한 것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석’이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필요한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4. **㉠** 본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비유되고 있는데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구약에서 ‘아버지’ (히, 아브)라는 말은 한 가족의 가장(家長)을 지칭하기도 했으나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조상을 가리킨 말로도 사용되었다(창 28:13; 왕상 2:10; 왕하 19:12).
- (2)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이따금씩 존경을 표하는 칭호로도 사용되었다(참조, 사 17:10; 왕하 2:12; 6:21).
- (3) 그러므로 본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마치 누가가 예수의 계보를 밝히면서 하나님을 인류의 첫번째 조상으로 소개한 것처럼(눅 3:3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造成)하신 참 아버지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이다(참조, 사 44:2, 24).
- (4) 또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로부터 숭앙(崇仰)을 받으셔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5. **㉠**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미리 주신 교훈이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선조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의 최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
- (3) 한편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 사단에게 종 노릇을 하며 살았던 불쌍한 존재들이었다(엡 2:1-3).
- (4)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갈 5:1) 다시는 범죄치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노래했는가? (10절)

- ㉠**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노래하였다.
- (2) 모세의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한 쪽의 그림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 (3) 한편 여기서 ‘황무지’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곳을 가리킨 말이다.
- (4)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다’는 말은 ‘최우선적으로 아끼고 보호한다’는 뜻이다.

7. **㉠** '이스라엘과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으되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12절)
- ㉠** (1)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보호하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 (2)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친히 목도(目睹)한 것이기도 하였다(참조, 29:2, 3).
- (3) 그러므로 본절에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우상(고전 8:4)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8. **㉠** '땅의 높은 곳'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13절)
- ㉠** (1)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 (2) 성경에는 종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곧 가나안 땅을 높은 곳으로 보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창 12:10; 26:2; 42:1-3).
- (3) 이외에도 가나안 땅을 '높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음은 '높은 곳'을 '영광스럽고 훌륭한 곳'으로 이해하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 주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눅 2:14).
9. **㉠** '바산'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14절).
- ㉠** (1) '바산' (Bashan)은 갈릴리 동북쪽, 길르앗 이북에 위치한 왕국이었다.
- (2) 그 영토는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 남쪽으로는 아르뭉 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갈릴리 바다에까지 이르렀었다.
- (3) 이곳의 땅은 매우 비옥하고 목초지가 많아 밀이 잘 경작되었으며 가축들은 살지고 힘이 세었다(참조, 시 22:12; 사 33:9).
- (4) 특히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바산 왕 옥과 여러 차례 전투를 하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3:1-13; 수 2:10; 왕상 4:19; 느 9:22).
10. **㉠** 본장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보라(9-1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쏟으셨다(9절; 사 43:1).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다(10절; 출 2:23-25).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창 17:7; 출 2:24).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들을 권념하신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다(10절).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 주셨으며(사 43:2) 대적의 손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다(출 14:19-31).
- (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 시키셨다(11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시킨 것은 그들을 더 귀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참조, 욕 23:10).
- (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2절). 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참조, 출 13:21; 14:19).
- (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하셨다(13절). 곧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26:19).
- (7)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양육하셨다.

(8) 한편 오늘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때로는 은혜와 축복으로, 때로는 징계로 또는 훈련을 통한 연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길에서 조금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11. ㉠ ‘여수론이 살찌매 밭로 찻도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

㉠ (1) 여기서 ‘여수론’은 히브리어 <예수론>을 음역한 말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70인역(LXX)은 ‘사랑받는 자’로 델리취(Delitsch)는 ‘옳은 자’, ‘정직한 자’로 번역하였다.

(2) 따라서 ‘여수론’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어진다.

(3) 그런데 여기서 ‘여수론이 살찌매 밭로 찻도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뜻이다.

(4) 본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한 행위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데 마침내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 것이었다(22-25절).

12. ㉠ 본절에서 ‘마귀’ 곧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던 ‘새 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7절)

㉠ (1) 본절에 ‘마귀’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쉐담>은 앓수르어 <쉐두>에서 따온 말이다.

(2) 그런데 <쉐두>는 앓수르의 수호신이다.

(3) 그러므로 ‘마귀’ 또는 ‘새 신’이란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이러한 이방 신들은 그것을 섬기던 특정 국가의 존립 여부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므로 역사와 공간을 초월하여 영존(永存)하신다(시 102:26, 27).

1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지 않고 얼굴을 숨기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20절)

㉠ (1) 본절의 ‘얼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다.

(2) 즉 ‘여호와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이며(시 105:4) ‘여호와께서 얼굴을 든다’는 말은 의인에게는 은혜를(민 6:26), 악인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뜻이다(렘 44:11).

(3) 그리고 본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거나 돌리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대방과 관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공물을 중단하셨다는 뜻이다(참조, 시 13:1).

(4)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근본 이유는 오직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여호와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 2)라고 말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 것과 같은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14. ㉠ 본절에 나와 있는 각종 재앙들을 간략히 설명하라 (24절).

㉠ (1) 파리함 : 흑사병(pestilence)을 가리킨다.

(2) 불 같은 더위 : 열병(fever)을 의미한다.

(3) 들짐승의 이(teeth) :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받는 재난을 뜻한다.

(4) 티끌에 기는 것의 독 : 여기서 ‘티끌에 기는 것’은 뱀을 가리킨다(참조, 창 3:14). 그러므로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이란 곧 독사에 의해 입는 상해(傷害)를 의미한다.

(5) 이어나 이상의 모든 재앙은 여자적(如字的)으로 이해하기 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극심한 재앙 곧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하여야 자연스럽다.

15. ㉠ 택한 백성을 징벌하신 여호와께서는 징벌받은 그들을 위해 다시금 어떤 일을 하실

첫인가? (26-38절)

- Ⓐ (1)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여 세계 도처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 (2)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인 양 오해하여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멸시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다(참조, 사 62, 63장).
- (4)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런 사랑으로 오늘날 죄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롬 3:25).

16. ⓐ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요... 독사의 악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2, 33절)

- Ⓐ (1) 성경상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시 80:8-11; 호 10:1; 욥 1:7).
- (2) 이처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이유는 포도나무가 팔레스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과수(果樹)이었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도나무가 자신의 뜻을 좇아 지극히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참조, 요 15:5, 8).
- (4)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들포도'를 맺었다(참조, 사 5:1-7; 램 2:21). 여기서 '들포도'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갖가지 범죄를 상징하는 말이다.
- (5) 본절에서 말하는 '소돔의 포도나무'나 '고모라의 밭의 소산'도 바로 이 '들포도'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의 음란한 삶을 좇아 사는 이스라엘을 비유한 말이다.
- (6) 그리고 '쓸개 포도'나 '쓴 송이'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치명적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17.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실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6절)

- Ⓐ (1) 여기서 '판단한 것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야딘)은 '심판할 것이다'라는 뜻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변호할 것이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2) 그래서 Living Bible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옳다고 여기실 것이다'로 번역하고 있다.
- (3) 그리고 '그 종들'이란 특정한 사람 곧 선지자나 경건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 (4) 또한 여기서 '후회하실 것이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RSV, NIV)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5) 결론적으로 이상의 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사 54:8).
- (6) 한편 죄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롬 5:8).

18. ⓐ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며 본절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37, 38절)

- Ⓐ (1)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과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은 곧 우상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 오히려 각양 정성과 노력을 다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왕하 17:9-17; 사 42:17; 호 13:2).
- (3) 그러므로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으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간청해 보라고 말하신 것이다.
- (4) 그러나 그와 같은 우상이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구해낼 수는 없었으니 결국 본절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역설하고 있다(합 2:18).
- (5)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시 18:30, 31)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9. ㉠ ‘번쩍이는 칼’과 ‘화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1, 42절)

- ㉠ (1)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한다.
- (2) 또한 비록 칼이나 화살과 같은 살륙 무기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참조, 절 38:21).
- (3) 그리고 본절에서 ‘나의 대적’이나 ‘나를 미워하는 자’란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방 족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후 문맥 관계상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 (4) 결국 ‘번쩍이는 칼’과 ‘화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20. ㉠ 본절에 나타난 ‘호세아’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44절)

- ㉠ (1) 여호수아를 가리킨다.
- (2)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인데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축약형이다.
- (3) 그리고 ‘여호수아’란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칭호인 ‘여호와’와 ‘호세아’라는 말이 복합된 말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뜻이다.
- (4)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개명(改名)한 것은 그의 직무상의 필요로 인하여서였다(참조, 민 13:16).
- (5) 한편 본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들려준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위치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46, 47절)

- ㉠ (1) ‘허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레크>인데 그 뜻은 ‘무익한 말’, ‘빈 말’이다.
- (2) 그런데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은 곧 ‘허사’가 ‘생명’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 어휘임을 나타낸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히 4:12)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이다(시 19:7).
- (4)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 타분한 옛날 책으로 생각하여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 (5)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수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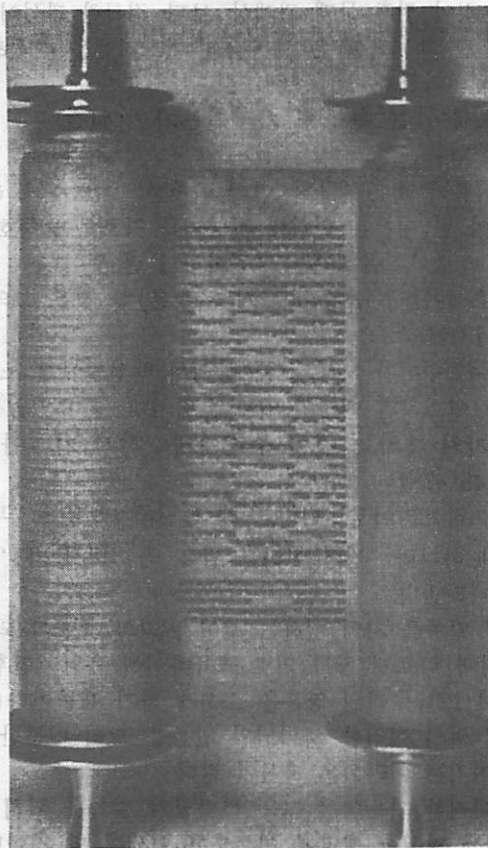
22. ㉠ 모세가 죽은 곳은 어디인가? (49-52절)

- ㉠ (1) ‘느보 산’이다.
- (2) 그런데 이 ‘느보 산’은 사해의 북동편에 위치한 ‘아바림 산’, 즉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 (3) 이곳에서의 가시(可視) 거리는 약 100km에 달해 헤스본과 예루살렘까지도 볼 수 있다.

- (4) 한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된 이유는 그가 가데스의 므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민 20:11-13; 27:14).
- (5) 그러나 모세가 느보 산에서 죽었다는 기록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는 언급만이 있을 뿐(유 1:9)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화보자료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펼쳐진 부분은 '모세의 노래'(본장)인데 필사된 것이 아니라 활자 발명 초기에 인쇄된 것이다.



이집트나 여러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통하여 스스로를 직접 계시하셨다. 이 율법을 모세는 장로들에게 전수했다(31:9).

제 33 장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

단락구분 1-5 서언(序言) / 6-11 르우벤, 유다,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 / 12-17 베냐민,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 / 18-19 스블론, 잇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 20-25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 / 26-29 이스라엘이 맞이할 미래의 기쁨

1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2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취시고 일만 성도가 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도다.

3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4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 로다

6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7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8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돌땀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브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10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11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12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

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13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14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15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16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7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뺨이 들소의 뺨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18 스블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블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잇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 하리로다

20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팽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 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21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와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22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 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23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와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으리로다

24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차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5 네 문지방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 사

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다
 26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
 임을 나타내시느도다
 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29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
 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 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
 은 곳을 밟으리도다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2) 특히 본장에 언급되어 있는 모세의 유언적 축복 행위는 일종의 기도로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3) 한편 이 모세의 축복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노아의 축복(창 9:26), 이삭의 축복(창 27:27-29), 야곱의 축복(창 48:15)과 비슷하다.
 (4) 결국 본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행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 기도인 동시에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다.

2. ㉠ 본장에 언급된 모세의 축복 기도는 언제 선포되었는가? (1절)

- ㉠ (1) 출애굽 제 40년 말경, 즉 모세의 나이 120세 때로서 그가 죽기 얼마 전이다.
 (2)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축복의 장중함과 엄숙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이 기도가 반드시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취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시내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또 율법을 주신 곳이다(출 19장이하).
 (2) 그리고 세일 산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 땅의 산지를 가리킨다(1:2).
 (3) 또 바란 산은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지칭하는 말이다(참조, 1:1; 민 10:12; 12:16; 13:3).
 (4) 한편 하나님께서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의 손을 빌어 율법을 베푸신 것'(갈 3:19)을 가리킨다.
 (5) 결국 본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40년간 여정(旅程) 중에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6)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므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4. ㉠ 모세의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는 말의 의미와 교훈을 말하라(4절).

- ㉠ (1) 여기서 '야곱의 총회'라는 말은 정치적인 회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2)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한 율법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뜻이다.
 (3) 한편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inheritance)을 의미한다.
 (4) 결국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축복(6-25절)보다 더 나은 축복임을 의미하고 있다.

5. ㉠ '여수론에 왕이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 (1)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인데 도덕적, 영적 특성을 지닌 이상적인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다(참조, 32장 ㉑11).
- (2) 그리고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음을 의미한다(삿 8:23).
- (3) 특히 '왕이 있었으니'라는 과거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으나 후에 백성들이 인간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역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6. ㉑ 르우벤에 대한 모세의 축복 기도를 설명하라(6절).

- Ⓐ (1) 르우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유언)에 대한 보충에 불과하다(참조, 창 49:4).
- (2) 즉 야곱은 르우벤이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창 35:22) 그의 후손은 탁월치 못한 족속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창 49:4).
- (3) 그래서 모세는 그 예언을 기억하고 르우벤 족속이 소멸되지 않기를 기도한 것이다.
- (4) 그러나 이 지파는 역사상 B. C. 10세기경에 거의 소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5) 이처럼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그의 경건치 못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결국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린 족속이 되고 말았다.
-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윤리적, 도덕적 및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겐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그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참조, 32:19, 20).

7. ㉑ 시므온에 대한 축복 기도가 본장에는 빠져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먼저 70인역(LXX)을 살펴보면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나와 있는 6절 후반부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즉 그곳에는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않기를 그리고 시므온은 수가 많기를'이란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 (3) 그러나 히브리 원문과 주요 번역본에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다.
- (4)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에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수 19:1-9; 삿 1:3) 그 지파가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 (5) 그러므로 70인역에 기록된 내용은 필사자(筆寫者)가 삽입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8. ㉑ 유다에 대한 축복과 그 의미를 말하라(7절).

- Ⓐ (1)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일치한다(참조, 창 49:10).
- (2) 즉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라는 축복 내용은 유다 지파가 온 이스라엘을 아끼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한다.
- (3) 실제로 유다 지파에 대한 이러한 축복과 예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세계의 치리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다.

9. ㉑ '뚝뚝'과 '우림'은 무엇인가?(8절)

- Ⓐ (1) 뚝뚝과 우림의 뜻은 '온전함'과 '빛'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쓰이던 일종의 제비(lot) 도구였다(참조, 삼상 28:6).
- (2) 그러나 그 재료나 모양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막대 모양의 제비였거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였으리라는 추측이 있을 뿐이다.
- (3) 이와 같은 우림과 뚝뚝은 '주의 경건한 자', 즉 대제사장에게 맡겨졌는데 출 28:29, 30을 보면 처음에는 아론에게 맡겨졌던 것을 알 수 있다.

10. ㉑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9-11절)

- Ⓐ (1)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되어 제사장직과 같은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전념하여 봉사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는데 있었다(참조, 민 1:47-54; 3:12-4:49).
- (2) 한편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 복음을 위한(롬 15:16)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들이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11. Ⓞ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12절)

- Ⓐ (1) 베냐민은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란 칭함을 받았으며 '여호와 곁에 안전하게 거하는 축복'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 그리고 '여호와와 어깨 사이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다.
- (2) 여기서 '여호와와 곁에 안전하게 거하라'는 축복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사해 북쪽 지역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성전 곁에 거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성취되었다.
- (3)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도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며 유다 지파와 결속하는 신실성을 보이었다(왕상 12:21).
- (4) 한편 '날이 맞도록 보호하신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종일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이다.
- (5)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말은 '사랑하신다' 또는 '명예롭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사 9:6; 22:22).

12. Ⓞ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과 그 의미를 말하라(13-17절).

- Ⓐ (1) 모세는 야곱의 축복을 인용하여 요셉 지파를 축복하였다(참조, 창 49:22-26).
- (2) 이러한 지파의 축복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단 서편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영토의 4분의 1이나 할당받음으로써 성취되었다.
- (3) 게다가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됨으로써 큰 영광과 명예를 얻었다.
- (4) 이처럼 요셉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게 영적, 물질적 축복을 베푸시는 결과를 가져 왔다.

13. Ⓞ 스블론 지파와 잇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와 그것의 성취를 말하라(18, 19절).

- Ⓐ (1) 여기서 스블론 지파와 잇사갈 지파는 함께 축복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곧 이들 두 지파가 같은 어머니(레아)에게서 출생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얻을 땅이 서로 이웃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 (2) 또한 스블론 지파가 해변에 거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창 49:13)이 모세에 의해 여기서 재확인되고 있으며 이 예언대로 스블론 지파는 실제로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게 되었다(수 19:10-16).
- (3) 특히 잇사갈이 '장막에서 즐거워한다'는 예언은, 야곱의 축복과도 일치되는데(창 49:14, 15) 그 예언대로 이 지파는 조용하게 농경 생활을 영위하는 지파가 되었다.

14. Ⓞ 갓 지파가 받은 축복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20, 21절)

- Ⓐ (1) 갓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더불어 모세에게 요구하여 그 허락을 받았다(민 32:2-36).
- (2) 그리하여 갓 지파는 매우 넓은 영토를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모세는 이것을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3) 이처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

에 야곱의 축복의 성취이다(창 49:19).

15. ㉠ 남달리 지파가 얻은 땅 곧 '서방'과 '남방'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23절)

- ㉠ (1) '서방과 남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암 웨다름>으로 나와 있다.
 (2) 그런데 이 <암 웨다름>이란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3) 개역 성경과 KJV는 <암>이란 말을 출 26:22, 27; 민 2:18; 수 5:1에서처럼 '서쪽'으로 이해하여 <암 웨다름>을 '서방과 남방'으로 번역하였다.
 (4) 그러나 RSV는 이 말을 '호수와 남방' (the lake and the south)으로 NIV는 '호수 쪽의 남방' (southward to the lake)으로 번역하고 있다.
 (5) 그들의 이러한 해석은 <암>이란 말이 성경 여러 곳(창 1:10; 예 10:1; 욥 6:3)에서 '바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과 남달리가 얻은 땅이 긴네렛(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다는 점(수 19:32-39) 그리고 아라바 호수(사해)와 긴네렛 호수가 '바다'로 불리웠던 점(4:49; 수 3:16; 12:3; 13:27)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타당한 것 같다.
 (6) 아물든 남달리 지파는 실제로 요단 강의 수원지(水源地) 및 수산물이 풍부한 긴네렛 호수 등과 같은 팔레스틴의 젖줄을 차지하였으니(수 19:32-39)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암사슴'(창 49:21)처럼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16. ㉠ 아셀의 밭이 기름에 잠기며 그 문빚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4, 25절)

- ㉠ (1) '밭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아셀 지파의 땅이 비옥할 것임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 즉 여기서 모세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창 49:20)라고 한 야곱의 축복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3) 한편 솔로몬은 아셀 지파의 땅(갈멜의 평원 지대)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으로 공급하였다(왕상 5:11).
 (4) 그리고 '네 문빚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라는 말은 크노벨(Knobel)과 같은 학자에 의하면 아셀 지파의 성읍이 난공 불락의 요새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5)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말을 아셀 지파의 땅에서 철과 놋이 풍성하게 생산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6)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철과 놋이 '능력'과 '승리'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참조, 계 1:15).

17. ㉠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26절)

- ㉠ (1) 공동 번역은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오신다. 위엄차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번역하였다.
 (2) 여기서 '하늘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등의 표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자주 쓰인 표현이다(시 18:10; 68:33; 사 19:1).
 (3) 이처럼 천지의 대주재(大主宰)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다(27절).

18. ㉠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27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대대에 걸쳐 택함받은 성도들의 거처가 되신다(시 90:1)는 뜻이다.
 (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즉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을 극진히 보호해 주신다(시 91:1-7).

(3)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유일한 그들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

19.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A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며 또한 성도들의 승리로 인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의미한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놋투구와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삼상 17:45-49).

(3) 한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담대히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이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20. C 본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4가지 은유적 명칭을 찾아 그것을 설명하라.

A (1) 왕(5절) : 왕은 한 국가의 대표자요 주권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다(참조, 시 24: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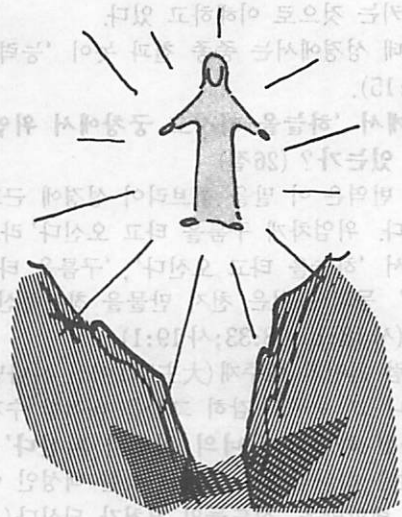
(2) 처소(27절) :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시 90:1). 그분께서는 자신에게로 피하는 모든 자들을 극진히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시 91:1-7).

(3) 돕는 방패(29절) :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철저히 방어해 주는 방패이시다(참조, 창 15:1; 시 5:12).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한 것은 곧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참조, 엡 6:16).

(4) 영광의 칼(29절) :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삼상 17:45-49).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까지도 예비하고 계신다(참조, 계 2:1-3:22).

본장의 요절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
내시는도다'(26절).



제 34 장 모세의 죽음

답략구분 1. 1 느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 / 5-6 모세의 임종과 장사 / 7 모세의 향년 (享年) / 8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애곡 / 9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안수 / 10-12 모세의 업적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 남방과 종려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 벤브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7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 이십 세나 그 눈

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본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 즉 모세의 임종과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또한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임명된 사실은 장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새로운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3) 즉 모세의 죽음은 구세대의 사라짐을 의미하며 여호수아에 대한 안수(按手)는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2. ㉠ 모세가 느보 산에 올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느보 산과 비스가 산은 모두 서해 북동쪽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이다.

(2) 특히 느보 산은 히브리어 성경에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아바림 산맥에 있는 봉우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참조, 32장 ㉠ 22).

(3) 그러므로 모세가 느보 산에 올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는 말은 '아바림 산맥에 있는 비스가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느보 산에 올라갔다'는 뜻이 된다.

(4) 한편 모세는 그의 잘못(참조, 민 20:2-13)으로 인해 이 비스가 산(3:27)의 꼭대기(32:49)인 느보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한 후 그곳에서 죽었다.

3. ㉠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모세에게 보이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여호와께서 보여 주신 '길르앗 온 땅'은 요단 동편의 땅,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을 가리킨다.

(2) 또한 '단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최북단 경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토지 분할시에 단 지파는 가나안 땅의 최고 북쪽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이다

(왕상 4:25).

(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모세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단 지파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최북단 지역과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될 요단 동편의 땅을 보여 주셨다는 의미이다.

4. ㉠ 여호와께서 또다시 '은 남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모세에게 보여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1) 가나안 땅의 최북단 경계와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시선을 서쪽으로 돌리셨다.

(2)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중해(서해)를 경계로 하여 요단 서편 땅의 중심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을 비롯하여 가나안의 남쪽 지역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모세에게 보여 주셨다.

(3)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가나안 전지역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때문이었다.

(4) 즉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가나안의 전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3:26, 27).

5. ㉠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라(3절).

㉡ (1) 여기서 '남방'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인 '네게브'를 가리킨다.

(2)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는 것은 곧 여리고에서 소알까지 이르는 '사해 서부의 연안 지대(沿岸地帶)'를 보이셨다는 뜻이다.

(3) 한편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고 부른 것은 그곳이 종려나무의 산지로 유명하였기 때문이다.

(4) 결국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모세에게 자세히 보여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다.

(5) 이처럼 모세는 가나안의 북쪽 지역 및 요단 동편의 땅을 비롯하여(참조, ㉠ 3) 요단 서편의 온 땅(참조, ㉠ 4)과 가나안의 남쪽 전지역을 자세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것이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인계된 것뿐이다.

(7)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해도 족하였으며', 모세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지 않았다(3:26, 27).

6. ㉠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지역을 모세에게 보여 주신 후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절)

㉡ (1)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즉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므로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나 모세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은 '모세의 사명이 끝났음을 선언한 것인 동시에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나타낸 것이다(참조, 5, 9절).

(3)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4) 이러한 자세는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 볼 수 있으니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고 하였다.

(5)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모세와 사도 바울 그리고 앞서가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언제라도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7. **㉠** 본장에는 모세에게 붙여진 2가지 칭호가 나타난다. 그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라 (5, 10절).

- ㉠** (1) 첫째, 모세는 '여호와와 종'으로 불리웠다(5절). 이 칭호는 그가 자신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능욕을 감수했던 '참 종'이었음을 보여 준다.
- (2) 한편 이러한 칭호는 구약에 약 20회나 나타난다(시 113:1; 134:1; 사 54:17).
- (3) 둘째, 모세는 '선지자' (히, 나비)로 불리웠다(10절).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의 사상을 이스라엘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에 강요하는 독재자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율법의 줄로 결속시킨 위대한 선지자였다.
- (4)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5) 결국 모세에게 주어진 이러한 2가지 칭호는 그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생애를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다.
- (6) 한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칭호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인 성도들은 그 이름에 맞게 구별된 생활과 말씀에 충실한 생활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고후 2:15).

8. **㉠**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가? (5, 6절)

- ㉠** (1)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본문의 기록은 그가 죽지 않고 승천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모든 견해들이 잘못된 사상임을 밝혀 주고 있다.
- (2) 또한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모세의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다.
- (3) 이처럼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보다 뛰어났던 모세를 제사하거나 숭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하시기 위함이었다(Calvin).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튜헨리(Matthew Henry) 같은 주석가는 말하기를 '변화 산에서의 사건' (마 17:3; 막 9:4; 눅 9:30)을 볼 때 모세는 부활체로 승천했을 것이라 했다.
- (5)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사단과 다투어 변론하였다(유 1:9)는 성경 말씀과도 상반되는 견해이다.
- (6) 따라서 본질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써 구원받아야만 하였던 죄인이었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 (7)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롬 3:10).

9. **㉠**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按手)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9절)

- ㉠** (1)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간 것을 의미한다.
- (2) 특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신' (히, 루아흐 호크마)이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렇게 '지혜의 신'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는 후일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하였다(수 1:10-18).

- (4) 한편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여 얻음으로써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되었다(왕상 3:5, 9).
- (5)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 등을 자랑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결코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일의 성취 여부를 결정 짓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골 4:6).
- (6)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약 1:5).

10. ㉠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10-12절)

- ㉠ (1) 첫째, 모세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한 선지자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출 33:11)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모세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셨다(출 34:5-7).
- (3)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사실은 곧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둘째, 모세는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유익하고도 특별한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을 나타낸다(참조, 출 14:21).
- (5) 그러므로 성경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10절).

11. ㉠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위대한 인격에 관하여 말해 보라.

- ㉠ (1)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다(참조, 출 2:11, 12; 히 11:24, 25). 특히 출 32:31, 32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백성만을 사랑하겠다는 그의 열정적인 중보 기도가 언급되어 있다.
- (2) 모세는 겸손한 자였다(출 4:10). 그는 하나님 없이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렸다. J. 러스킨은 '참된 위인의 최초의 테스트(test)는 그 겸손에 있다'고 말했다.
- (3)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자였다(민 12:3). 그가 강팍하고 범죄하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인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다.
- (4) 마지막으로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었다. 모세 오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는 오직 '순종' 뿐이었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은 양 떼를 사랑하고 온유하며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12. ㉠ 본장의 저자는 누구로 추정되어지는가?

- ㉠ (1) 본장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2) 그러나 본장에 모세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에 대한 기사(記事)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모세 자신이 직접 본장을 쓰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 (3) 한편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위인의 저서에 그 위인의 사망 기사를 후대 사람이 첨가하는 것이 관례적이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망 기사를 본서에 부가(附加)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이와 같은 추정은 여호수아가 본장을 기록하여 본서에 부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탈무드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연구자료

신명기적 언약과 역사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그들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본서의 내용인데 이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전개된 역사의 동인(動因)이 되었다. 즉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을 갖고 우상을 멀리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아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하게 되었으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좇을 때에는 이방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 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포로가 되는 등의 역사가 펼쳐졌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에 따르는 언약의 결과가 실체화된 것이다. 본고(本稿)는 언약과 이스라엘 역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1) 신명기적 언약

고대 근동에서 국제 조약의 형태는 대개 유사한 체계를 지녔다. 이런 사실은 최근 당시의 조약 본문이 헷(Hittite) 제국의 문서 가운데 발견됨으로써 입증되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형태와 유사한 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고대 조약 형태에 의거하여 본서의 언약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문(preamble) : 언약의 주권자를 선포(1:1-6) ② 역사적 서문(historical prologue) : 언약을 맺는 당사자간의 과거의 유대를 언급(1:6-5:33) ③ 법규 : 언약의 내용(6-26장) ④ 선포 : 여러 중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26:1-11, 27; 31:9-13, 22) ⑤ 증인 명단(32장) ⑥ 축복과 저주(27, 28장)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서의 전문(1:1-6)은 화자(話者)를 모세로 밝히고 그를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백성과의 증재자로 내세우고 있다.

역사적 서문(1:6-4:49)에서는 이전의 영주와 신민(臣民)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언약의 주권자가 이전에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재언급하는 부분으로서 본서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 후에 법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언약의 내용이 들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언약이 갱신될 때 이 법규도 수정된다. 그러므로 본서의 법규(6:1-26:19)도 시내산 언약의 요구 사항을 재열거하여 체계적으로 다시 설명한 것이다. 본 법규의 전반부(6-11장)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위해 성별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후반부(12-26장)는 언약 생활에 부가(附

加)되는 제(諸)규정을 밝혔다.

다음으로 저주와 축복 부분(27-30장)이 나오는데 이는 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축복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다.

이와 같은 구성이 일반적 조약의 기본 구조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적 구성이기도 하다. 본서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율법에 대한 준수 여부가 그들의 생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본서에 나타난 언약의 특징이기도 하다. 즉 본서의 언약은 율법적인 측면이 강하여 당위성(當爲性)이 있다. 그러나 단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표출된다는 점에서 본서의 언약은 사랑을 그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신명기적 언약이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는 사실은 이 언약이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주어졌다는 여호와 의 말씀 때문에 더욱 확실해진다(4:8). 결국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으로써 인도하시는 방편이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그 목표로 삼는 것이다. 신약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실도 근본적으로는 언약에 결부된 것이며(참조, 마 26:28)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참조, 롬 31:31; 히 12:24).

(2) 신명기적 역사관

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수호 여부에 따라 전개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관을 '신명기적 역사관' 이라고 하는데 역사가 언약과 관계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와 그에 대한 백성의 배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징계를 받은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 역사관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신앙적 의'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척도요 기준점이 된다. 이 '신앙적 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28:4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신앙적 의'를 준행하였던 백성들에게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 '신앙적 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계(鑑戒)가 되리라'(28:45, 46)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었다. 결국 본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의 개념은 '신앙적 의'가 국가를 흥하게 하고 '죄'는 수치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간의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즉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1:4), 아말렉

죽속(25:17)과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들어 심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율례와 계명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며 온갖 종류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28:20-68). 이와 같은 선언대로 훗날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B. C. 722년 앗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B. 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각각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둘째는 이스라엘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의 관계이다.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도 603,550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이(민 1:46) 광야 여행 기간 내에 모두 죽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단 두 사람과 후손들만이 가나안 입성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34).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한 반면(민 14:11, 22, 23) 그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기 때문이다(민 11:24, 30).

세째는 개인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도 당신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날을 장구(長久)케 하며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6:2, 3)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7:10). 이 선언은 언제나 지켜졌는데 그 한 예로 솔로몬을 살펴보기로 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할 때에 열방이 흠모할 만한 지혜를 갖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노년에는 많은 아내들의 유혹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에 빠졌으며 이는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왕상 11:4-13).

물론 이와 같은 신명기적 역사관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선민(選民)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었지만 신약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새 언약(렘 31:31; 히 12:24)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28:59; 고전 11:25-29).

우리가 신명기적 역사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성도 개개인의 신앙 상태와 그 삶의 전개 과정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언약적 역사 감각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한다면 보다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 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회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② 레위기-신명기

1999년 4월 10일 인쇄

1999년 4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